KiRi 보험연구원

제41회 산학세미나: 일본 장기요양 비즈니스 현황 및 시사점 〈주제 1〉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현황과 과제

송윤아

2023.9.1(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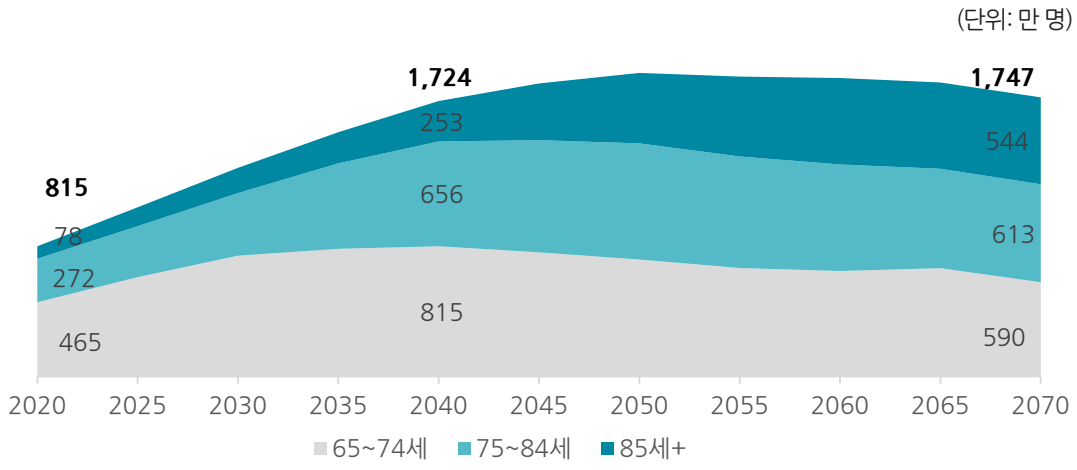
보험연구원 대회의실

1. 들어가면서

· **보험회사의 경영자원을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 고령화 대응 서비스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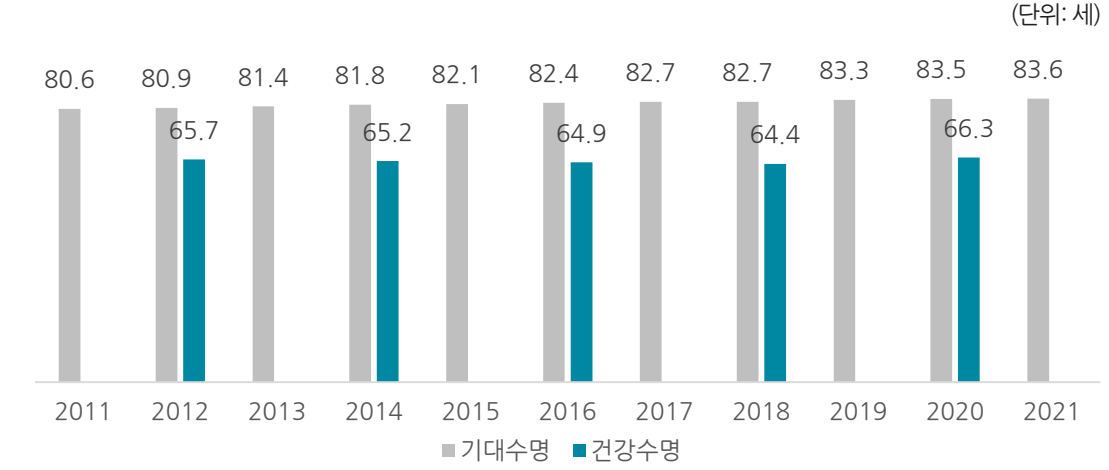
- **(금산분리)** 2022년 11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개선 방향성 제시[금융위원회(2022)]
- **(일본사례)** 보험회사는 **지속가능성** 중시, 정부는 보험회사의 경영자원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
- **(고령화)**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 노인인구는 2024년 1,000만명(20%), 2035년 1,500만명(30%) 초과
- **(보험회사)** 고령화에 대응, 사전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사후적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 참여

고령인구 연령구조, 2020~70년 (중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유병기간 17년



주: 기대수명은 0세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며,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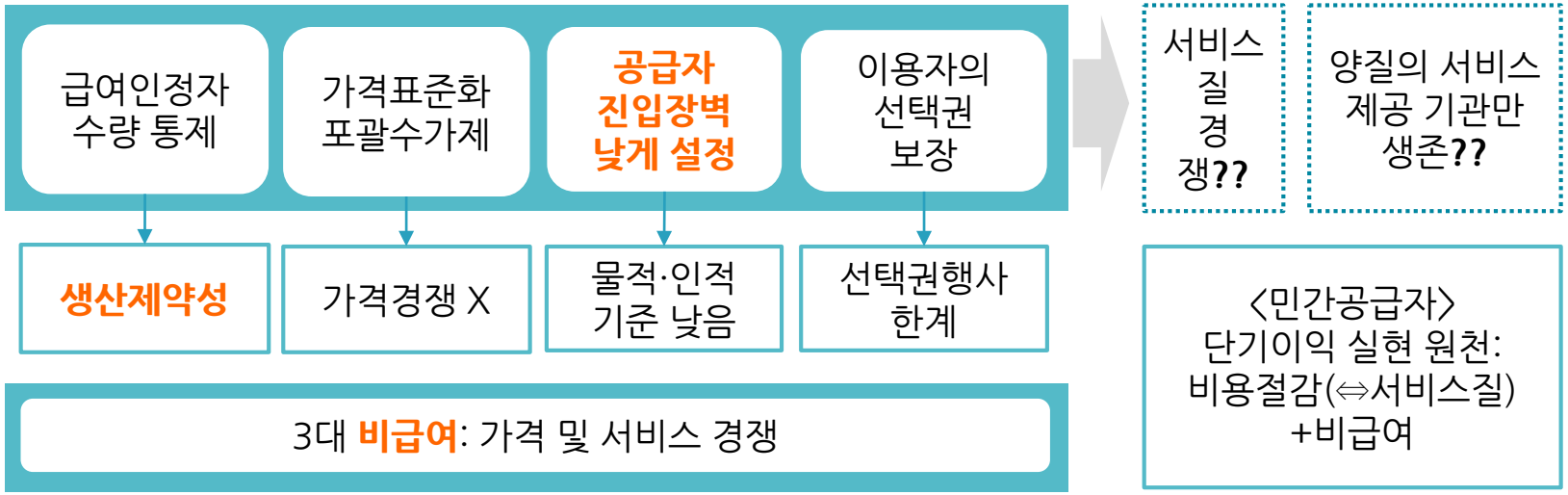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명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공적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공급자의 고민 필요 지점

- **(정부의 역할)** 재원조달 및 공급자 역할 ⇒ 재원조달, 구매자, 규제자, 환경조성자, 감독 및 평가자 역할(정책개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
- **(제도설계)** 가격표준화·포괄수가제 & 공급자 진입장벽 낮게 설정 & 이용자 선택권 보장 ⋯› *공급자, 서비스질 경쟁?⋯› 양질의 기관만 생존?*
- **(민간공급자)** 이익 = 매출증대 (이용자의 선택권과 결합, 불필요한 급여이용 유인) + 비용절감 (물적·인적 투입 비용↓ ⇒ 서비스질↓)
- **(추가이익원천)** 비급여가 많을수록, 진입 및 운영 비용이 낮을수록 공급자의 매출과 이익은 커지겠으나, 서비스 질과 공공성 담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설급여) 구조



*) Powell(2007), Le Grand(2006), 석재은(2017)

장기요양 실태 평가: 서비스 질

(단위: %)

구분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지자체	87.4 (10.7)	96.2 (4.6)	82.7 (18.3)	81.6 (14.8)	87.4 (7.7)
법인	80.7 (14.7)	93.4 (6.8)	78.8 (18.2)	79.8 (17.3)	85.7 (7.9)
개인	72.4 (16.2)	90.9 (7.8)	72.3 (18.7)	74.4 (18.4)	83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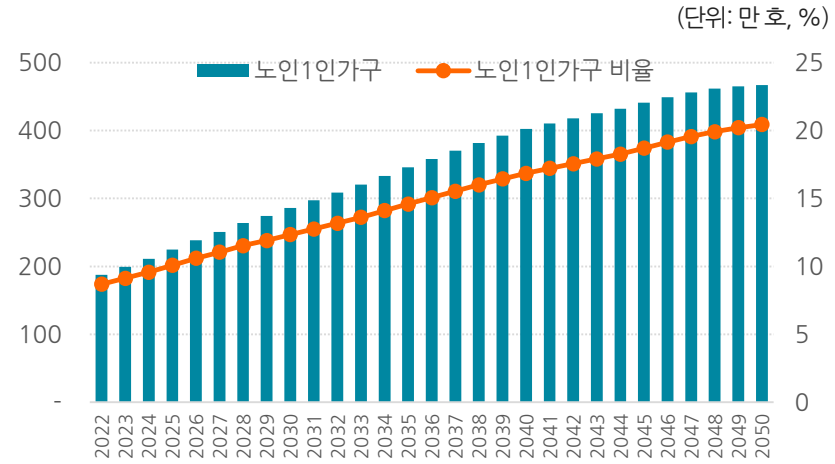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자료: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23)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너머: “미충족” 노인 돌봄·주거 수요

· 후기고령인구 급증, 재가우선 요양정책, 주거+돌봄+의료 수요, 경제력 갖춘 신노년층 ⇒ “미충족” 노인 돌봄·주거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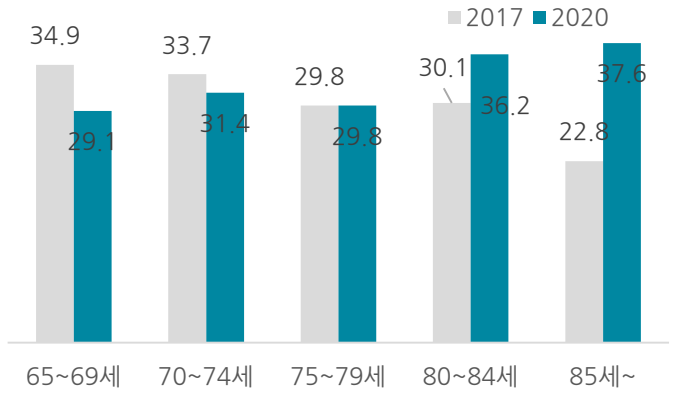
- **(후기고령인구)** 2020년 350만 명(노인인구의 43%) ⇒ 2035년 909만 명(47.8%)[8쪽]
- **(노인1인가구)** 노인1인가구 200만(2023년) ⇒ 346만(2035년), 건강수명 고려하면 고령층 진입 후 10년 이상 유병으로 혼자 삼
- **(재가우선정책)**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은 재가급여 우선 정책의 방향성 제시[15쪽]
- **(급여인정)** 급격한 고령화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부담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 자격 및 등급의 보수적 운영 가능성 내포[12쪽]
- **(신노년층)** 노인 주거, 의료,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14~17쪽]
- **(노인경제력)** 1954년생의 2019년 기준 공사연금은 2계층 76만원(월), 3계층 93만원, 4계층 128만원, 5계층 183만원, 6계층 246만원[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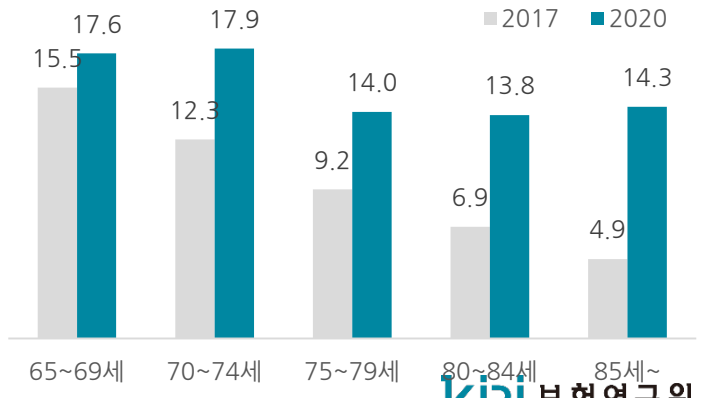
노인1인가구 추계



주: 좌축은 노인1인가구수, 우축은 전체가구수 대비 노인1인가구수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노인의 연령대별 희망 거주형태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KiRi 보험연구원

4. 시설이 집이 될 수는 없을까?

· 전문가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년을 부정적으로 정체화하는 사회·문화·심리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 김영옥(2023)

- 김영옥, 시도: 요양시설과 집의 이분법을 질문하기- ‘받고 싶고 하고 싶은 좋은 노년 돌봄’을 고민하다 ④, 2023년 7월 13일 (https://ildaro.com/9672)

· 고령자에 있어 요양시설이 집이 될 수는 없을까?

- 거동 가능한 상태에서 편의시설이 갖춰진 시설에 입소하여 살다가, 인지능력 또는 신체능력이 떨어지면 동일시설 내 다른 건물로 이동하여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변화에 맞는 돌봄을 받으며 삶을 이어가는…

· 보험회사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한계, 노후 삶에 대한 미충족수요, 노후돌봄의 현실과 이상간 간극을 메꿀 수 있을까?

KiRi 보험연구원

[부록]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현황과 과제

1. 고령화와 신노년층
2.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3. 노인돌봄서비스 과제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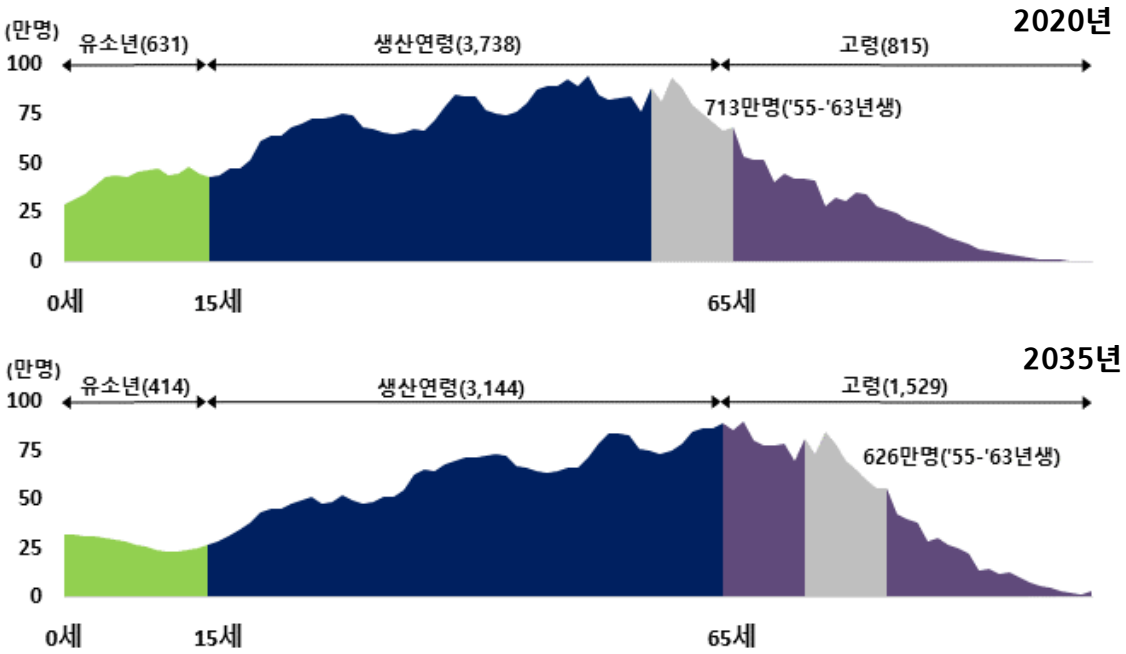
※ 이번 세미나는 일본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황과 사례를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일본사례 소개에 앞서,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와 동 세미나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하는 동 자료의 2~4쪽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1. 고령화와 신노년층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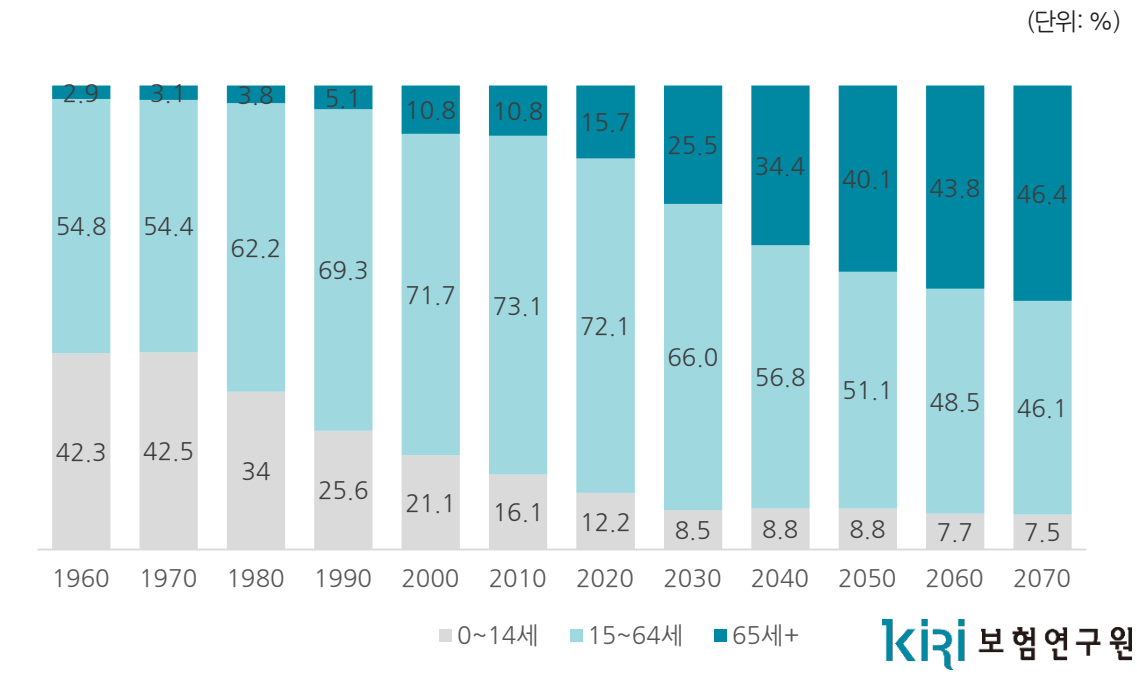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 급증

- 2020년에 1955년생 노인인구 진입 시작, 2028년에는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전환
- 고령인구는 2024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49년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 2070년 1,747만명에 이를 전망
-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

주요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연령별 인구구조, 2020~70년 (중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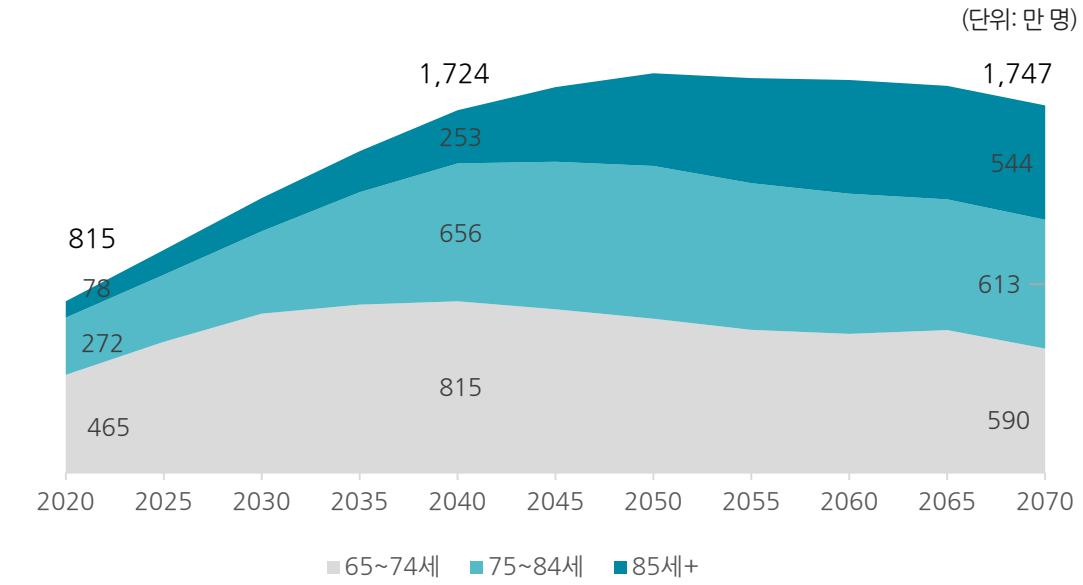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 고령화와 신노년층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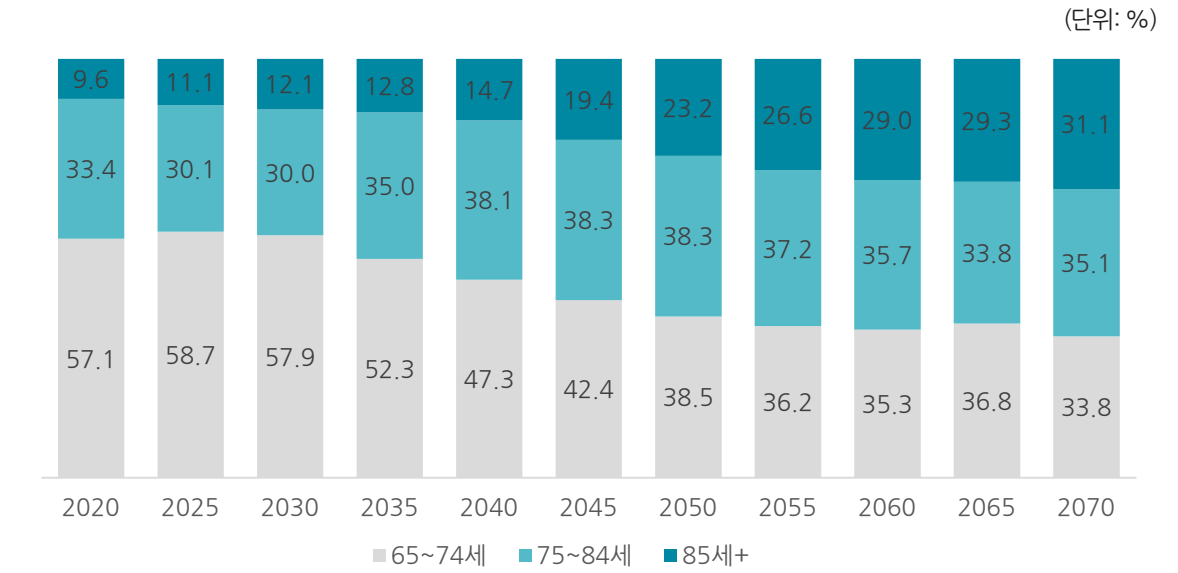
·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 돌봄 및 요양 수요 급증 전망

-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 2020년 350만 명(노인인구의 43%) ⇒ 2035년 909만 명(47.8%)

고령인구 연령구조, 2020~70년 (중위)



고령인구 구성비, 2020~70년 (중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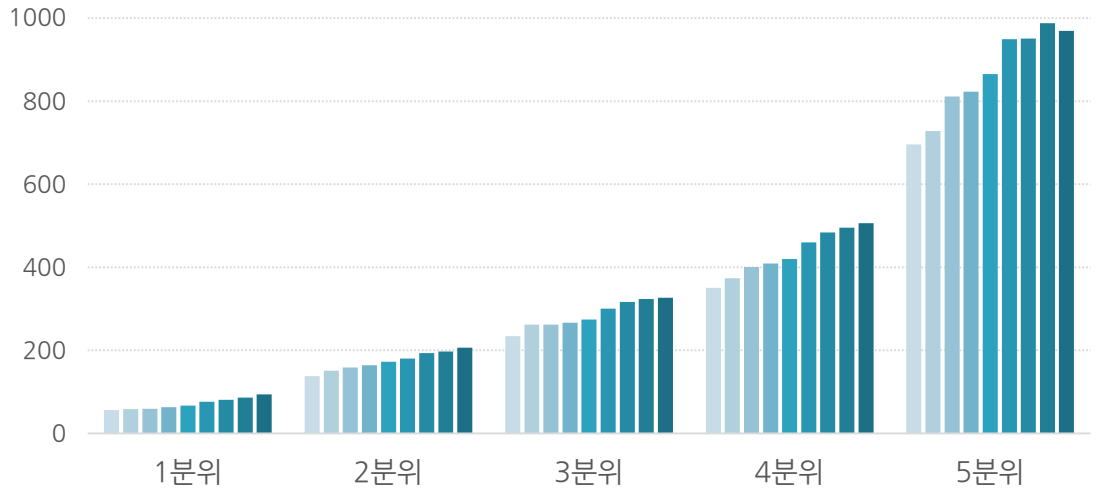
1. 고령화와 신노년층 (3/3)

· 2020년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 시작,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노인인구 증가 전망

- 2020년에 1955년생 노인인구 진입 시작, 2028년에는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전환
- 1954년생의 2019년 기준 공사연금은 2계층 76만원(월), 3계층 93만원, 4계층 128만원, 5계층 183만원, 6계층 246만원
- 건강·소득 등에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부양방식, 노인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등에서 변화 전망

노인가구 경상소득 추이 (2011~2019년)

(단위: 만원/ 월평균)



주: 균등화경상소득 기준 소득분위(5분위) 구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1954년생 소득계층별 공사적연금 평균 금액 추계(2019년 기준)

(단위: 천 원/ 월)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계
1계층	248	375	73	696
2계층	201	438	116	755
3계층	90	642	200	932
4계층	-	892	390	1,282
5계층	-	1,140	691	1,831
6계층	-	1,379	1,079	2,458
전체평균	229	643	473	1,345

자료: 감사원(2021), 황남희·김태완 ·진화영 ·신화연 ·최옥금(2021) 재인용

2.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1/2): 재정사업

노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부문 재정정책

	질병 예방 및 관리		돌봄 및 요양			임종지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치매국가책임제〉	- 인지저하등급 시설/재가급여 - 이동지원서비스 - 치매가족휴가제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통합재가급여 - 가족요양보호사지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연명의료 결정제도〉
정부 재정	- 방문건강관리 - 노인건강관리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 자살예방사업	- 치매관리 체계 구축 - 노인건강관리(치매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 노인요양시설확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양로시설 운영지원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국민 건강 보험	- 건강검진지원 - 건강백세 운동교실 - 노인건강마일리지	중증산정특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최성은(2022)

2.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2/2):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2021년 기준 노인인구의 10.7% 적용

- (대상) 2008년부터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인정자) 2021년말 기준 인정자 약 95만4천명(노인인구의 10.7%), 이용자 79만5천명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공 급여	재가+시설		재가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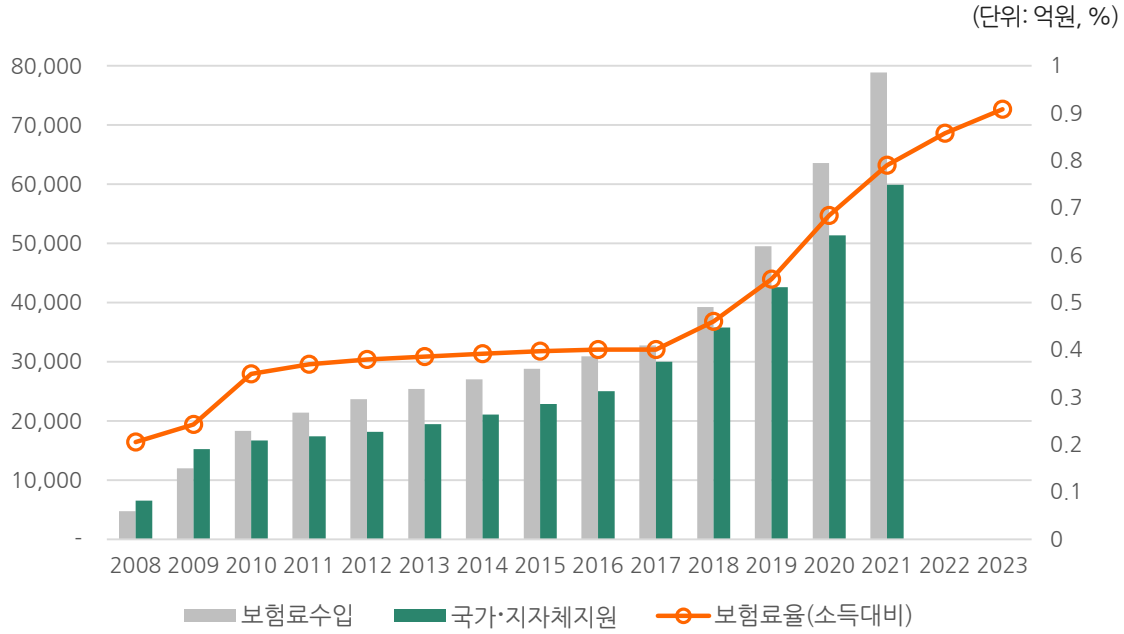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953,511명 (100%)	47,800명 (5%)	92,461명 (9.7%)	261,047명 (27.4%)	423,595명 (44.4%)	106,107명 (11.1%)	22,501명 (2.4%)

3. 노인돌봄 과제 (1/3):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가능성

· 노인돌봄 수요 및 급여비 지출 증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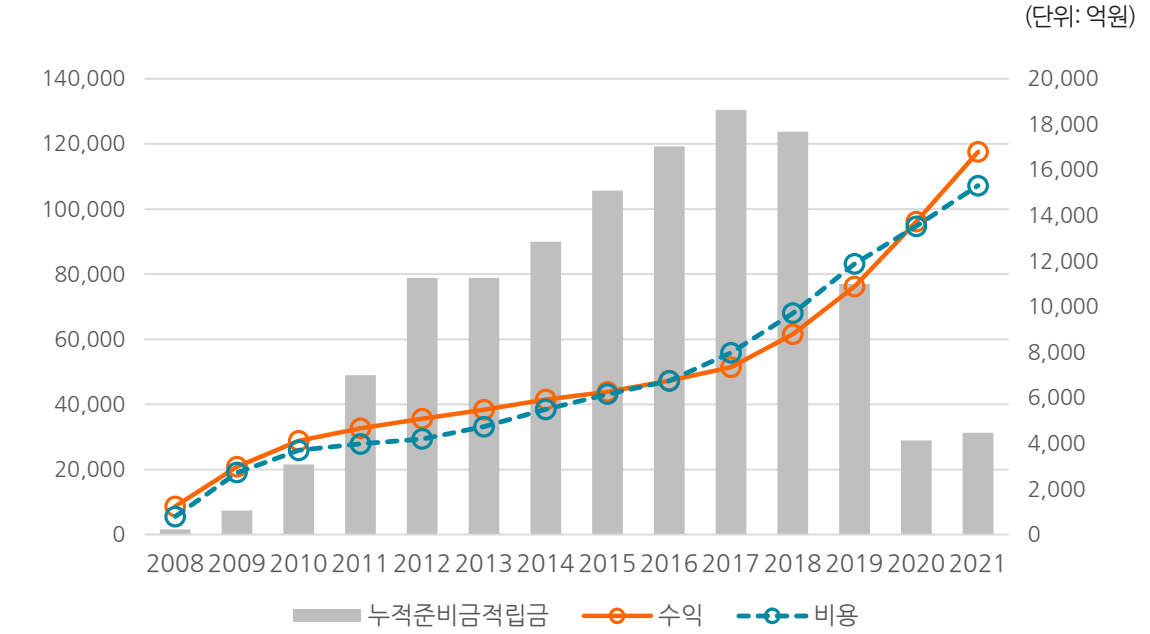
- 급여 지출 증가 ⇒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국가 및 지자체 부담 확대, 누적준비금 사용, 후기 고령인구(돌봄수요) 급증,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수가 인상 ⇒ 요율 인상, 국가 및 지자체 부담 확대 ⇒ 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 존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구조와 요율



주: 1) 국가 및 지자체 지원=국고지원금+국가분 의료급여부담금+지자체분 의료급여 부담금
2) 막대는 좌축(억원), 꺾은선은 우축(%)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 보건복지부 웹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주: 막대는 우축(억원), 꺾은선은 좌축(억원)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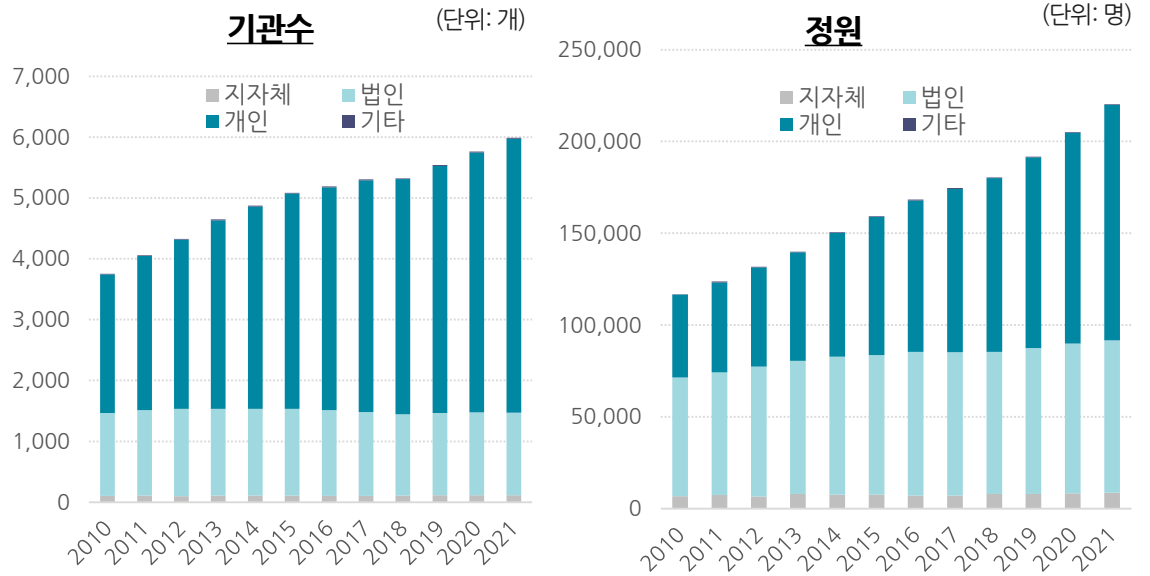
KiRi 보험연구원

3. 노인돌봄 과제 (2/3): 공공성과 서비스질

· 요양시설 설립은 민간이 주도,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질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강화 요구 존재

- 정부, 공급자 역할 제한적이며 재원조달·구매자·규제자·환경조성자·감독 및 평가자 역할(정책개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Powell(2007) 등
- 2021년 시설 수 기준 개인 75%, 법인 23% 차지, 정원 기준 개인 58%, 법인 38% 차지
- 서비스질 평가 결과, 지자체 시설은 법인 또는 개인 시설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유의하게 높음
- 2030년 전국적으로 148,446명(서울 29,458명, 경기 30,072명)에 해당하는 요양시설 부족 전망 김세진(2021)

설립주체별 요양시설 기관수 및 정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

장기요양 실태 평가: 서비스 질

(단위: %)

구분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지자체	87.4 (10.7)	96.2 (4.6)	82.7 (18.3)	81.6 (14.8)	87.4 (7.7)
법인	80.7 (14.7)	93.4 (6.8)	78.8 (18.2)	79.8 (17.3)	85.7 (7.9)
개인	72.4 (16.2)	90.9 (7.8)	72.3 (18.7)	74.4 (18.4)	83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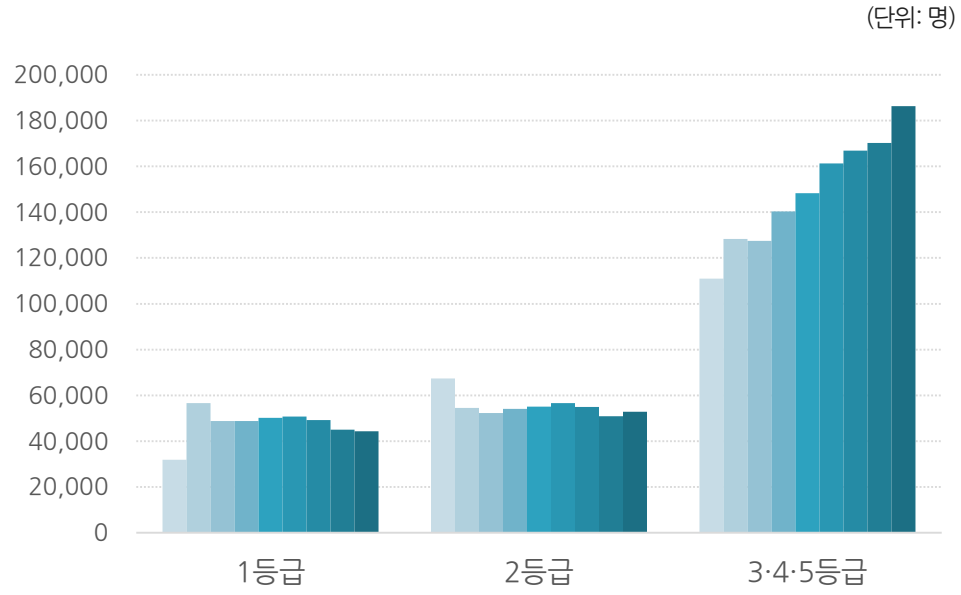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자료: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23)

3. 노인돌봄 과제 (3/3): 미충족 돌봄·의료·주거 수요 ①

· 중증노인의 요양병원 선호, 경증노인의 시설이용 증가 ⇒ 중증도 상관없이 노인의 돌봄·의료 접근성 수요 존재

- 의료 및 요양 수요 충족 + 비용구조 ⇒ 중증노인의 요양병원 선호
- 재가서비스의 불충분성 + 돌봄의 어려움 + 비용구조 ⇒ 경증노인의 시설이용 증가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이용자 수 (2013~202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 월평균 비용

구분	재가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보험자부담(a)	1,084,855원	1,457,760원	811,800원
법정본인부담(b)	191,445원	589,440원	801,750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c)	-	-	522,960원
실질법정본인부담(b-c)	**191,445원**	**589,440원**	**278,790원**
비급여본인부담(d, 간병비)	-	-	**1,068,000원**
계(a+b+d)	1,276,300원	2,047,200원	2,681,550원
일 이용시간	**3~4시간**	**24시간**	**24시간**

주: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재가서비스 및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3등급, 요양병원의 경우 선택입원군 기준임
2) 본인부담상한액: 360일 입원 기준, 소득분위 전체의 평균금액

자료: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재정사업 심층평가 노인의료지원사업군, 2020,; 최성은(2022) 재인용

3. 노인돌봄 과제 (3/3): 미충족 돌봄·의료·주거 수요 ②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재가우선 장기요양정책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중점과제	2022년	⇒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01.9만 명		145만 명
중증수급자 서비스양 확대	재가<시설	⇒	재가≒시설
재가서비스 다양화	5종+복지용구	⇒	현행+신규 서비스
가족 지원 체계 마련	65개소	⇒	227개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치매(8일)	⇒	치매+1·2등급(12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86.2%	⇒	88%

2. 신노년층의 본격 진입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중점과제	2022년	⇒	2027년
장기요양 등급체계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필요도 기반
서비스 이용 비중(재가:시설)	77:23	⇒	80:20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31개소	⇒	1.4천 개소
재택의료센터 확산	28개소	⇒	250개소

3. 공급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 강화

중점과제	2022년	⇒	2027년
장기요양기관 규모	2.7만 개소	⇒	+5천 개소('30), 공립·민간 확충, 진입제도 개선
장기요양기관 기본 유형	3~4인실 중심	⇒	1·2인실 확대, 유니트케어
요양보호사1명당 수급자수	2.3명	⇒	2.1명
요양보호사 수	60만 명	⇒	75만 명
장기요양기관 평가	정기평가	⇒	평가 다양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법적 근거 마련	⇒	부실기관 퇴출('25~)

4.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중점과제	2022년	⇒	2027년
급여비 비중(재가:시설)	62:38	⇒	70:30
적정 국고지원 등 재원	국고 20%	⇒	국고 20%+α(수입확충 등)
장기요양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 추진	⇒	코호트 구축('25)
돌봄기술 도입·활용	도입 추진	⇒	R&D,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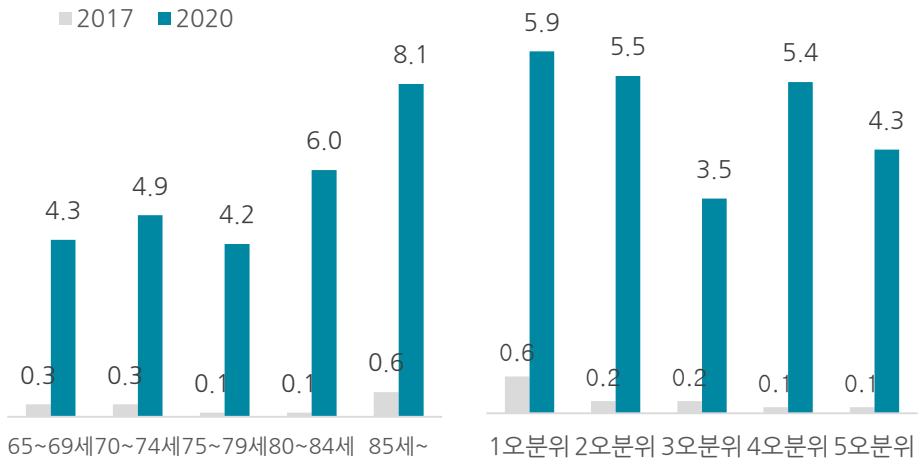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8월 17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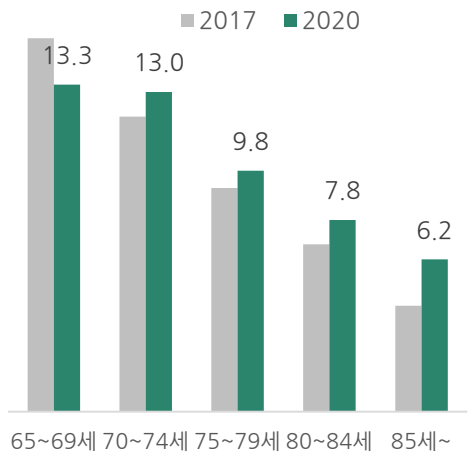
3. 노인돌봄 과제 (3/3): 미충족 돌봄·의료·주거 수요 ③

- **건강함에도 불구, 고령에서 오는 거처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존재**
  - 건강을 유지함에도,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불과 3년만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증가
  - 건강을 유지함에도, 보다 나은 거처를 희망하는 비율이 연령 및 소득수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존재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흐름이 있는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 시, 고령자 주택에 대한 수요, 보다 가시화 전망

건강유지 시 희망 거주형태

(단위: %)





주: 1)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2)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3) 식사, 생활편의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 입주 4) 기타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주거시설 이용 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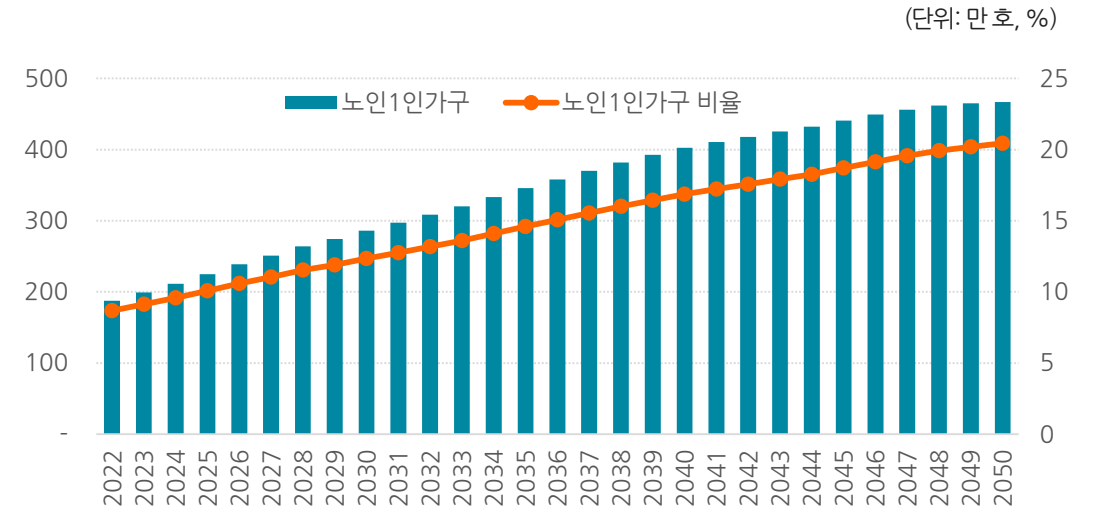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식사서비스	17.2	38.5	24.9
청소, 빨래	17.5	35.4	24.9
운동,문화,여가	15.2	34.7	31.7
의료	28.4	39.6	21.7
돌봄	18.9	39.7	26.5
병의원, 외출 동행 및 지원	13.8	41.6	31.4

3. 노인돌봄 과제 (3/3): 미충족 돌봄·의료·주거 수요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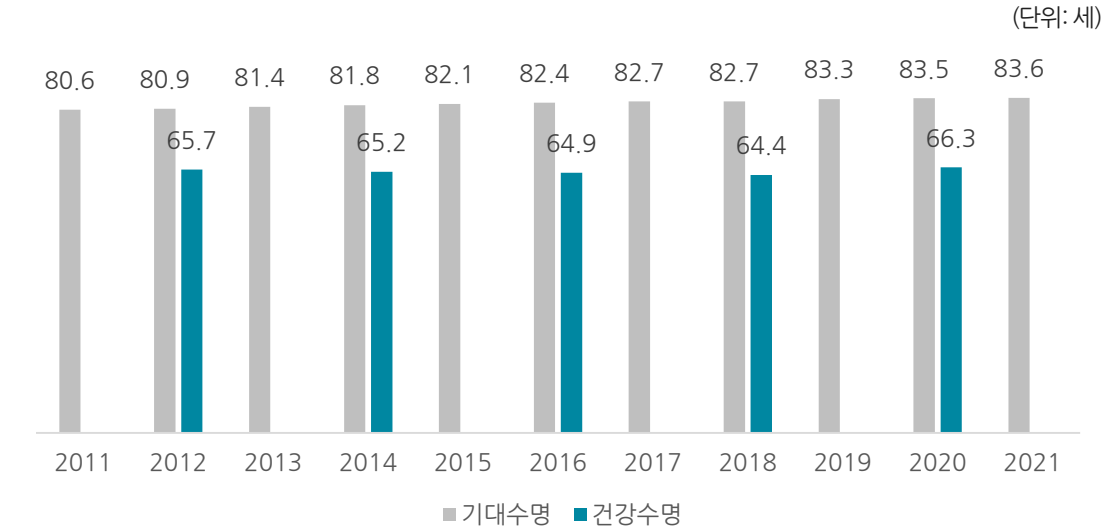
- **건강함에도 불구, 고령에서 오는 거처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존재**
  - 사별, 이혼 등 노인세대의 가족분화 진행, 노인1인가구 200만(2023년) ⇒ 346만(2035년)
  - 건강수명 고려하면, 고령층 진입 후 10년 이상 유병으로 혼자 삼
  - 거동가능 유병 1인가구 고령자에 재가우선 정책의 효능감을 장담하기 어려움

노인1인 가구 추계



주: 좌축은 노인1인가구수, 우축은 전체가구수 대비 노인1인가구수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유병기간 17년



주: 기대수명은 0세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며,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
자료: 통계청, 생명표

참고문헌

- 감사원(2021), 감사보고서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Ⅱ (노후소득보장 분야)
- 김세진·김혜수·이윤경(2021),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 시도: 요양시설과 집의 이분법을 질문하기 '받고 싶고 하고 싶은 좋은 노년 돌봄'을 고민하다 ④, 2023년 7월 13일 (https://ildaro.com/9672)
- 석재은 (2008),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 OECD 국가들과의 비교적 접근. 사회 보장연구, 24(4), pp.199-230
- 석재은 (2017),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 37(2), pp. 423~451
- 최성은 (2022),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재정포럼 3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황남희·김태완·진화영·신화연·최옥금(2021), 중장기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정책연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 Grand, J. (1991), Quasi-markets and Social Policy. The Economic Journal, 101(408), pp.1256-1267
- Powell, M. (ed.) (2007), Understanding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Bristol: The Policy Press and Social Policy Association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생명표

- 금융위원회 2022년 11월 보도자료,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 ·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및「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보고 · 논의 -"
- 보건복지부 2023년 8월 17일 보도자료,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감사합니다.

한국보험연구원 세미나

神田外語大学

일본 노인간병 현황과 중산층을 위한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의 성장이 주는 시사점

2023. 9. 1

일본 간다외국어대학교
류재광 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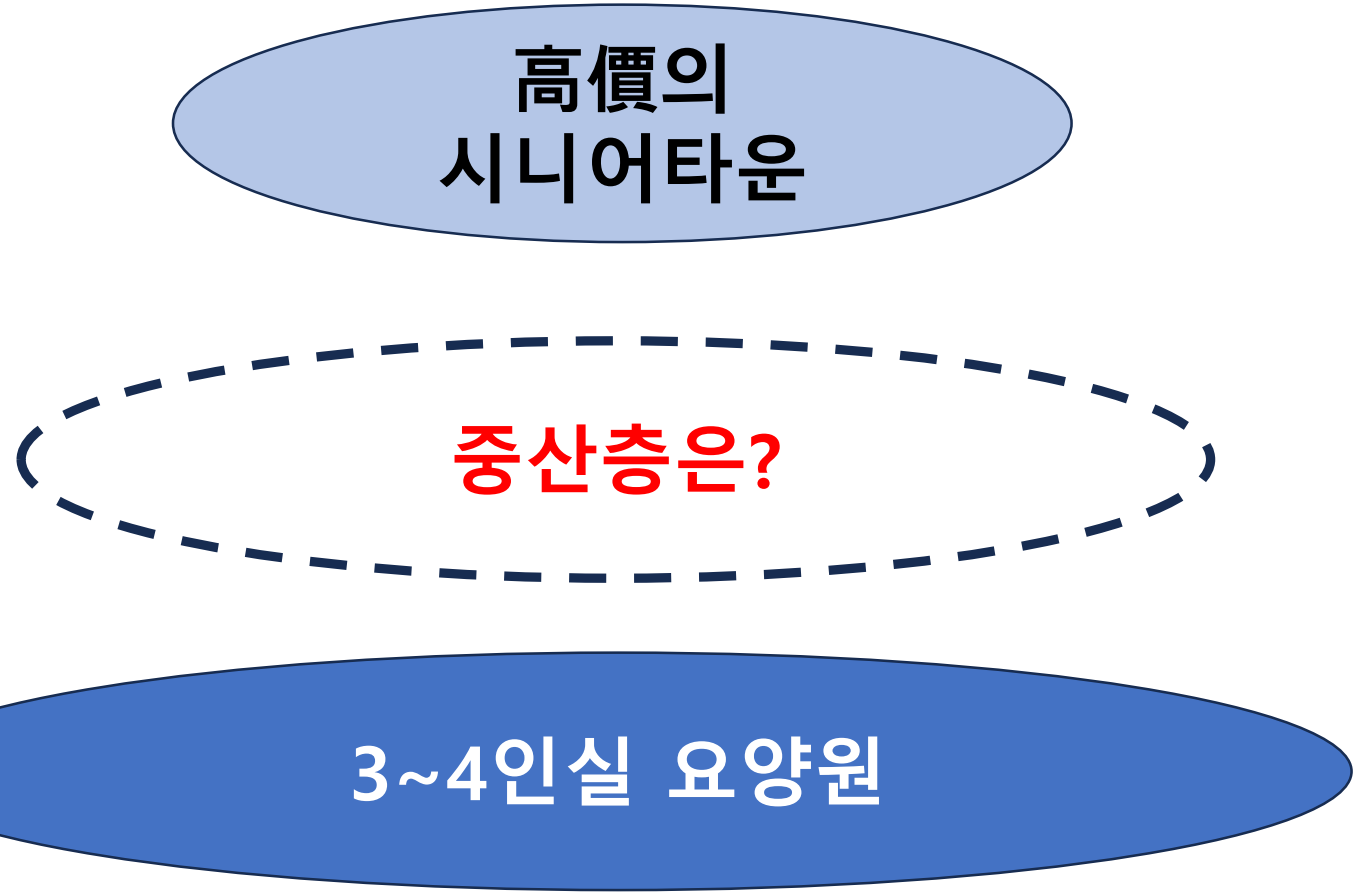
발표 순서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일본의 노인간병과 요양시설 및 고령자 돌봄 주택 현황
3. 중산층층을 위한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의 성장
4. 민간 고령자 돌봄 주택과 공적 개호보험의 급여적용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배경

▣ 한국은 향후 후기 고령자가 급증,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세대 증가, 신노년층의 주거와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그러나, 현재 중산층을 위한 입주 시설 부재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일본의 중산층 대상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를 살펴보고 시사점 제시

▣ 선행연구의 문제점

- 일본의 요양시설과 고령자 돌봄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요양원으로 표기
- 일본의 간병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시사점 도출

▣ 일본인 강사 발표와 연관성

- 이 발표: 일본의 간병 현황과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 전체 구조 이해
- 일본인 강사 발표: 실제 고령자 돌봄 주택 운영사례 발표

예비 지식 및 용어 정리

▣ 예비 지식 및 한국과 다른 일본 용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

구분	한국	일본
공적 요양보험 명칭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도입)	-개호보험(介護保険, 2000년 도입)
장기요양 인정 등급 체계	-1등급(중증)~5등급(경증)	-요지원1~2 (예방 서비스) -**요개호1(경증)~요개호5(중증)**
급여종류와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시설급여, 지역밀착형급여 -10% 공통(소득 높으면 20~30% 적용)
요양시설	-요양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개호의료원)
주거와 간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주택	-시니어타운 or 실버타운 or 노인복지주택	**-개호형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기타 등등

본 고에서 사용하는 일본어의 한국식 표현 정리

① 介護 : 개호, 장기요양, 경우에 따라서는 간병 또는 돌봄

② 介護保険 : 공적 개호보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③ 介護施設 : 요양시설 (한국의 일반적인 요양원)

④ 有料老人ホーム: 유료노인홈

⑤ 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 서비스제공형 고령자 주택

⑥ 고령자 돌봄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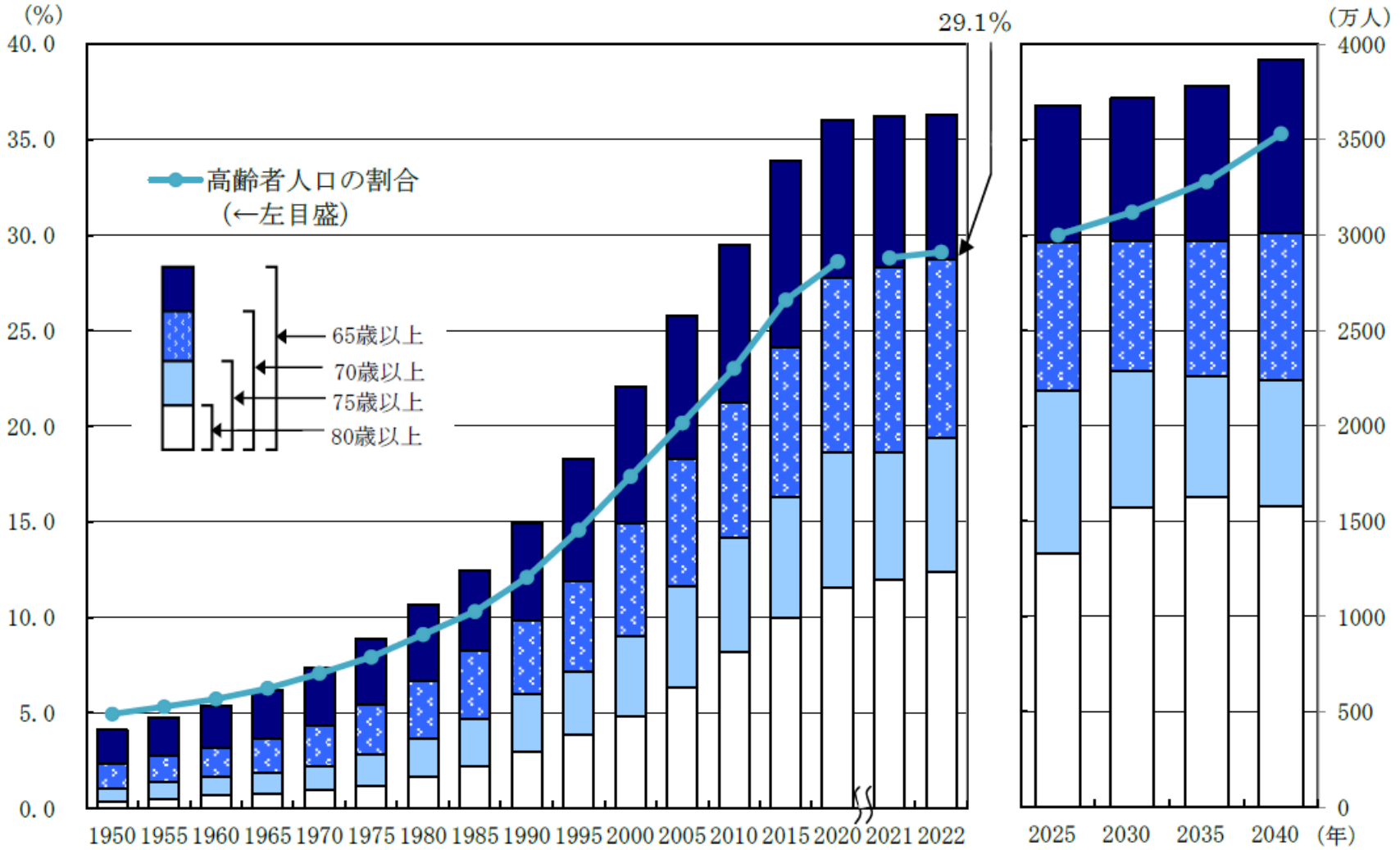
유료노인홈 +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

(有料老人ホーム)　(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

2. 일본의 노인간병과
요양시설 및 고령자 돌봄 주택 현황

일본은 이니 2005년부터 초고령사회를 경험 중

<일본 고령자와 고령화율 추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3,627만명
*전기고령자: 1,690만명
*후기고령자: 1,937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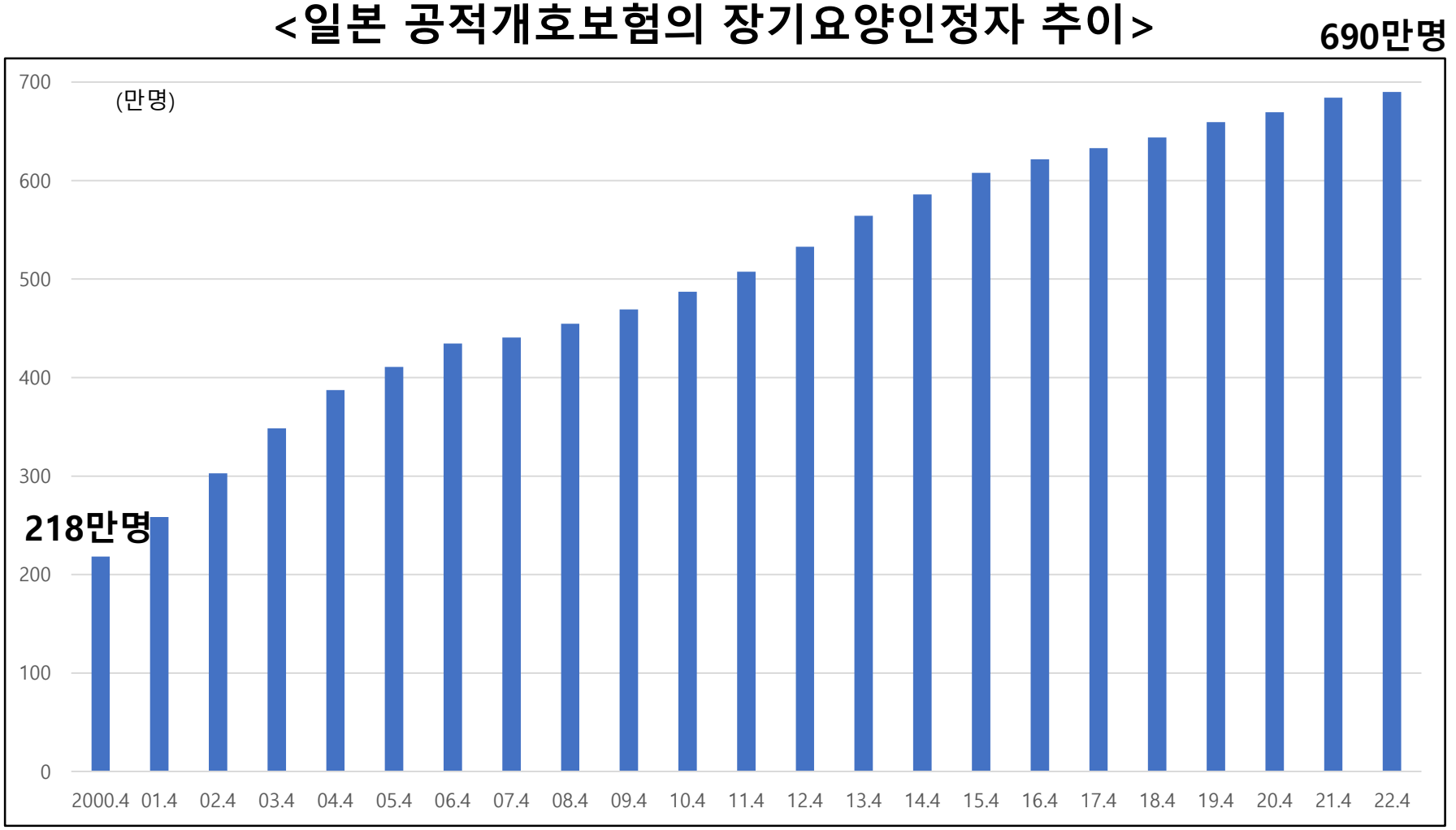
*80세 이상: 1,235만명

자료: 総務省（2022）、「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高齢者」에서 인용.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도 급격히 증가

▣ 일본의 장기요양 인정자는 2000년 218만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한 690만명

<일본 공적개호보험의 장기요양인정자 추이>



65세 이상 고령자 3,627만명의 **19%**

자료: 厚生労働省（2022）、「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를 이용해 작성.

장기요양 인정자의 거주 공간과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 690만명의 81%가 재가 서비스 이용 중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 현황

- ○ 시설 서비스 이용: 131만명 19%
- ○ 재가 서비스 이용: 559만명 81%

* 시설서비스 이용자는 2022.4 기준,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인정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 인정자도 포함됨

<재가 서비스 이용자(559만명) 구성>

- ·유료노인홈 54만명 9.6% (2021.10 기준 입주자)
-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27만명 4.8% (2022.12 기준 정원)
- ·인지증 그룹홈 26만명 4.6% (2022.4 기준 입주자)
- ·자택 및 기타 452만명 80.8%

주: 각 항목별 통계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파악 기준 일이 다르기에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
자료: 厚生労働省（2022.9）「介護給付費等実態調査」、厚生労働省（2022.12）「社会福祉施設等調査の概況」、高齢者住宅協会「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情報提供システム」、国土交通省（2022.2）「高齢者の住まいに関する現状と施策の動向」을 이용해 작성.

복잡 다양한 일본의 요양시설, 고령자용 돌봄 주택

介護老人福祉施設　介護老人保健施設　介護療養型医療施設　介護医療院

生活支援ハウス　養護老人ホームケアハウス　軽費老人ホーム・A型・B型

介護付有料老人ホーム　住宅型有料老人ホーム

健康型有料老人ホーム　無届有料老人ホーム　グループホーム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分譲型ケア付きマンション　シルバーハウジング

⇒ **복잡한 요양시설, 고령자 돌봄 주택 구조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알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

다양한 주체가 요양시설과 고령자 주택을 운영

운영주체	타입	시설수	객실 수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개호노인복지시설	10,040	635,316
	개호노인보건시설	4,109	371,294
	개호요양형의료시설	574	22,784
	개호의료원	524	32,776
	소계	15,247	1,062,170
지방 자치 단체	경비노인홈	2,323	95,167
	케어하우스	2,117	83,155
	경비노인홈 A형, B형	206	12,012
	실버 하우징	890	23,848
	생활지원 하우스	570	6,999
	양호노인홈	949	63,547
	소계	4,732	189,561
민간	**유료노인홈**	14,982	529,923
	개호형 유료노인홈	4,192	237,988
	주택형 유료노인홈	10,508	284,623
	건강형 유료노인홈	20	488
	미등록 유료노인홈	262	6,824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7,660	256,900
	그룹홈	13,945	218,180
	분양형 게어 제공 맨션	80	12,671
	소계	29,007	760,774
전국 합계		56,646	2,269,405

공적 개호보험 상 개호 시설

고령자 돌봄주택

공적 개호보험에서 재가 서비스 이용

주: 2020년 10월 기준, 항목에 따라 통계 파악의 기준 년이 다르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

자료: 国土交通省（2022）、「データから見た高齢者住宅・施設の需給バランス」第5回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に関する懇談会資料를 수정 보완해 작성.

고령자주택과 요양시설 비용의 비용은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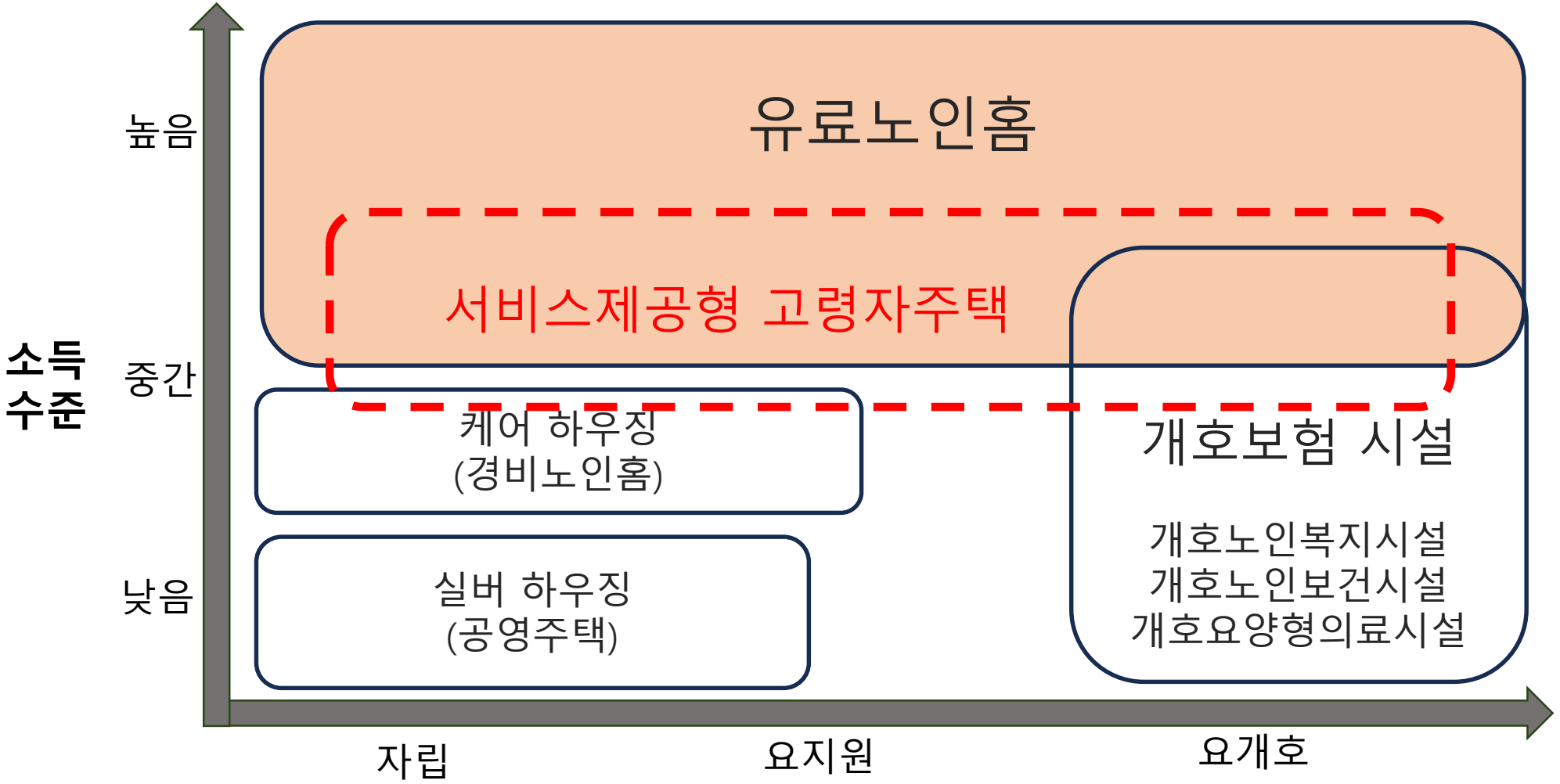
▣ 민간이 제공하는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의 월 이용 비용이 높음

구　분	입주할 때 비용	월액 비용
特別養護老人ホーム (특별양호노인홈)	0円	4.8万～21.5万円
介護老人保健施設 (개호노인보건시설)	0円	9.3万～13.6万円
ケアハウス（軽費老人ホームC型） (케어하우스)	30万円	8万～15万円
グループホーム (그룹홈)	15万円	14.3万～14.6万円
介護付き有料老人ホーム (개호형 유료노인홈)	60万～690万円	19.6万～31.7万円
住宅型有料老人ホーム (주택형 유료노인홈)	20万～25.1万円	14.1万～18万円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15万～23.8万円	13.1万～22.1万円
シニア向け分譲マンション (시니어용 분양 아파트)	2,322.5万～4,036.1万円	5.9万～8.4万円

주: LIFULL 介護에 게재된 전국 52,000건의 고령자 돌봄 주택, 요양 시설의 요금 데이터 중 중앙치를 산출한 것.
자료: 株式会社LIFULL senior가 운용하는 고령자 돌봄 주택, 요양시설 중개사이트' LIFULL 介護' 에서 인용.

소득수준과 등급에 따라 다양한 시설 이용 가능

<소득, 개호 등급에 따른 고령자 주택과 요양시설의 이미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중산층 대상 고령자 돌봄 주택

▣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은 주거 공간+생활지원+간병 서비스 제공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고령친화 주거공간	생활지원서비스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베리어프리, 엘리베이터 등 고령친화 설계	안부확인 생활지원상담 식사제공 가사지원 등	등급을 받으면 간병서비스 의료서비스 임종서비스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비교

구분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근거법과 (소관 부서)	노인복지법 (후생노동성)	고령자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성)
설치 개시	1950년대 일부 존재, 70년대부터 다양화 (오노 이사 발표자료 참조)	2011년 법 시행 이후
입주공간	1인실 또는 부부	1인실 또는 부부
객실 기준	주거공간 개인실 13m^2 이상	주거공간 개인실 25m^2 이상
제공 서비스	아래 중 1가지 이상 제공 ① 식사 제공 ② 목욕, 배설 또는 식사 개호 ③ 세탁, 청소 등의 가사 ④ 건강관리	아래 2가지 필수 제공 ①안부확인 서비스 ②생활상담 서비스
종류	① 개호형 유료노인홈 ② 주택형 유료노인홈 ③ 건강형 유료노인홈	식사 등 추가 서비스 제공시 유료노인홈 취급

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이용해 작성.

3. 중산층을 위한

고령자 돌봄 주택 비즈니스의 성장

(1) 유료노인홈: 종류와 특징

▣ 유료노인홈에는 3종류가 있으면 개호형과 주택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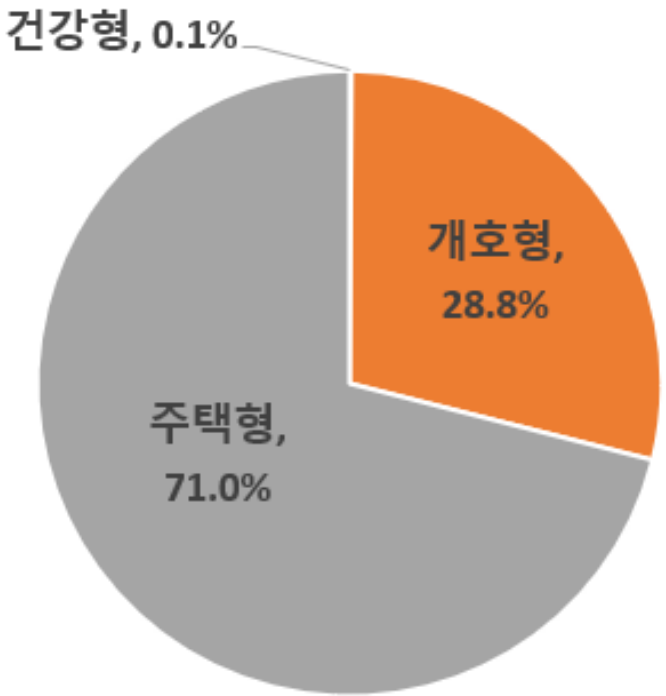
구분	특징
① 개호형 유료노인홈	- 자립상태에 입소해 생활하다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거주하는 유료노인홈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당수가 임종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유료노인홈 내부 직원이 직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형과 안부확인과 케어플랜 등은 내부직원이 제공하지만 요양서비스는 위탁 기관이 제공하는 외부서비스 이용형이 있음
② 주택형 유료노인홈	-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외부 사업소의 방문 개호, 방문 간호 등을 이용하는 시설임
③ 건강형 유료노인홈	- 자립 상태에서 입소해 생활하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퇴소하는 시설로 시설 수가 많지 않으며 민간 기업의 활용도도 떨어짐

자료: 각종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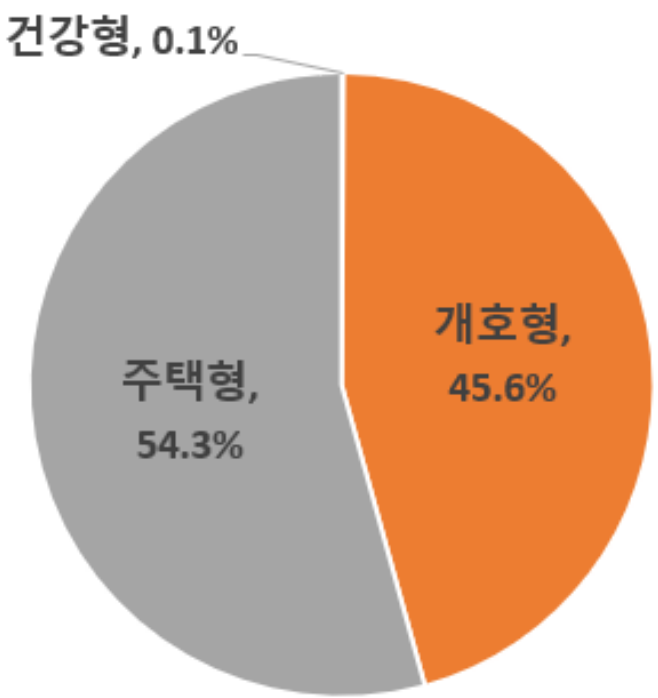
유료노인홈 유형별 시설 수와 정원 수 비중

▣3개 유형 중 주로 개호형과 주택형이 이용되고 있음

<유료노인홈의 시설 수 비중>



<유료노인홈의 정원 수 비중>



주: 시설 수 및 정원수는 2018년 기준으로 후생노동성이 산출.
자료: 厚生労働省（2020）、「高齢者向け住まいの今後の方向性と紹介事業者の役割」를 이용해 작성.

개호형과 주택형 유료노인홈 비교

구분	개호형 유료노인홈	주택형 유료노인홈
인가 유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 지정	도도부현 등에 신고
지도감독 및 권한	개호보험법에 근거한 권고, 개선명령, 지정취소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개선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
개호서비스 이용 및 보수체계	-개호보험 서비스를 시설에서 직접 제공 -개호보수는 시설에 포괄보수로 지급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개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 외부 서비스 사업소와 개별 계약 후 이용, 개호보수는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각 사업소에 지급
주요 인력기준	-관리자 1명 -생활상담원: 요개호자 100명당 1명 -간호사, 요양보호사: 요지원자 100명당 1명, 요개호자 3명당 1명 -기능훈련지도원:1명 이상 -계획 작성 담당자: 개호지원전문요원 1명 이상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표준지도지침**(국장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 - 입주자 수 및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관리자, 생활상담원, 영양사, 조리원을 배치할 것 -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요개호자 등을 직접 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 체제를 구축할 것
주요 시설 기준	-개호거실: 원칙 개인실, 프라이버시 보호 배려, 간병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지하실에는 설치하지 말 것 등 -임시 개호실 : 간병할 수 있는 적절한 넓이 -욕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목욕하는데도 적합할 것 -화장실: 거실이 있는 층마다 설치하여 비상 설비를 갖출 것 -식당, 기능훈련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시설 전체 :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구조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표준지도지침**(국장고시)에서 직원 배치에 대해 제시 - 일반거실, 개호거실, 임시개호실 : 개인실로 하고 입소자 1인당 바닥면적은 13평방미터 이상 등 - 욕실, 세면시설, 화장실을 거주실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와 수를 마련할 것 - 개호거실이 있는 구역 복도는 입소자가 휠체어 등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폭은 원칙적으로 1.8미터 이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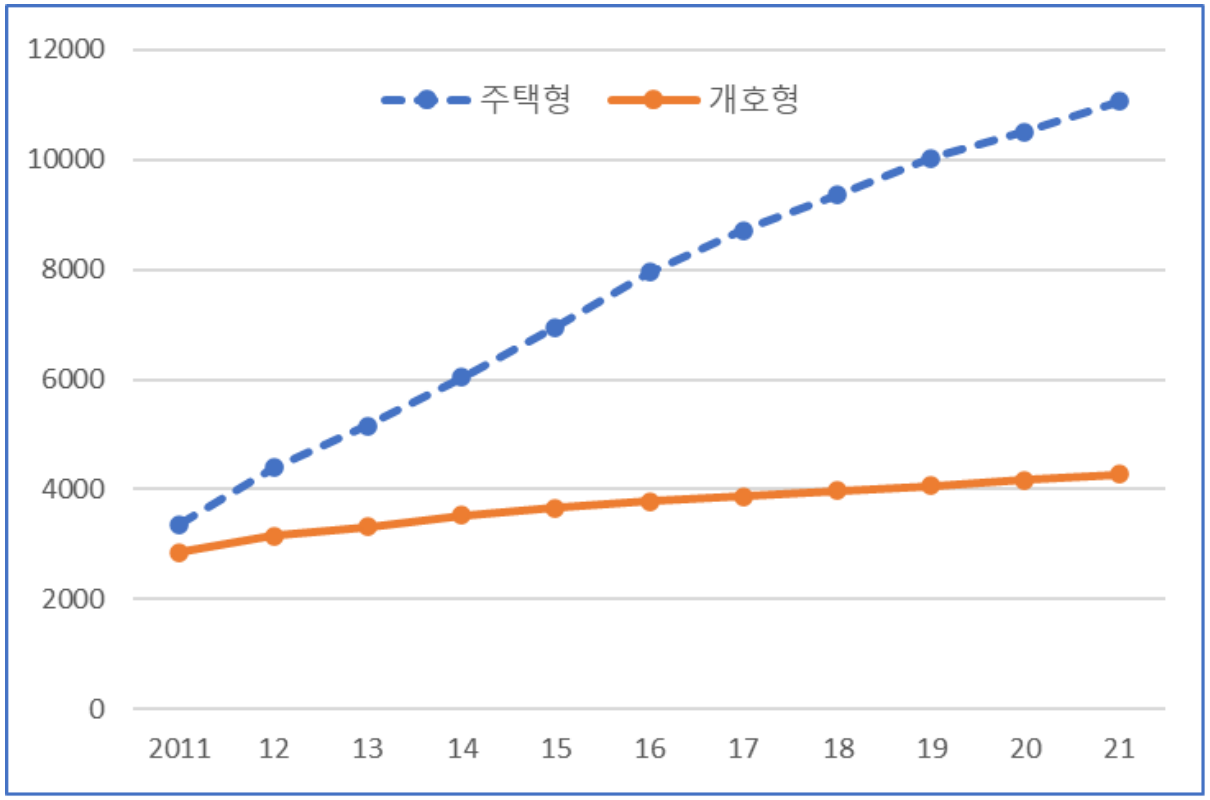
자료: 国土交通省（2023）、「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資料를 이용해 작성.

개호형보다 주택형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 입주 비용이 저렴하고 규재가 덜한 주택형의 공급과 정원수가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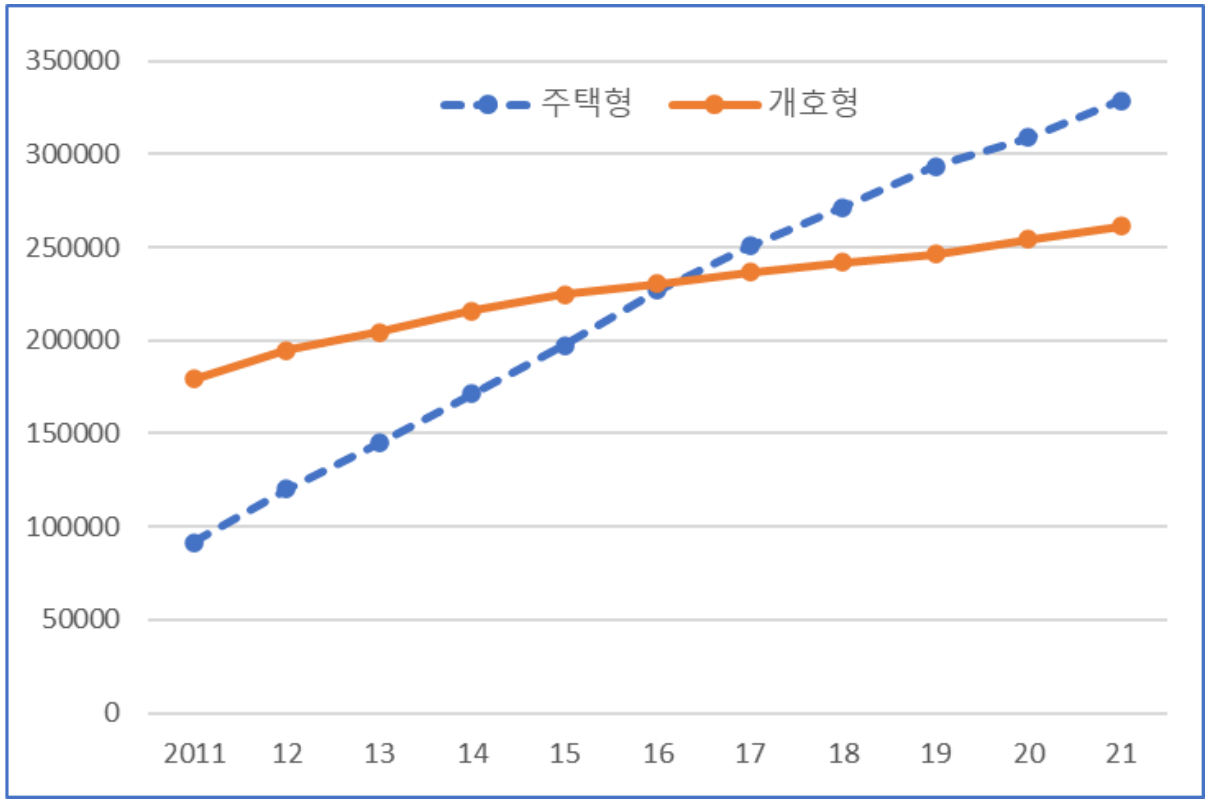
(단위: 건수)

<유료노인홈 건수 추이>



(단위: 명)

<유료노인홈 정원수 추이>



자료: 国土交通省（2023）、「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資料를 이용해 작성.

(참고) 개호형 유료노인홈 사례 1 전원형

<유유노사토 사쿠라>
ゆうゆうの里　佐倉 (도쿄근교)

<유유노사토 쿄토>
ゆうゆうの里　京都

자료: https://www.yuyunosato.or.jp

(참고) 개호형 유료노인홈 사례 2 도심형

<SOMPO케어 라비레 그란 요츠야>

SOMPOケア ラヴィーレグラン四谷

자료: https://www.sompocare.com/service/home/kaigo/H000440

(2) 서비스제공형 고령자 주택: 개요

▣ 고령 친화적인 건물 구조와 안부확인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등록 기준>

구분	개요
건물 설계	- 바닥면적 25m^2 이상 - 베리어프리 구조(복도 폭, 단차 제거, 손잡이 설치 등) - 구조, 설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제공 서비스	- 필수 서비스: 안부확인서비스, 생활상담 서비스 *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 (식사, 세탁 등 가사지원 등)
입주자와 계약	- 보증금, 월세, 서비스 비용 이외 추가 금전을 징수하지 말 것 - 장기입원을 이유로 일방적 해약을 하지 않는 등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입주자 요건	- 60세 이상일 것 또는 등급인정을 받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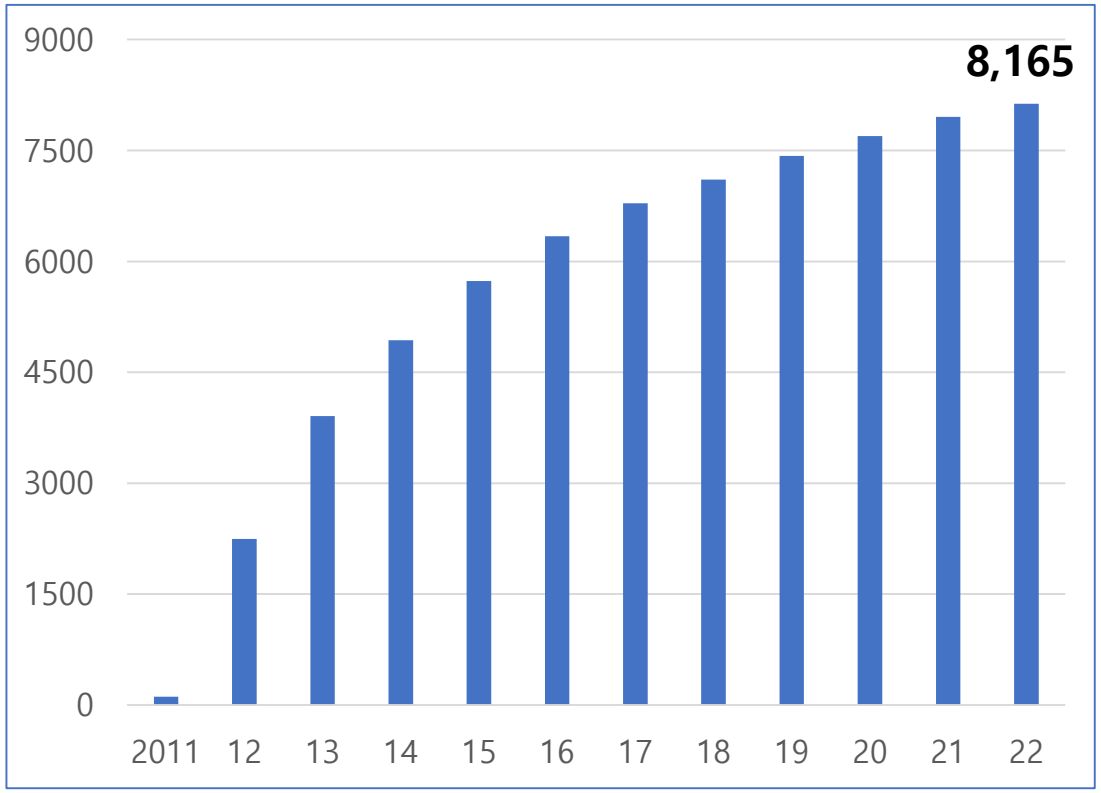
자료: 国土交通省（2022）、「高齢者の住まいに関する現状と施策の動向」을 이용해 작성.

주택수와 입주자수는 급격히 증가

▣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등록 건수와 입주자수는 급격히 증가, 서비스도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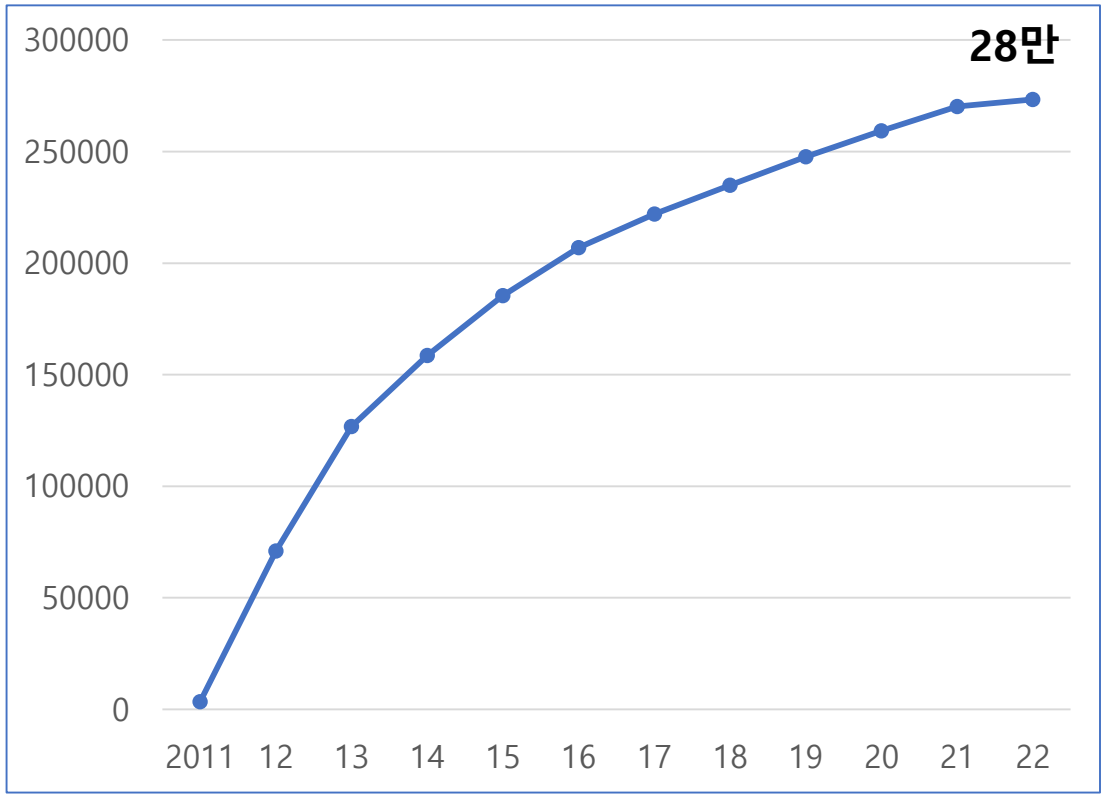
(단위: 건수)

<주택 등록 건수 추이>



(단위: 명)

<정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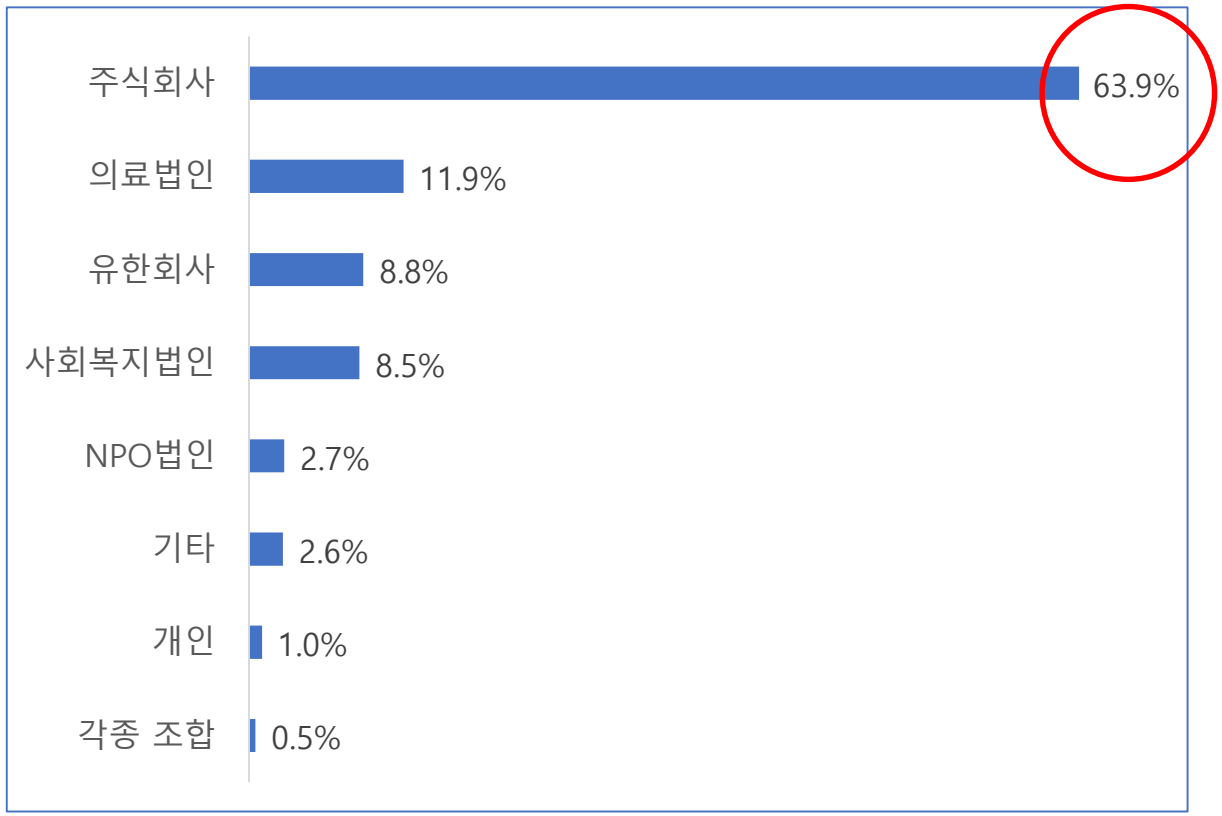


자료: 国土交通省（2023）、「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資料와
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情報検索システム를 이용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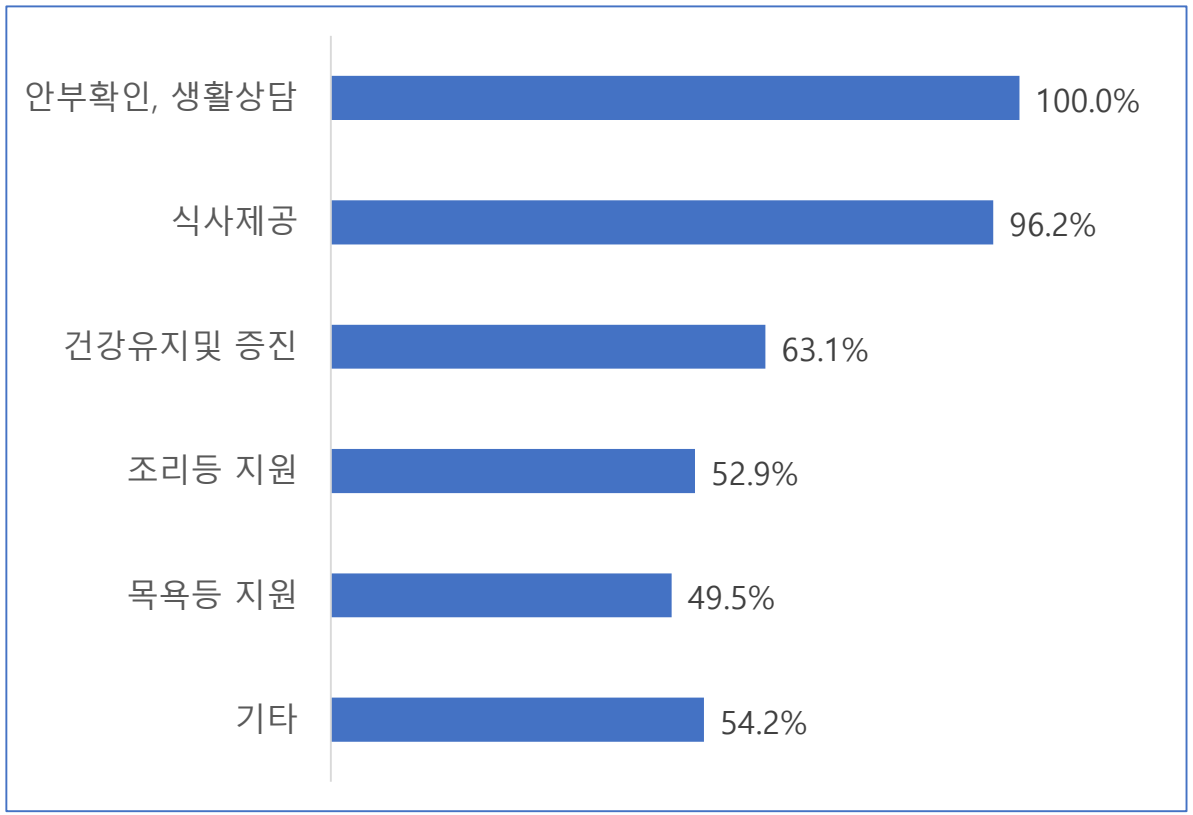
민간이 주도하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필수 서비스만이 아니라 많은 곳이 유료노인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

<운영주체 비중>



<제공 서비스 현황>



자료: 一般社団法人高齢者住宅協会（2022）、「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の現状と分析」을 이용해 작성.

서비스는 주로 병설 시설을 통해 제공

▣ 전체의 75%가 1개 이상 시설을 병설, 데이서비스센터와 방문개호는 40%가 설치

<병설 시설 설치 비중>

병설 시설수	설치비중
1개 시설	33.4%
2개 시설	19.5%
3개 시설	11.4%
4개 시설	5.3%
5개 시설	2.7%
6개 시설	1.3%
7개 시설 이상	1.3%

*** 전체 주택의 75%가 1개 이상 설치**

<병설 시설 종류와 설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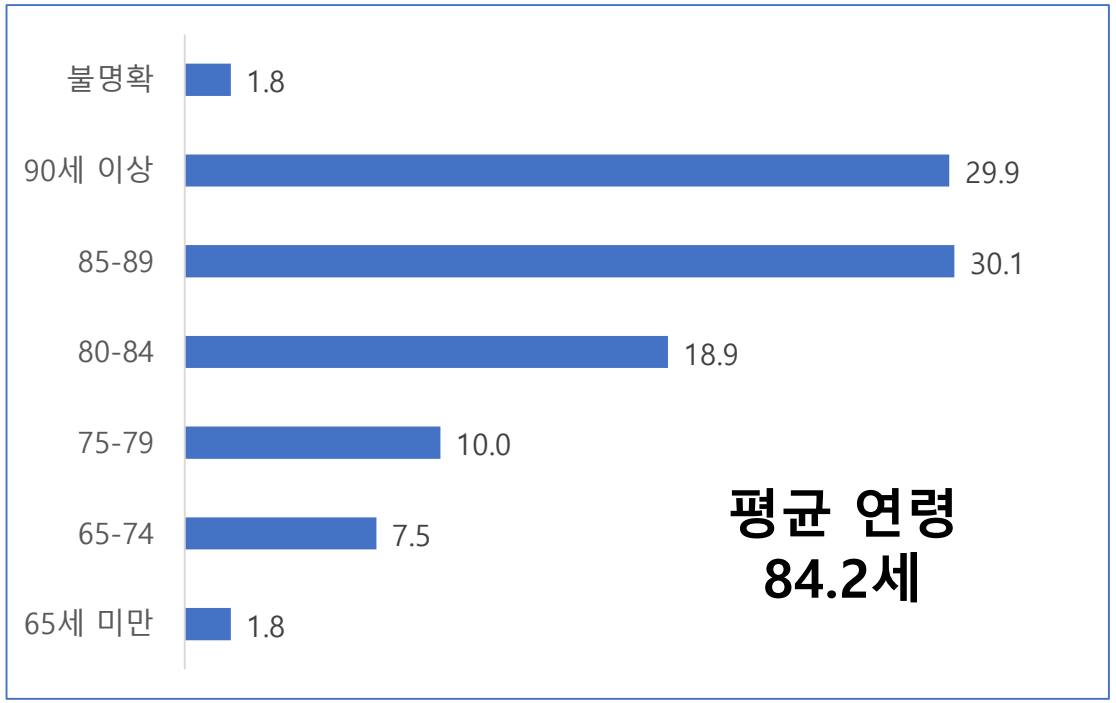
병설 시설 종류	설치비중
데이서비스센터	41.1%
방문개호사업소	40.7%
재가개호지원사업소	21.9%
방문간호사업소	9.5%
소규모다기능재가사업소	8.0%
정기순회 수시대응형 방문사업소	4.7%
식사서비스 시설	4.1%
진료소	4.1%
단기입소 사업소	3.6%

자료: 一般社団法人高齢者住宅協会（2022）、「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の現状と分析」을 이용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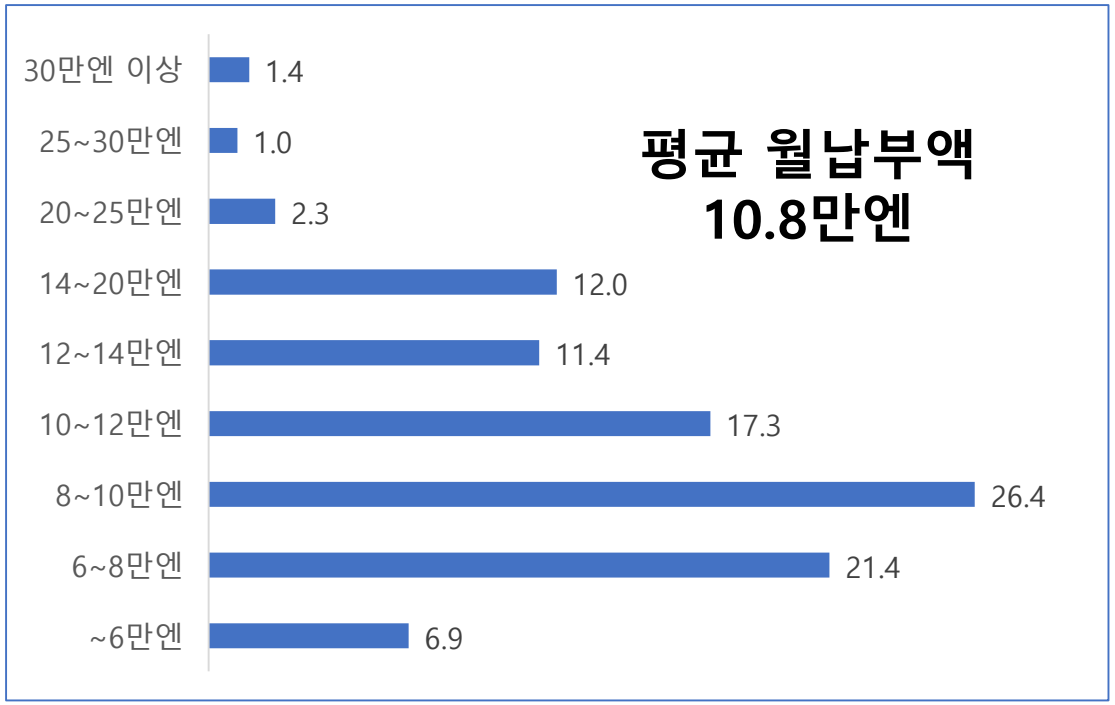
평균 연령은 84.2세, 월납부액은 평균 약 11만엔

▣ 입주자는 75세 이상이 90%, 월 납부액은 20만엔 미만이 대부분

<현재 입주자 연령 구성>



<전국 평균 월납부액 현황>



* 월납부액: 월세+관리비+서비스비(안부확인 등)
* 개호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10%는 포함 안됨

주: 입주자 연령은 2000년 실태조사 결과, 월납부액은 2021년 8월 기준.
자료: 国土交通省（2022）、「高齢者の住まいに関する現状と施策の動向」第6回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に関する懇談会資料를 이용해 작성.

(참고)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사례(도심형)

<SOMPO케어 라비레 레지던스 요가>

SOMPOケア ラヴィーレレジデンス用賀

3층~6층
객실
1인싱~2인실 등

2층
케어 플로어
24H 간병서비스

1층
라운지, 식당
컨시어지 데스크 등

자료: SOMPOケア ラヴィーレレジデンス用賀 팜플렛.

4. 민간 고령자 돌봄 주택과 공적 개호보험의 급여적용

민간 고령자 돌봄 주택의 공적 개호보험 적용 조건

▣ 고령자 돌봄 주택 중 특정시설로 인정받은 곳은 공적 개호보험 통해 급여 수급 가능

*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 특정시설 대상

-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케어하우스, 양호노인홈

(참조) 유료노인홈 중 특정시설로 인정받으면 '개호형 유료노인홈' 명칭 사용 가능

○ 인력 기준

- 관리자 1명, 생활상담원(요개호자:생활상담원=100명:1명)
- 간호·간병인력(요지원자: 간호간병인력=10:1, 요개호자:간호 간병인력=3:1)
- 간호직원은 요개호자 30명까지 1명, 30명 초과시 50명마다 1명, 야간 직원은 1명 이상
- 기능훈련지도원(1인 이상), 개호지원전문인 1명이상(요개호자:개호지원전문인=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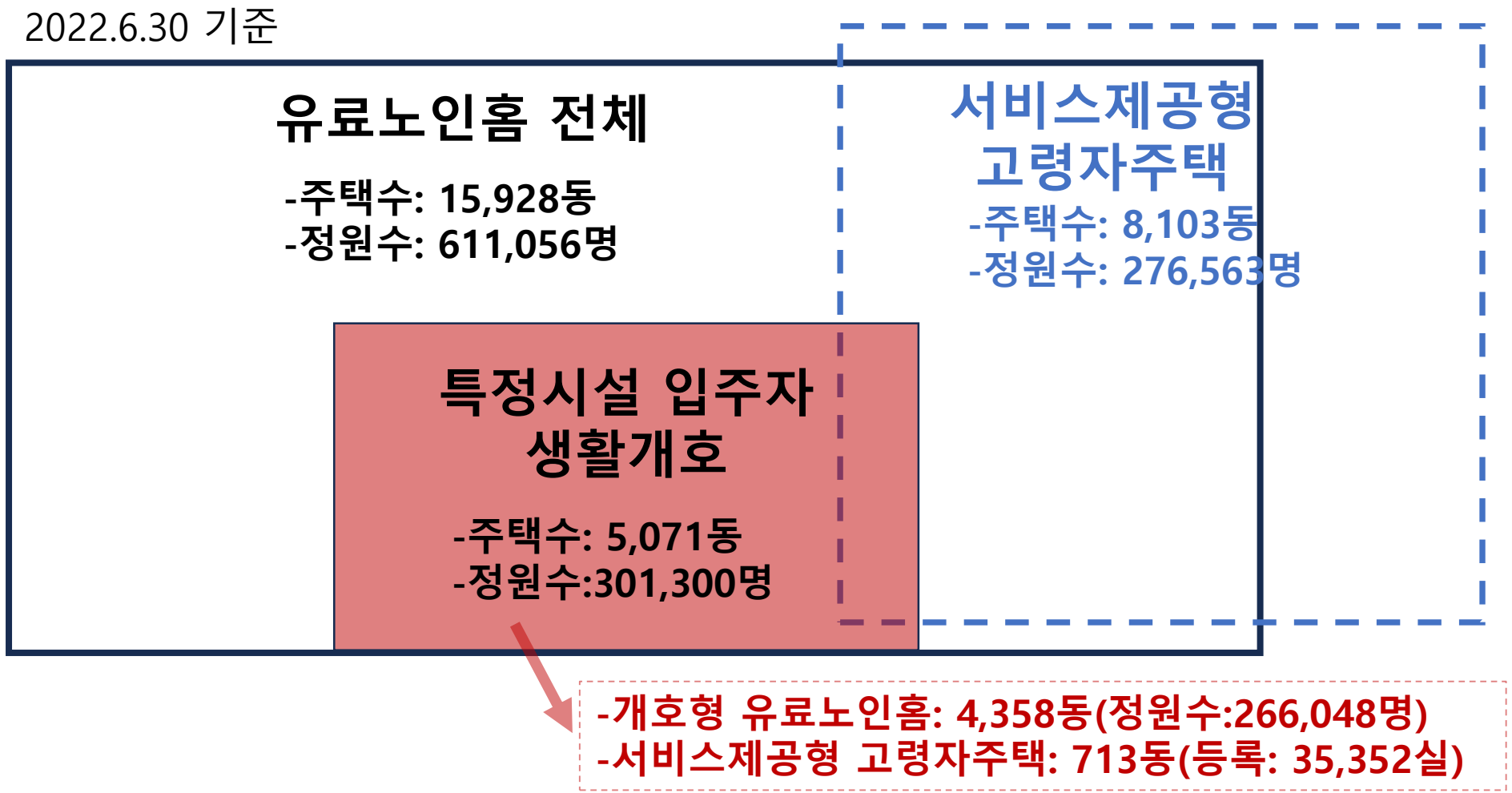
○ 설비 기준

- 원칙 개인실, 임시 개호실 : 간병할 수 있는 적절한 넓이
- 욕실 :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목욕하는데 적합할 것
- 화장실 : 거실이 있는 층마다 설치하여 비상 설비를 갖출 것
- 식당, 기능훈련실 :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넓이
-시설 전체 : 이용자가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구조

자료: 厚生労働省（2023）、「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를 이용해 작성.

기존 고령자주택과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관계도

▣ 유료노인홈 중 27.4%,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의 8.8%가 특정시설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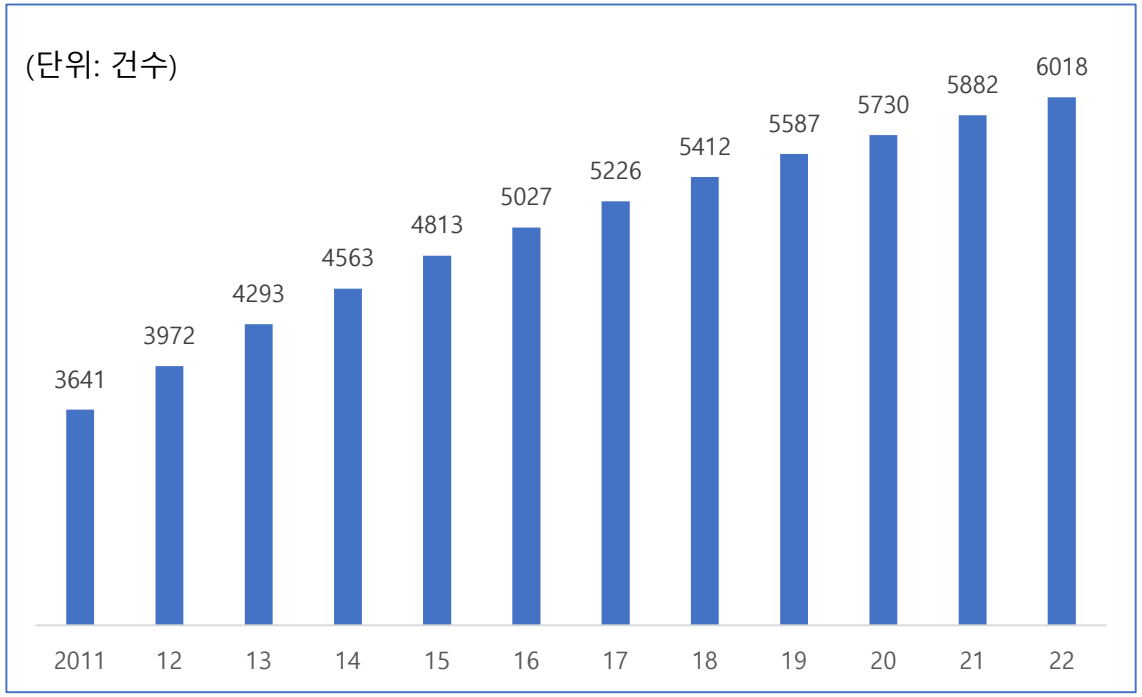


자료: 厚生労働省（2023）、「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를 이용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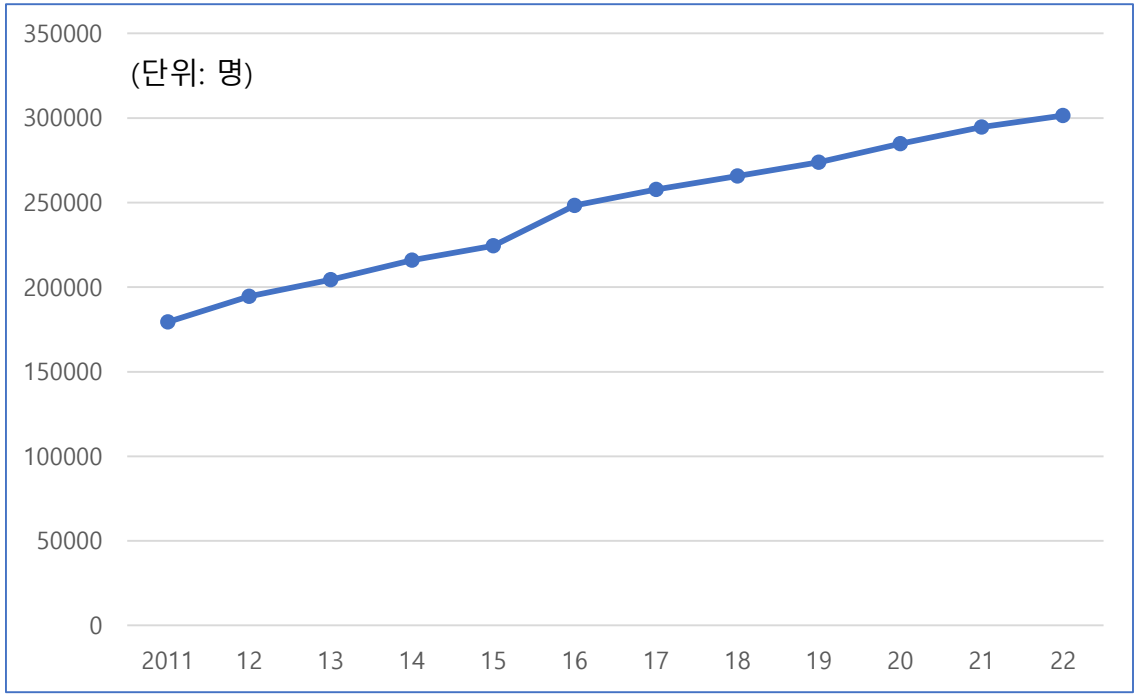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시설과 입주자는 꾸준히 증가

▣ 특정시설 지정한 주택 수와 입주자는 10년간 60% 증가

<특정시설로 지정한 주택수 추이>



<특정시설 입주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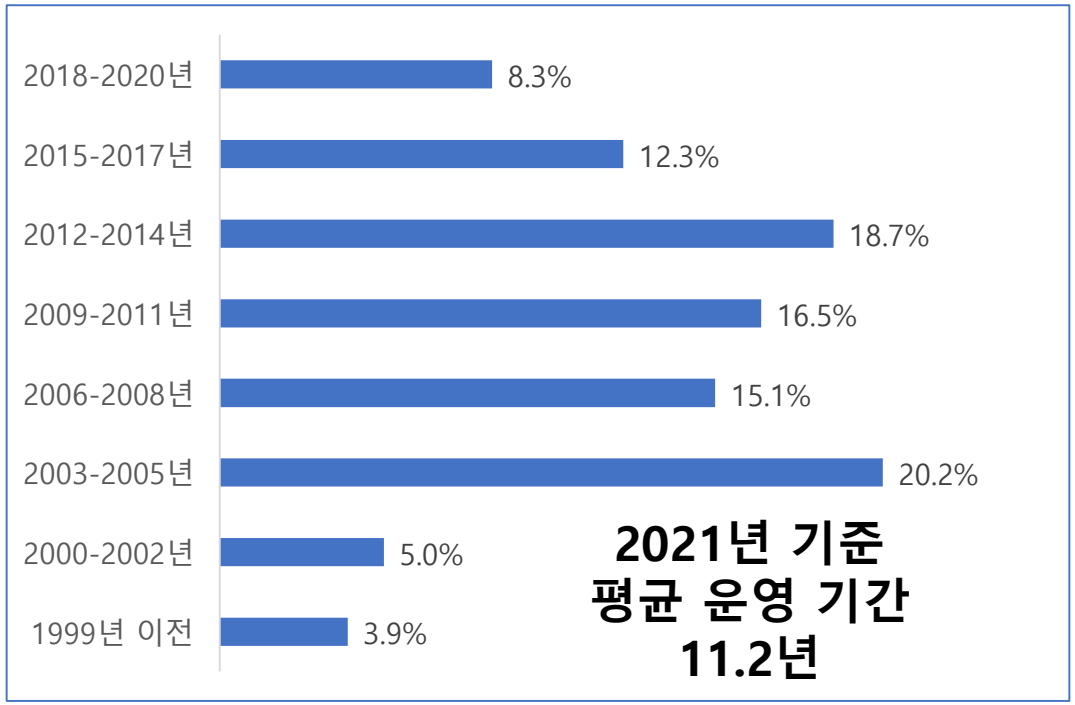


자료: 厚生労働省（2023）、「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地域密着型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를 이용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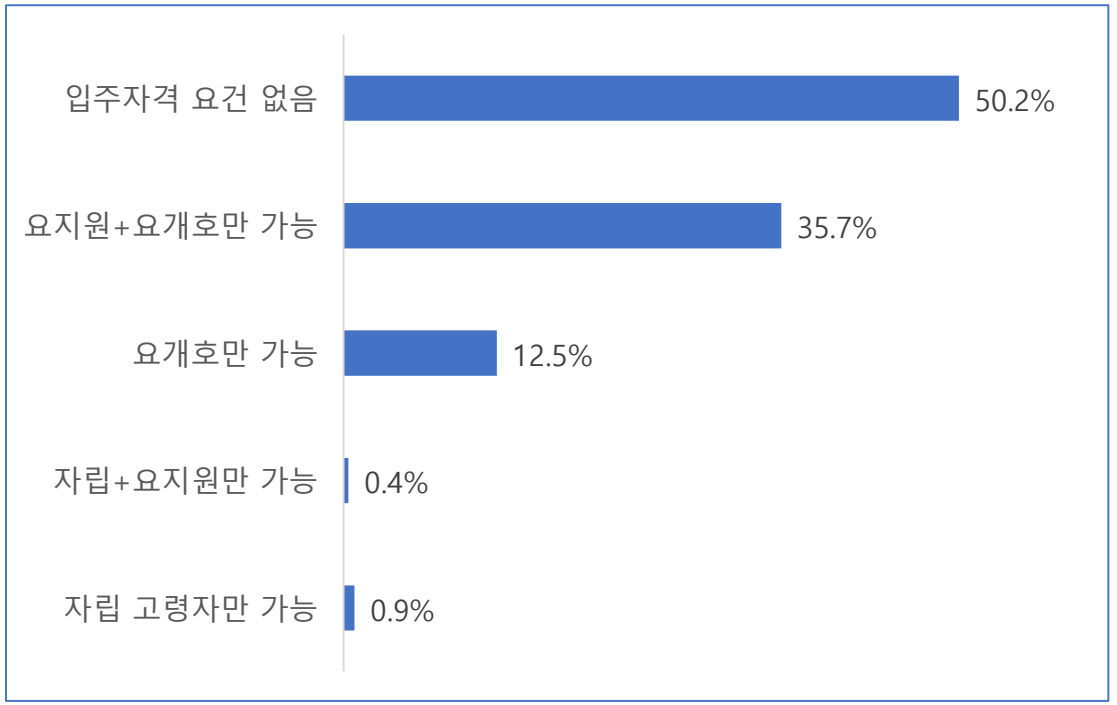
평균 운영연수는 11.2년, 절반은 입주자격 요건 없음

▣ 2003년 이후 개설한 시설이 많으며 절반 이상은 건강상 입주 요건 없음

<특정시설 신규 개설 시점 비중>



< 건강상 입주자격 요건의 비중 >



자료: PwCコンサルティング（2022）、『高齢者向け住まいにおける運営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実態調査研究』를 이용해 작성.

특정시설 현황 서베이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 도심과 지방을 포함한 조사결과이며 수치는 전국 평균치임

○ 특정시설 운용주체

- 주식회사 79.3%, 유한회사 6.1%, 사회복지법인 6.3%, 의료법인 6.3% 등

○ 특정시설 현황

- 평균 객실수: 56실(1, 2인실 포함), 입주한 평균 객실수: 50.8실, 평균 가동률: 91.2%
- 평균 정원: 59.2명, 입주자 평균: 52명, 입주율: 90%
- 평균 간병인력: 23명(개호복지사 비중 52.8%), 평균 간호인력: 4.6명(상근, 비상근 포함)
- 야간 근무 평균인원: 2.5명
- 영양사 1.6명, 시설내 조리: 직영 31.5%, 위탁 55.8%,

○ 입주자 현황

- 입주자 연령: 65세 이상 99.3%, 75세 이상 94.8%, 90세 이상 44.1%
- 평균 요개호도: 2.4, 요개호3 이상: 41.2%

주: 2020년 시점에 등록 완료된 시설 대상으로 2021년 9월~10월 조사, 시설 중 총 7,500시설을 추출해 설문지 배포 후 3,330시설로부터 유효 응답을 받음
자료: PwCコンサルティング（2022）、『高齢者向け住まいにおける運営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実態調査研究』를 이용해 작성.

특정시설 월평균 비용 서베이 결과 (2021년 기준)

▣ 특정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이용가격이 비싼 편

*가격에는 공적 개호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안됨

구 분	특정시설	주택형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총 비용(월액 환산)	257,435円	112,410円	142,215円
거주 비용(입주 일시금 반영한 월세)	135,984円	43,343円	61,344円
(참고) 1㎡당 거주 비용	7,521円	3,132円	2,887円
입주 시 비용(입주 일시금 월액 환산)	38,348円	1,343円	0円
(참고) 보증금 등 미리 받은 목돈	94,710円	45,367円	96,756円
a. 월세 상당액	84,790円	40,926円	58,901円
월 이용 요금 소계	122,457円	72,480円	86,403円
관리비, 서비스 이용비 (b+c)	68,578円	27,941円	38,747円
b. 공익비, 관리비 상당액	60,651円	23,918円	19,023円
c. 생활지원·개호서비스비, 기본 서비스비	4,920円	2,397円	19,011円
d. 식비	50,742円	40,920円	45,877円
e. 광열비	4,505円	4,310円	1,566円

*특정시설로 지정 받지 않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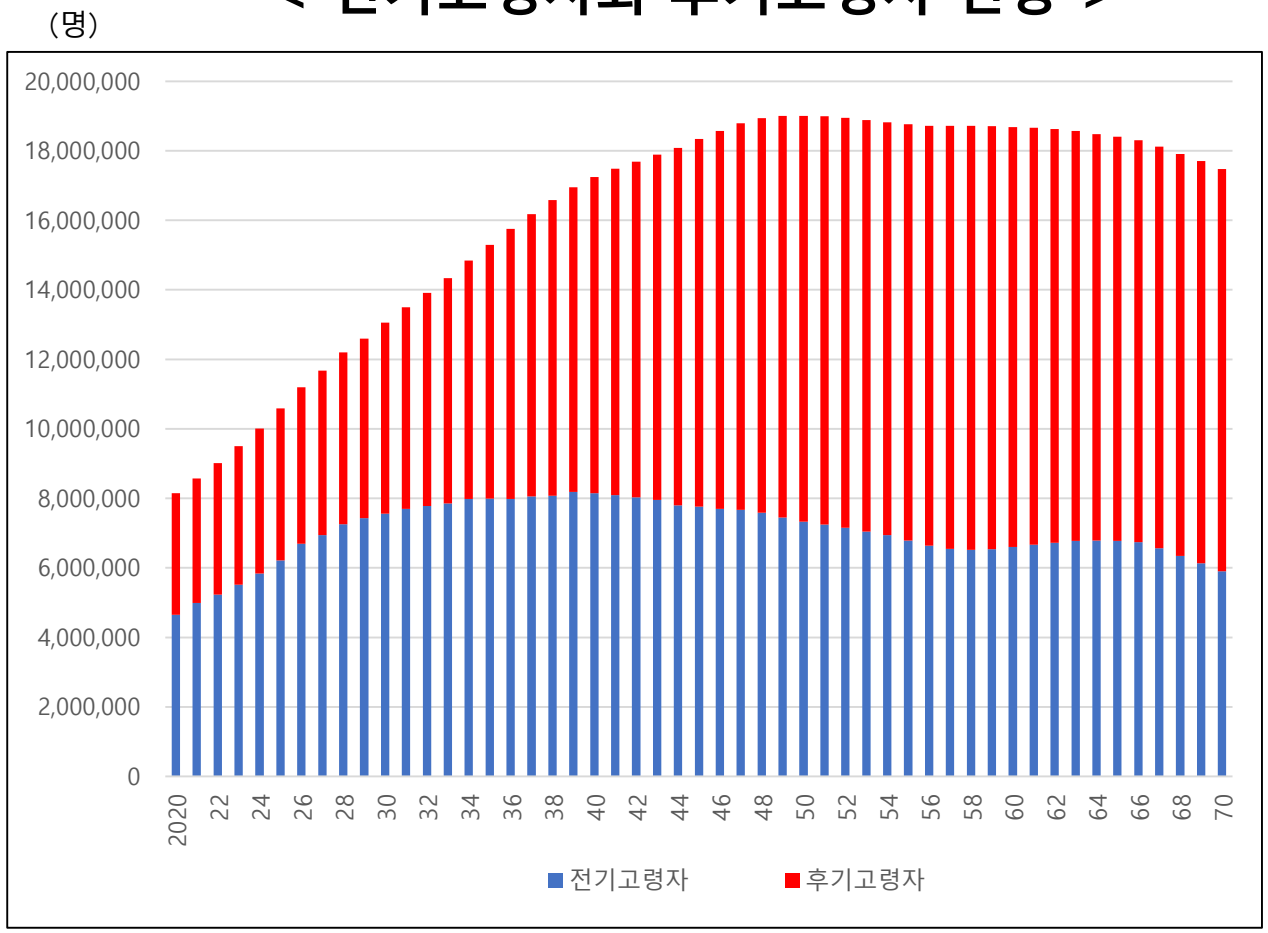
자료: PwCコンサルティング（2022）、『高齢者向け住まいにおける運営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実態調査研究』를 이용해 작성.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향후 후기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 2030년경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 전망 >



자료 : 한국 통계청 (2021.12) 、『将来人口推計 : 2020～2070年』을 이용해 작성.

<인구 전망 이슈>

2023년 949만명
-전기고령자 551만명
-후기고령자 39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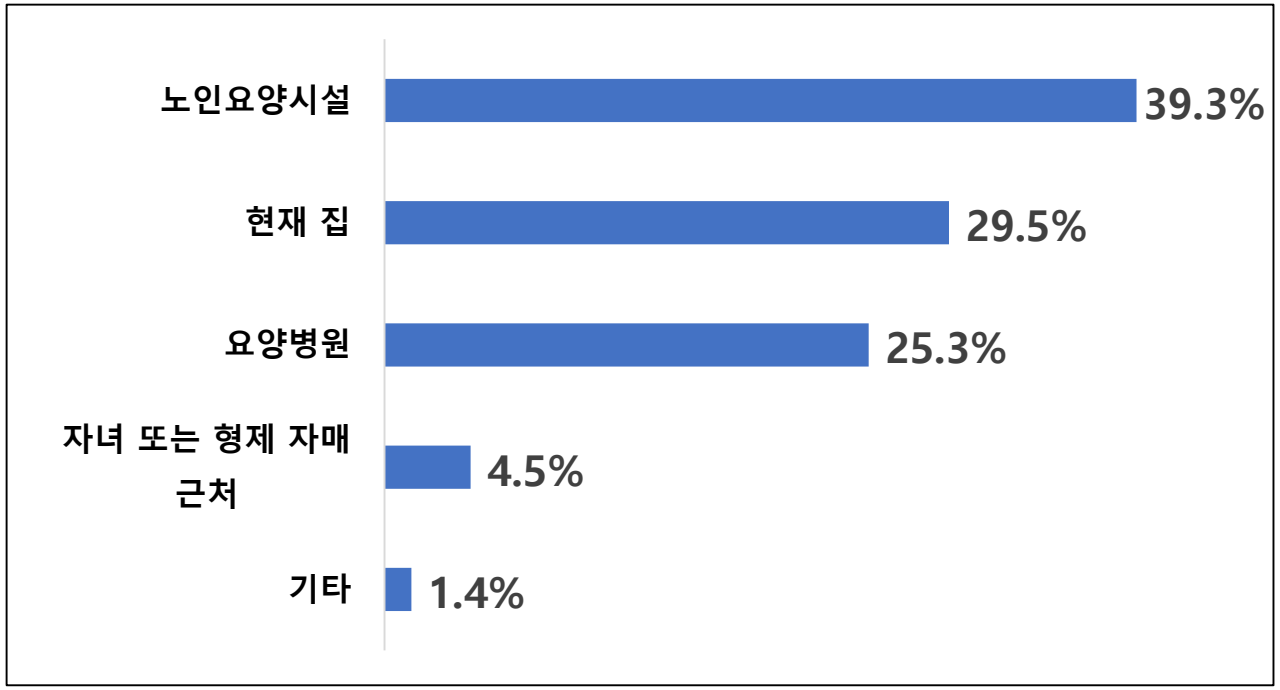
2037년 후기고령자가 추월
-전기고령자<후기고령자
806만명 811만명

2044년
-후기고령자 1000만명 시대
-이후 1200만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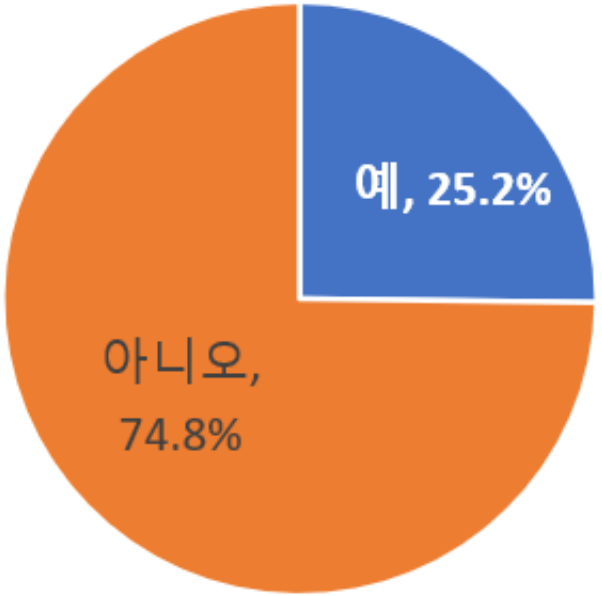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디서 생활할까?

▣ 자녀 집에서 직접 모실 의향은 매우 낮아 돌봄 장소 확보가 필요

<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
수급자 건강 악화시 선호 돌봄 장소



< 시설급여 수급자의 가족 >
수급자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의향



자료: 보건복지부(2023.8),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이용해 작성.

주거와 서비스의 다양한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

▣ 요양원이 아닌 중산층 대상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이 필요

<고령자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종류>

고령친화주거공간+안부 확인

↓

주거공간+안부 확인+식사 제공

↓

주거공간+안부 확인+식사 제공+24H 간병서비스 제공

↓

주거공간+안부 확인+식사 제공+24H 간병서비스 제공+임종 서비스 제공

중산층을 위한 '한국형 고령자 돌봄 주택' 필요

▣ 일본 사례를 참고 삼아 '한국형 고령자 돌봄 주택'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

<일본의 고령자 돌봄 주택은 좋은 사례>

개호형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 방식

'한국형 고령자 돌봄 주택' 도입

고령진화 주거공간과 간병서비스 등 제공 주택
*공사 협력: 공적부문만으로는 비용문제에 한계가 있어
민간 참여를 통한 공급 확대 필요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돌봄에 보험업계도 기여할 필요

(1) '한국형 고령자 돌봄 주택'이라는 새로운 법적 인프라 구축
- 보험업계의 연구조사 능력, 규제산업에 대한 노하우 활용

(2) 신규 돌봄 주택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
- 보험업계의 자본력 활용, 자산운용 관점에서 접근도 필요
- 제도 개선을 통한 리츠 활용 검토

(3) 요양보호사 인재육성 및 연수를 통한 스킬업
- 간병비즈니스는 보험업계와 유사해 인재가 핵심 경쟁력
- 보험업계의 축적된 인재육성 노하우 활용(연수시설 이미 확보)

(4) 주택 홍보 및 입주자 모집
-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활용한 홍보
-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시 안내

(5) 보험비즈니스와 시너지 효과
- 간병보험상품 판매와 링크, 시설 운영 리스크 보험상품 등

감사합니다

일반재단법인

일본노인복지재단의 유료노인홈 운영 사례

- 재단 개요
- 재단 특징
- 재단 역사(유료 노인홈 역사)
- 재단 현황과 과제
- 향후 재단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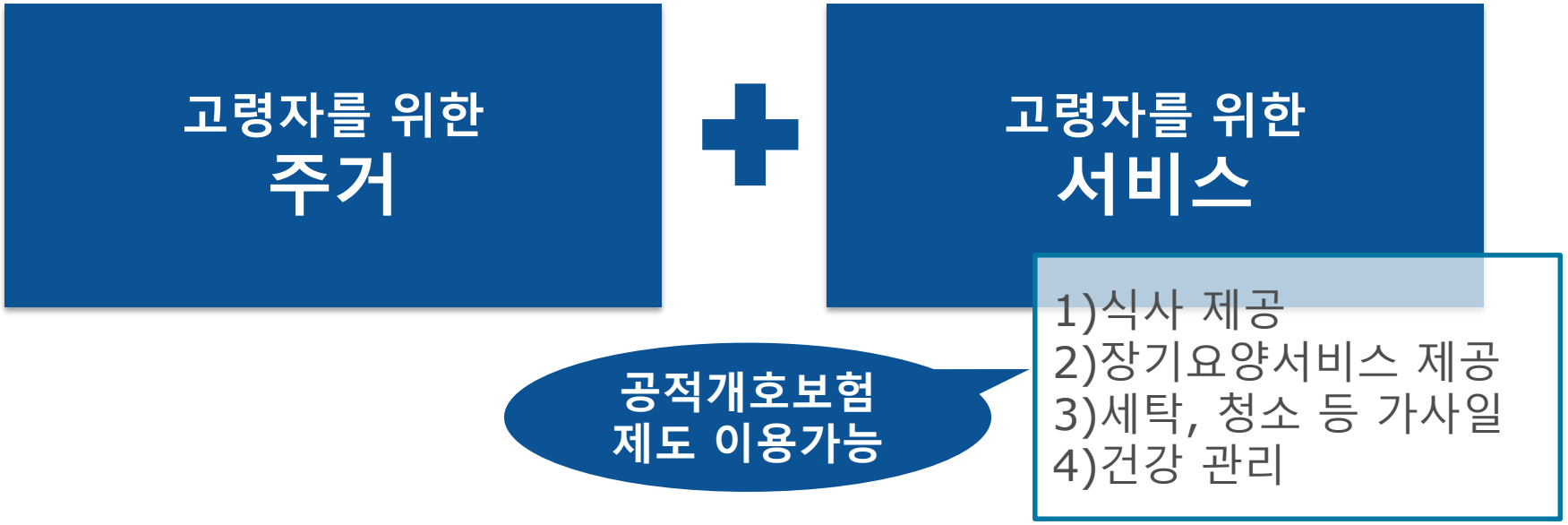
2023.09.01 한국보험연구원 세미나 자료
(재) 일본노인복지재단 이사 오노 노부오

〈ゆうゆうの里〉

재단 개요

재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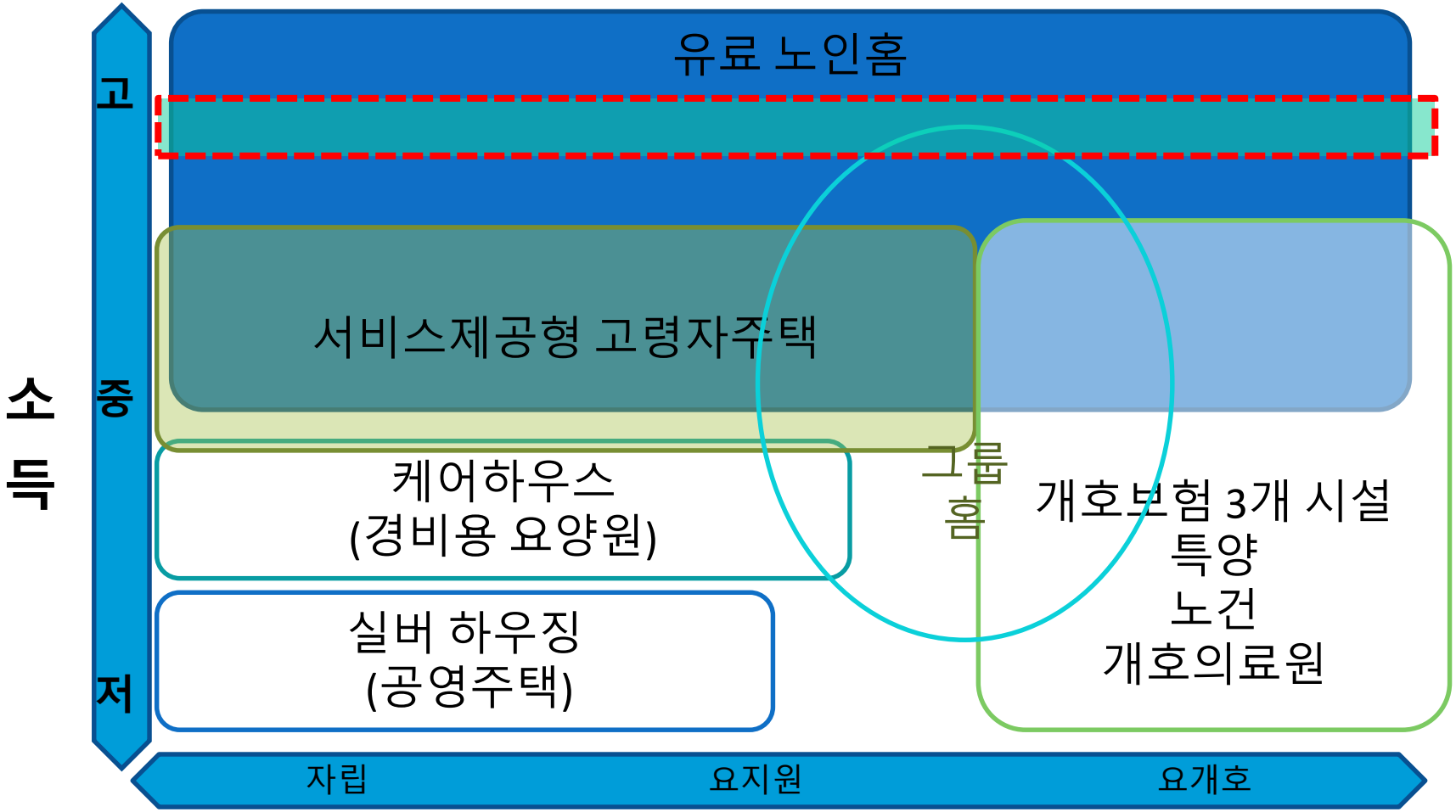
- 일본노인복지재단 사업
  - '개호형 유료노인홈' 운영



'노인을 입소시켜 목욕, 배설 또는 식사 지원이나 식사 제공 또는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 치매대응형 노인공동생활지원사업을 행하는 주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닌 것' (노인복지법 제29조 1항)

재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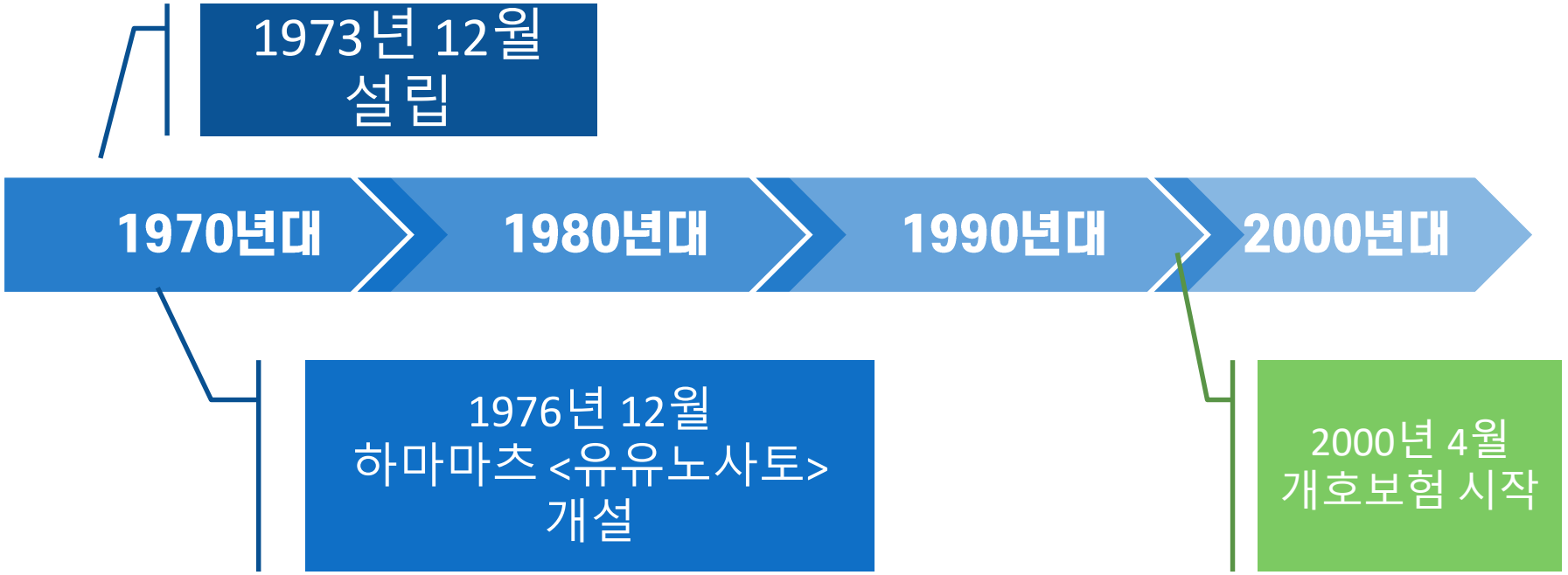
<고령자 주택·시설의 대략적인 이미지>



주: 국토교통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재단 개요

- 일본노인복지재단 설립
  -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운영한 유료노인홈의 선구적인 사업자 중 하나



재단 개요

- 일본노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 유유노사토 브랜드로 현재 전국 7개 시설 운영 중

재단 개요

- 일본노인복지재단 사업규모(2023.3 기준)

총 객실 수(실)	총 입주자 수(명)
2,213	2,566

자산(억엔)	직원 수(명)(2022년도 평균)
515.8	910.4

- 재단 재정 현황

재단 대차대조표 (2023.3.31)

(단위: 백만엔)

자산		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현금예금	18,790	미수금등	1,050
미수금 등	716	차입금	516
고정자산		상여충당금	255
기본재산	629	고정자산	
건물	32,636	차입금	5,433
건물부속설비	17,574	충당금	202
건축물	2,796	입주전수금	33,464
차량운반구	9	예금 등	2,070
계측비품	1,839		
감가상각누계액	- 36,191	**자본**	
토지	10,234	기본재산	626
정기예금	2,175	순(正味)재산	7,956
기타	368		
자산 총계	51,575	**부채와 자본 총계**	51,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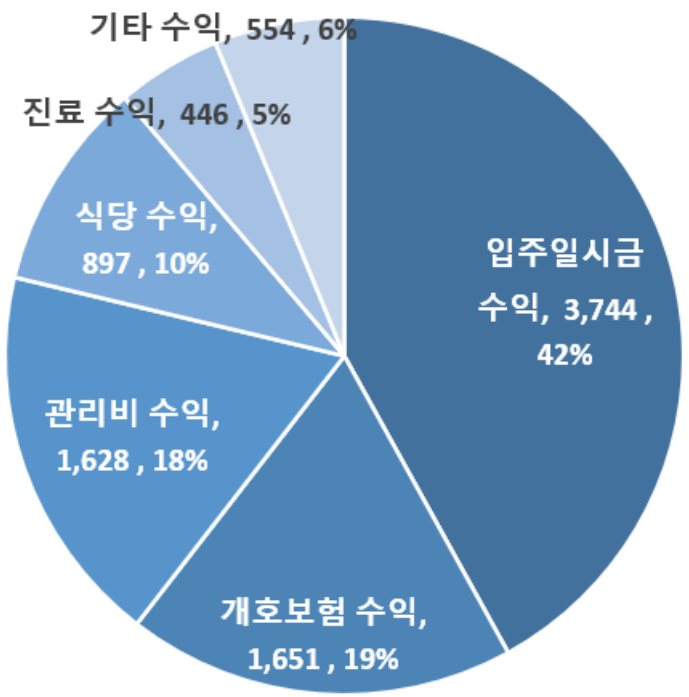
재단 개요

- **재단 재정 현황** (2022년도)

<수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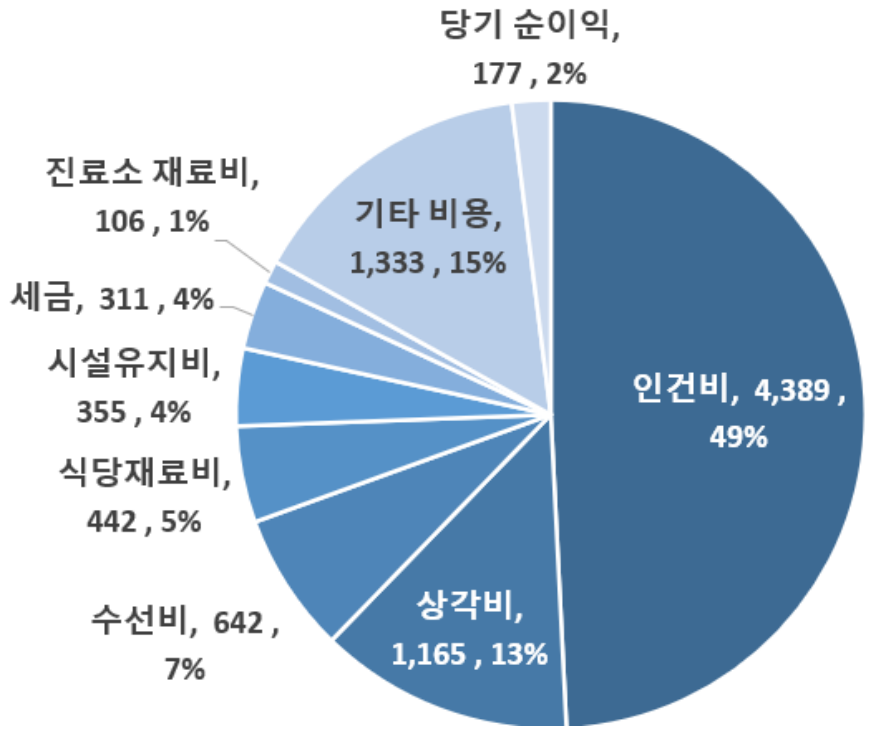
총 89억 2,000만 엔

(단위: 백만엔)



<지출 내역>

총비용 87억 4,300만엔
당기 이익 1억 7,700만엔
총 89억 2,000만 엔



재단 특징

재단 특징

- 일본노인복지재단 시설의 3가지 특징

(1) 대규모시설

(2) 입주시 자립 상태에서 마지막 임종까지

(3)고령자 커뮤니티 운영 및 지원

재단 특징

(1) 대규모 시설

총 객실 수	1 시설당 평균 객실 수
2,183	311.9

재단 특징

(1) 대규모 시설

<총 객실 수 데이터>

순위	법인명	객실수	순위	법인명	객실수
1	ベネッセスタイルケア	15,726	11	スーパー・コート	2,991
2	ベストライフ	10,120	12	チャーム・ケア・コーポレーション	2,256
3	SONPOケアメッセージ	9,196	13	シダー	2,220
4	SONPOケアネクスト	8,738	14	オリックス・リビング	2,198
5	ニチイグループ	8,095	15	일본노인복지재단	2,183
6	川島コーポレーション	7,470	16	長谷工シニアホールディングス	2,076
7	長谷川介護サービス	5,316	17	ツクイ	2,025
8	木下の介護	4,492	18	聖隷福祉事業団	2,019
9	さわやか倶楽部	3,799	19	らいふ	1,950
10	グリーンライフ	3,779	20	ユニマット・リタイアメント・コミュニティ	1,834

“월간 시니어 비즈니스 마켓” (2016년 11월호) 자료에서 발췌

재단 특징

(1) 대규모 시설

<1개 시설당 평균 객실 수 데이터>

순위	법인명	평균 객실수
1	일본노인복지재단	311.9
2	聖隷福祉事業団	224.3
3	オリックス・リビング	87.9
4	川島コーポレーション	84.9
5	ツクイ	77.9
6	SONPOケアネクスト	75.3
7	長谷工シニアホールディングス	71.6
8	スーパー・コート	71.2
9	チャーム・ケア・コーポレーション	70.5
10	さわやか倶楽部	69.1

순위	법인명	평균 객실수
11	グリーンライフ	65.2
12	ベストライフ	63.3
13	長谷川介護サービス	61.1
14	木下の介護	60.7
15	ニチイグループ	60.4
16	シダー	56.9
17	ベネッセスタイルケア	53.9
18	SONPOケアメッセージ	53.5
19	らいふ	50.0
20	ユニマット・リタイアメント・コミュニティ	44.7

“월간 시니어 비즈니스 마켓” (2016년 11월호) 자료에서 발췌

(2) 입주 시 자립상태에서 마지막 임종서비스까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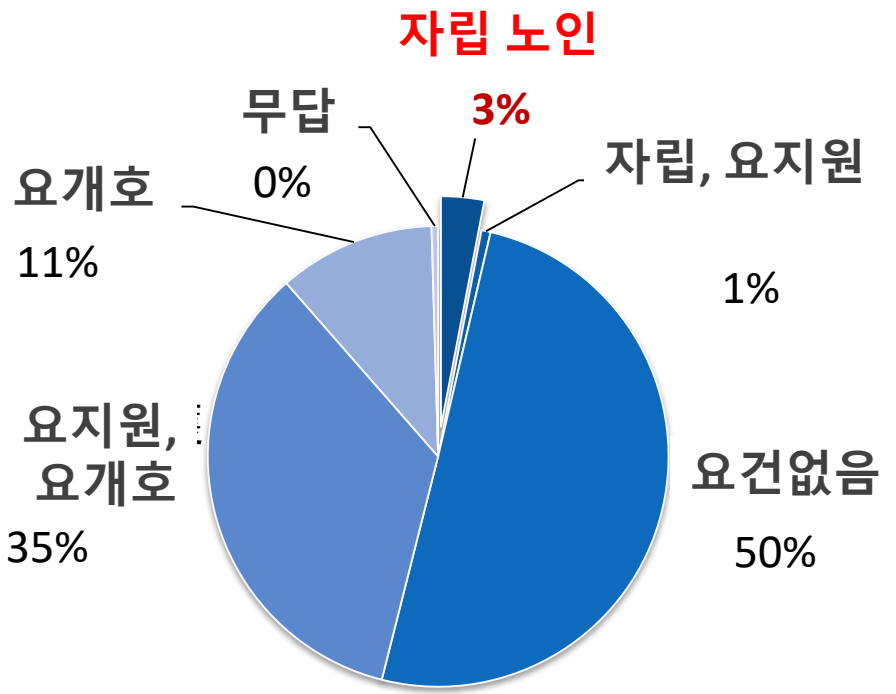
– 입주 시점에는 건강한 사람만 입주할 수 있는 유료노인홈

<입주 시 요건 종류>

✓ 입주 시 자립	입주 시 자립할 수 있는 분이 대상
입주 시 요개호	입주 시점에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 (요개호 인정 제외) 대상
입주 시 요지원, 요개호	입주 시점에 요지원 인정 또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이 대상
입주 시 자립-요지원-요개호	자립할 수 있는 분, 요지원 인정・요개호인정을 받으신 분 모두 입주 가능

재단 특징

<입주 시 요건별 유료노인홈 비율>



*유료노인홈협회 조사보고서 인용

입주 시 자립형 유료노인홈은 3% 정도로 매우 적음

재단 특징

(2) 입주 시 자립상태에서 마지막 임종서비스까지 제공

– 장기요양과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자립기	요지원 시기	요개호 시기	종말기
건강한 시기	일부 활동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기	임종 시기
일시적으로 몸이 좋지 않을 때 가사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자립 활동을 지원하며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	개인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플랜에 근거해 간호 제공	본인의 존엄성과 의사를 존중한 임종서비스 제공

<충실한 케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직원 배치 2:1 이상, 유자격자 비율(케어매니저 비율 12%, 개호복지사 57%)

<의료-간병 연계 시스템>
시설 내 자체 진료소 설치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제도>
활발한 연구활동, 충실한 교육연수제도

자립기부터 임종기까지 충실한 의료 케어를 제공하면서 안심과 안전을 제공하는 체제를 정비

재단 특징

(3) 고령자 커뮤니티 운영 및 지원

대규모 시설

충실한 공용시설
다양한 장소 제공

입주 시 자립 + 의료와 장기요양

자립자를 위한 서비스
충실한 의료, 장기요양 체제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입주자가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만들기

충실한 의료, 장기요양 체제를 통한 안심· 안전한 환경을 기반으로
입주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고령자 커뮤니티 존재

재단 특징

- 교토 시설 소개 동영상 https://youtu.be/sNWgZmWhw5s

재단 특징

• 교토 시설 사례 – 입주 일시금 (입주 시 일괄 지불하는 비용)

객실 타입		B	C	D	E	F
전용면적(m^2)		43.02	55.87	54.72	60.06	71.4
평면도		1DK	2DK	1LDK	2LDK	2LDK
세대수(세대)		94	38	49	88	66
1인 기준 입주 일시금(만엔)		3,088~ 3,425	3,893~ 4,300	3,713 ~ 4,187	3,977~ 4,505	4,983 ~ 5,295
내역	입주 일시금	2,164 ~ 2,501	2,969~ 3,376	2,789~ 3,263	3,053 ~ 3,581	4,059~ 4,371
	장기요양 등 일시금	715				
	건강관리 일시금	209				
2인 기준 입주 일시금(만엔)		4,466 ~ 4,803	5,271 ~ 5,678	5,091 ~ 5,565	5,355 ~ 5,883	6,361 ~ 6,673
내역	입주 일시금	2,618 ~ 2,955	3,423 ~ 3,830	3,243 ~ 3,717	3,507~ 4,035	4,513 ~ 4,825
	장기요양 등 일시금	1,430 (715×2명분)				
	건강관리 일시금	418 (209×2명분)				
공실 상황		×	×	×	×	×

주: 입주 일시금은 비과세, 간병 등 일시금과 건강관리 일시금은 소비세 포함

• 교토 시설 사례

– 매월 필요한 비용 (관리비, 식비, 객실에서 사용하는 광열비 등)

- 관리비

1인 기준	68,080엔/월
2인 기준	108,950엔/월

관리비는 공용시설 등 유지, 관리비, 사무, 관리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비, 각종 상담, 여가활동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 식비

아침 식사	496엔/식
점심 식사	803엔/식
저녁 식사	990엔/식
합 계	2,289엔/일

- 광열비 등 객실 내 광열비, 전화, 온수 사용 등은 별도 실비 부담 (개별 계량기 측정)

- 교토 시설 사례

<대략적인 매달 생활비 수준>

구　　분	1인 기준	2인 기준
관 리 비	68,080円	108,950円
식비 (3식×30일 식당이용)	68,670円	137,340円
수 도 세	2,000円	2,000円
온수요금	2,000円	2,000円
전화요금	1,000円	1,000円
합　　계	141,750円	251,290円

재단 역사

- **재단 설립의 시대적 배경**

  - **1970년대 = 고도경제성장 시대**
    - 의료 위생 환경 개선을 통한 기대수명 증가
    -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 전환의 진전

  - **기술 혁신, 진화의 시대**
    - 전통과 선조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 가정 내 노인의 역할, 지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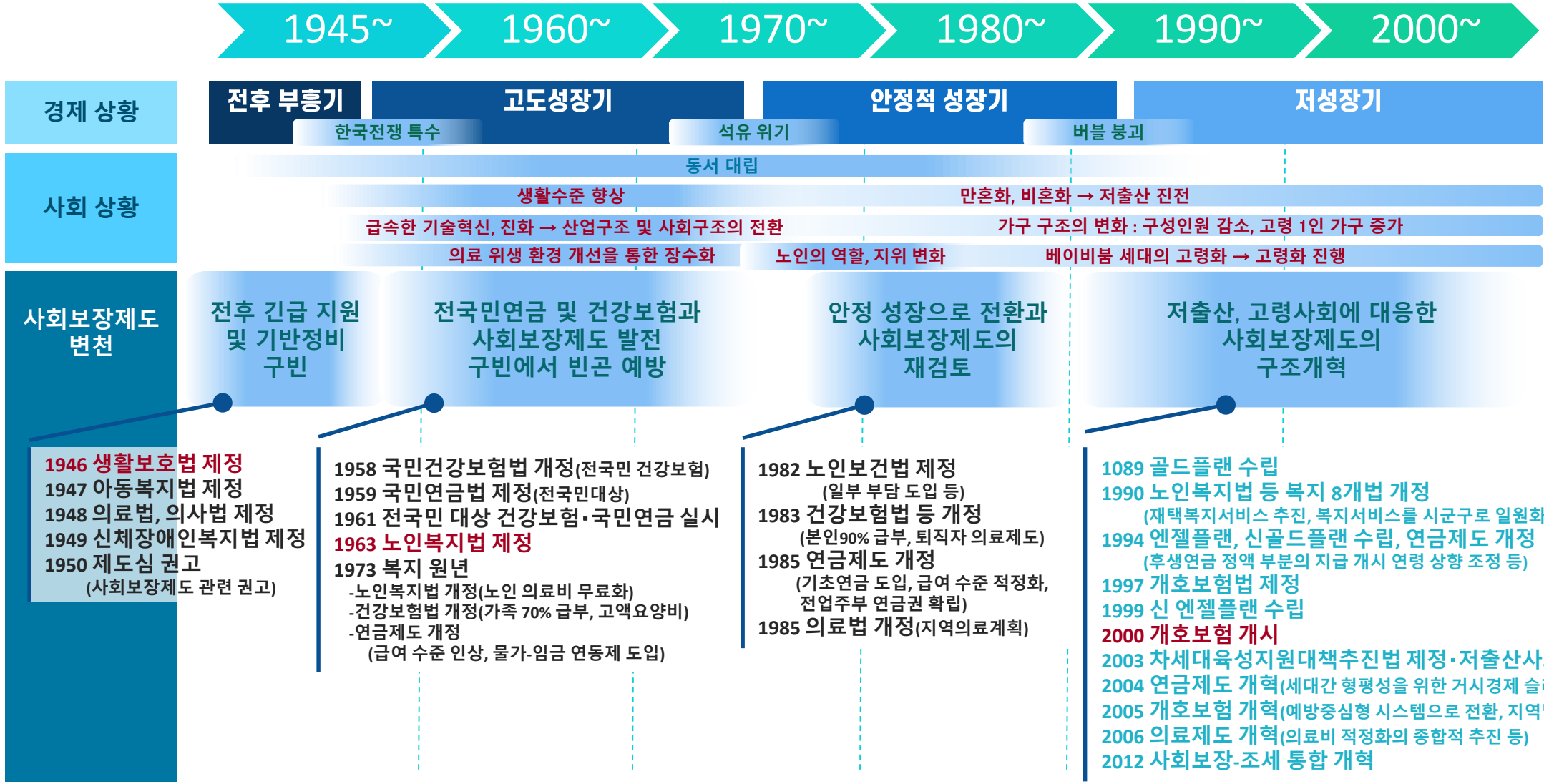
- 지금부터 44년 전 시작한 ‘뉴 라이프 스타일’ 제안

– 고령자 커뮤니티 만들기

- 1945년 전쟁 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실현시킨 고령자에게 알맞은 안심, 안전한 생활 실현(일본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생활)
- 많은 고령자가 참여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직원은 뒤에서 이를 차분히 지원해주는 서포터가 되어 다같이 생활하는 고령자 커뮤니티를 추구
- 초기 계획은 전국에 100개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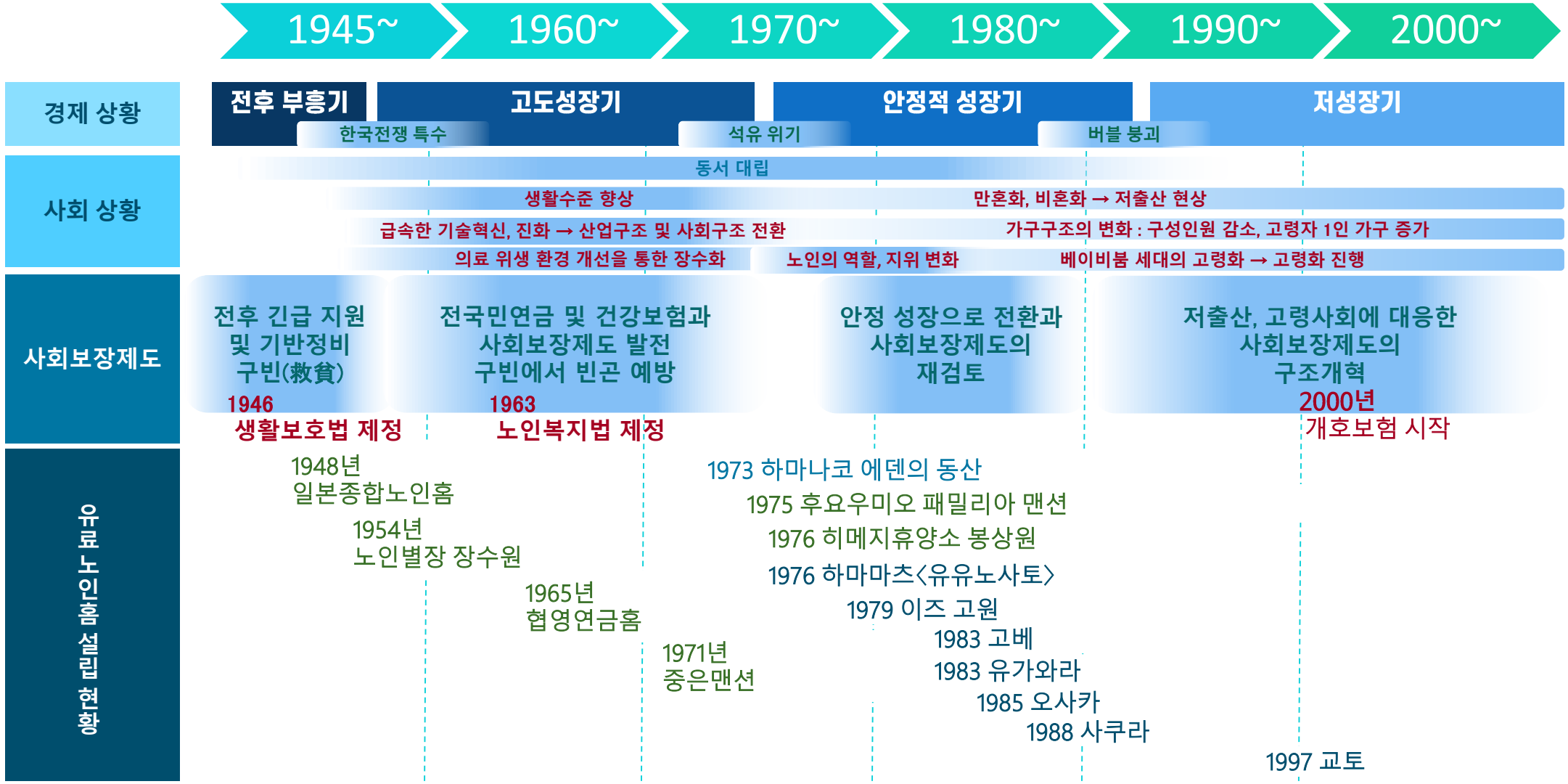
유료노인홈 역사

▣1945년 전후 사회경제 상황과 사회보장제도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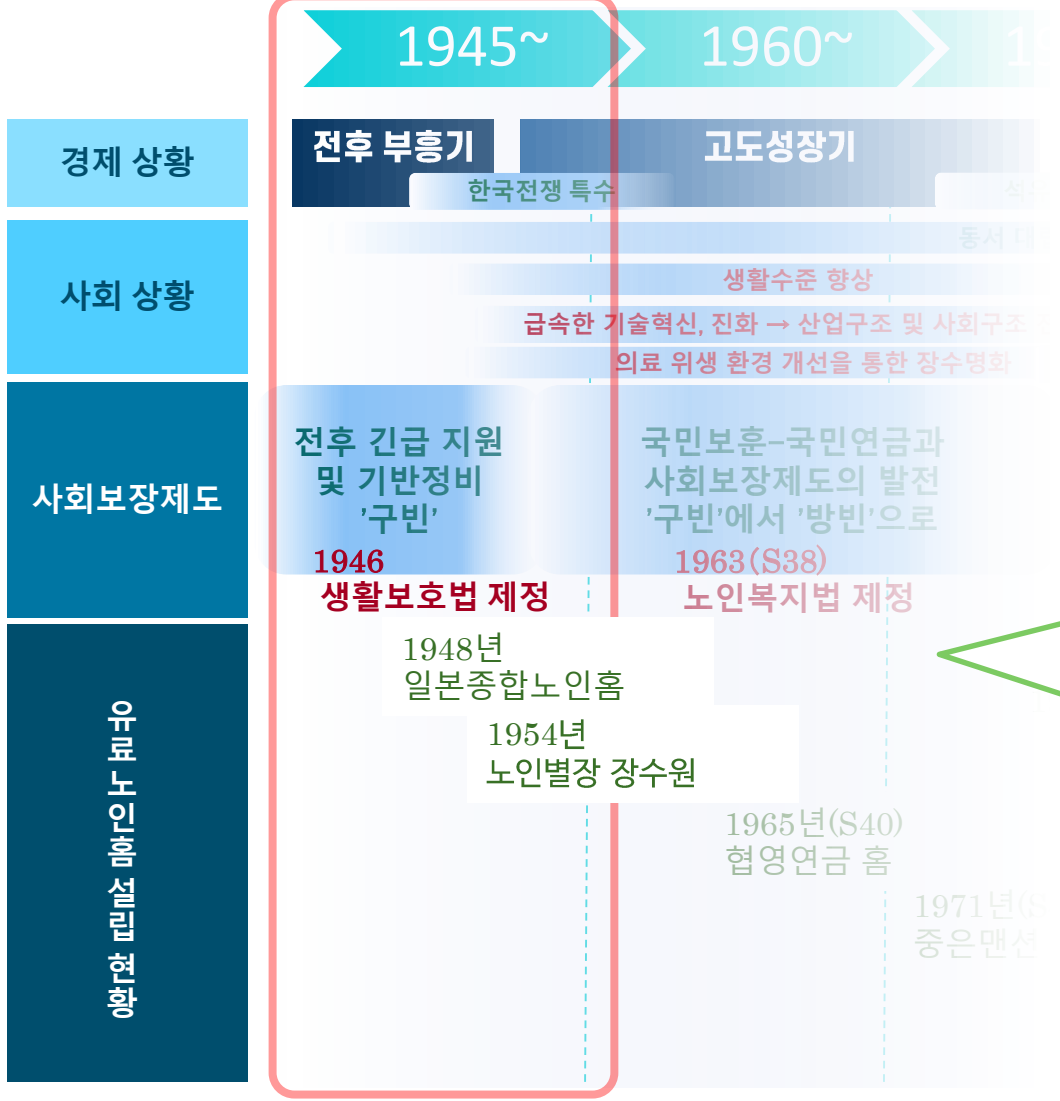
유료노인홈 역사

▣전후 사회경제 상황, 유료노인홈 설립 역사와 재단의 발자취



유료노인홈 역사

▣전후 사회경제 상황, 유료노인홈 설립 역사와 재단의 발자취



1945년~1950년대

- 전쟁 후 부흥기
- 사회보장은 전후 긴급지원과 기반정비
- '구빈' 정책이 중심
- 노인정책은 생활보호법 아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구제하는 것에 불과

<유료노인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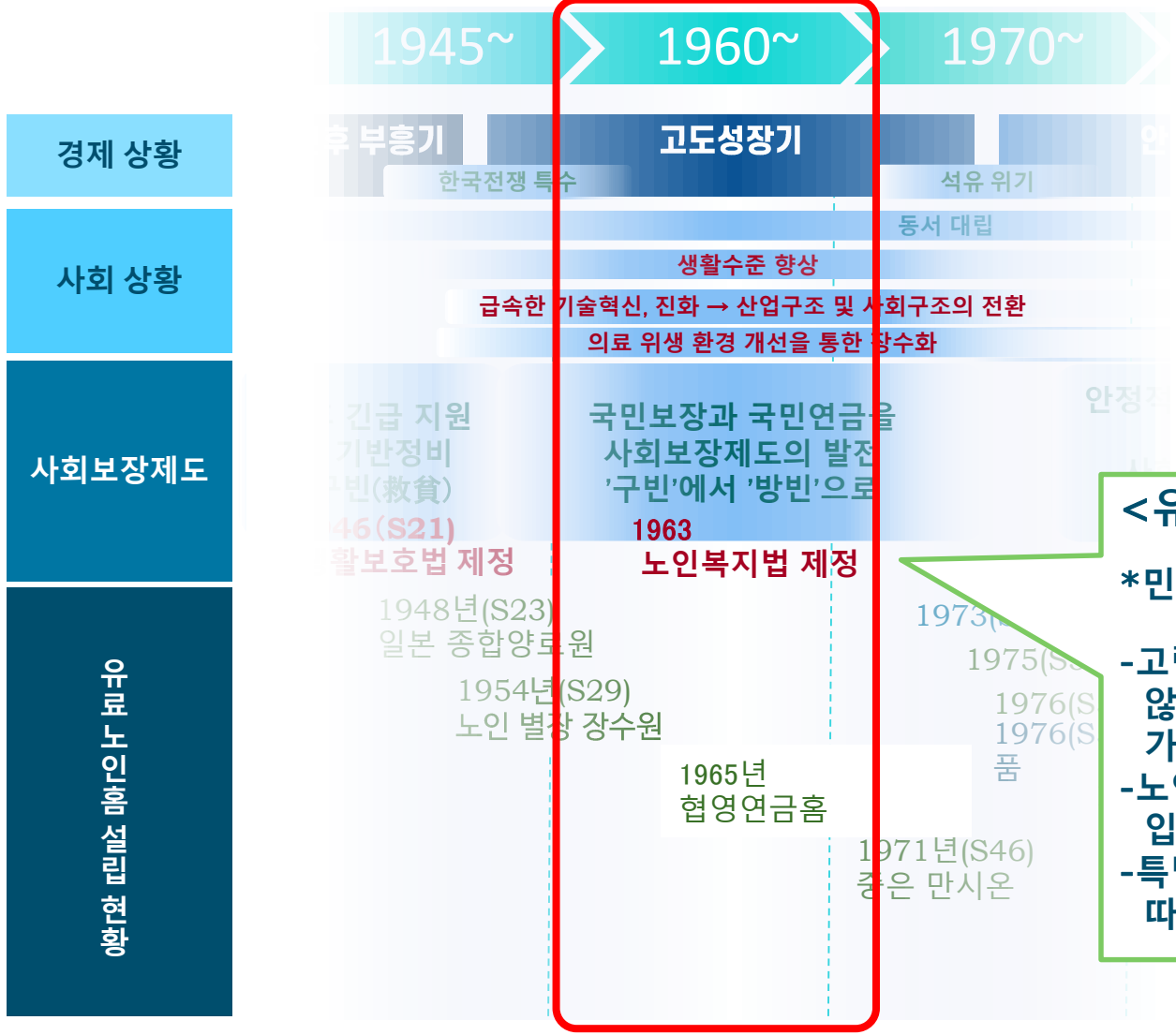
***1948년 일본 최초의 '일본종합노인홈' 개원**

***간이생명보험(우정성)과 후생연금사업진흥단(후생성)에 의한 '간이생명가입자 노인홈'과 '후생연금노인홈' 개설 추진**

- 정원은 50명 내외로 소규모
- 거실은 4.5~6畳, 거실도 좁고 화장실, 목욕탕 공용
- 매일 식사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 비용은 입주 시 보증금, 월세, 식사비, 관리비 등
- 간병이 필요해지면 퇴실

유료노인홈 역사

▣전후 사회경제 상황, 유료노인홈 설립 역사와 재단의 발자취



1960년대

- 고도경제성장 시기
- 생활수준 향상, 생활이 풍요로워짐
-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연금제도 실현
- 사회보장은 구빈->빈곤예방 전환
- 노인복지법 제정(특별양로노인홈 및 경비노인홈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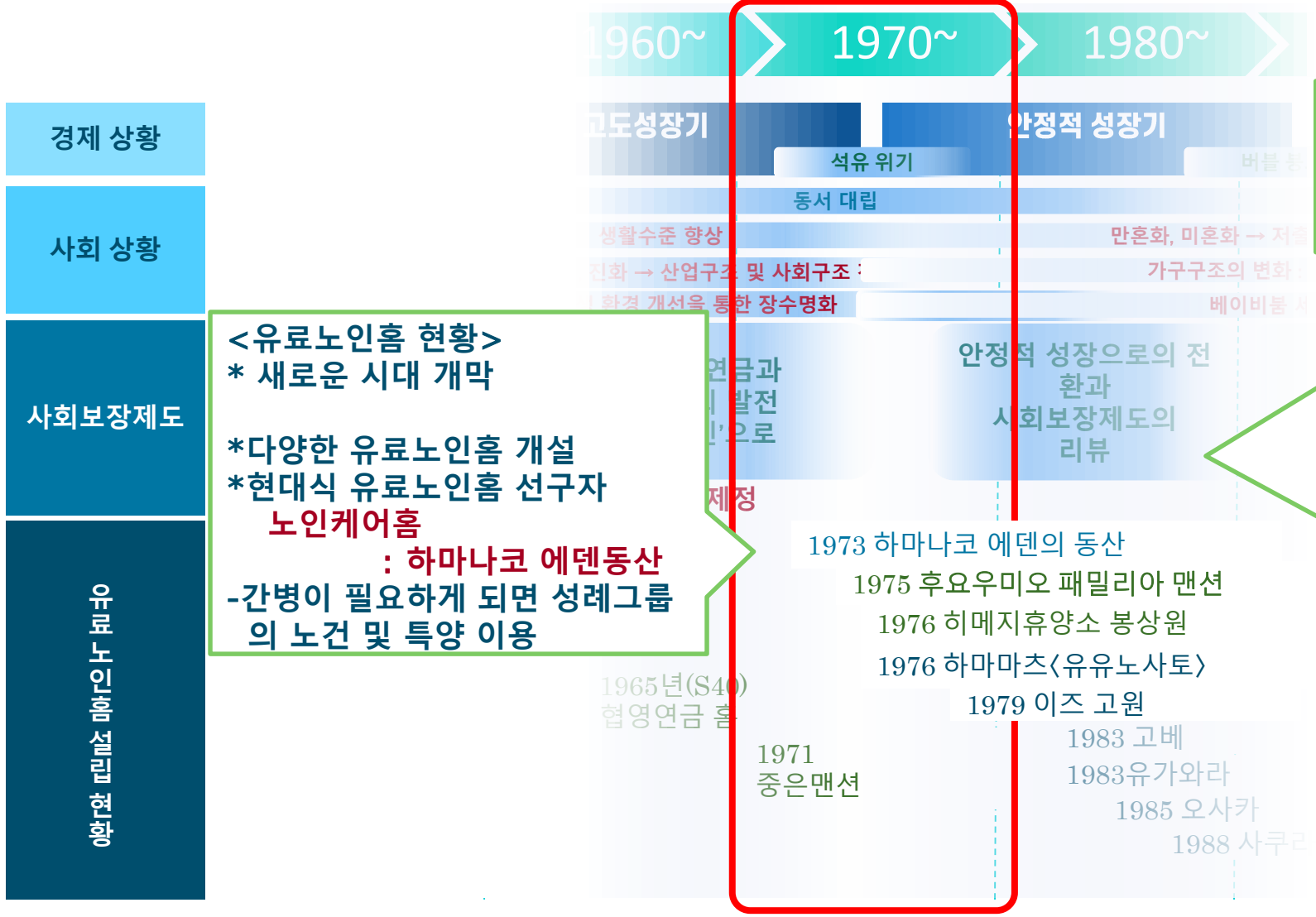
<유료노인홈 현황>

***민간기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협영연금홈'(협영생명) 개설**

-고령자 중에는 자신의 간병 문제로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지만 이 시기는 자립형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유료노인홈은 많지 않았음
-노인복지시설 입소는 조치사업으로 원칙상 경제적 이유가 아니면 입소 불가능
-특별양로노인홈은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내면 입소 가능

유료노인홈 역사

▣전후 사회경제 상황, 유료노인홈 설립 역사와 재단의 발자취



<유료노인홈 현황>
* 새로운 시대 개막

*다양한 유료노인홈 개설
*현대식 유료노인홈 선구자
노인케어홈
: 하마나코 에덴동산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성례그룹의 노건 및 특양 이용

1970년대

-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 생활수준 향상
- 더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

<유료노인홈 현황> 새로운 시대 개막

*기존 유료노인홈 상식(이미지, 구조 등)을 크게 바꾸는 노인홈 신설
하마마츠 <유유노사토>

- 입주 시 자립(본인 선택)
- 자립형 넓은 거실(6타입), 주방, 욕실, 화장실이 각 세대에 설치(프라이버시 확보)
- 다양한 공용시설(식당, 대욕실, 체육실, 오락실, 회의실 등) 설치(취미, 취향, 오락 제공)
- 기존의 월세 내는 임대료 방식에서 상호부조에 기반한 종신 이용, 종신 간병형 일시금 납부방식을 설계(금전적인 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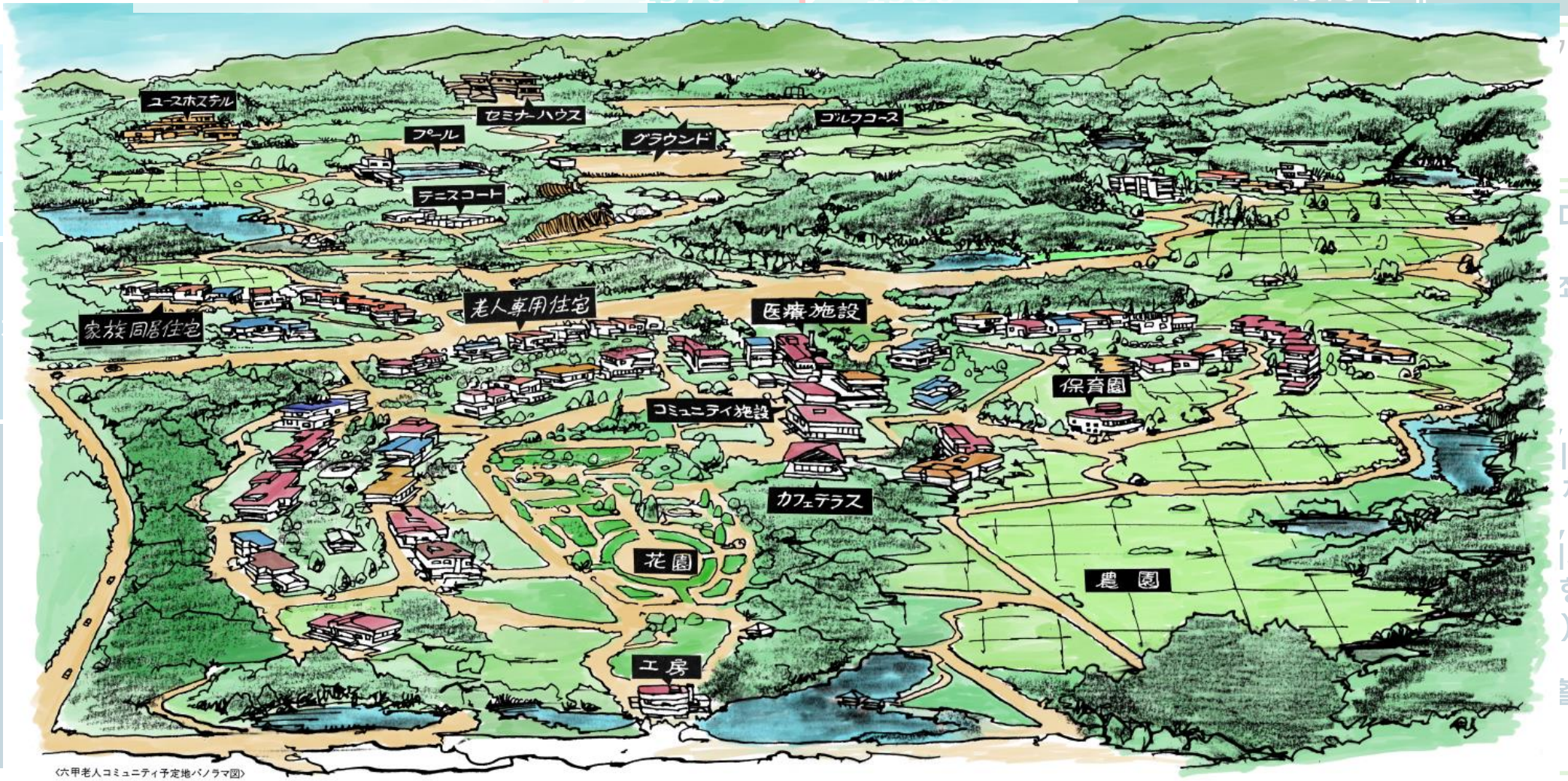
↓

"퇴직금으로 입주하고 연금으로 생활 가능"
차세대형 새로운 유료노인홈 탄생

유료노인홈 역사

▣전후 사회경제 상황, 유료노인홈 설립 역사와 재단의 발자취

재단 설립 당시 구상도



〈六甲老人コミュニティ予定地パノラマ図〉

1970~ 1980~ 1970년대

경제 상

사회 상

사회보장

유료노인홈 설립 현황

기로

대 개막

조 등)을

, 욕실, 화장
l 확보)
체육실, 오락
, 오락 제공)
l서 상호부조
형 일시금
)

활 가능"

유료노인홈 역사

▣전후 사회경제 상황, 유료노인홈 설립 역사와 재단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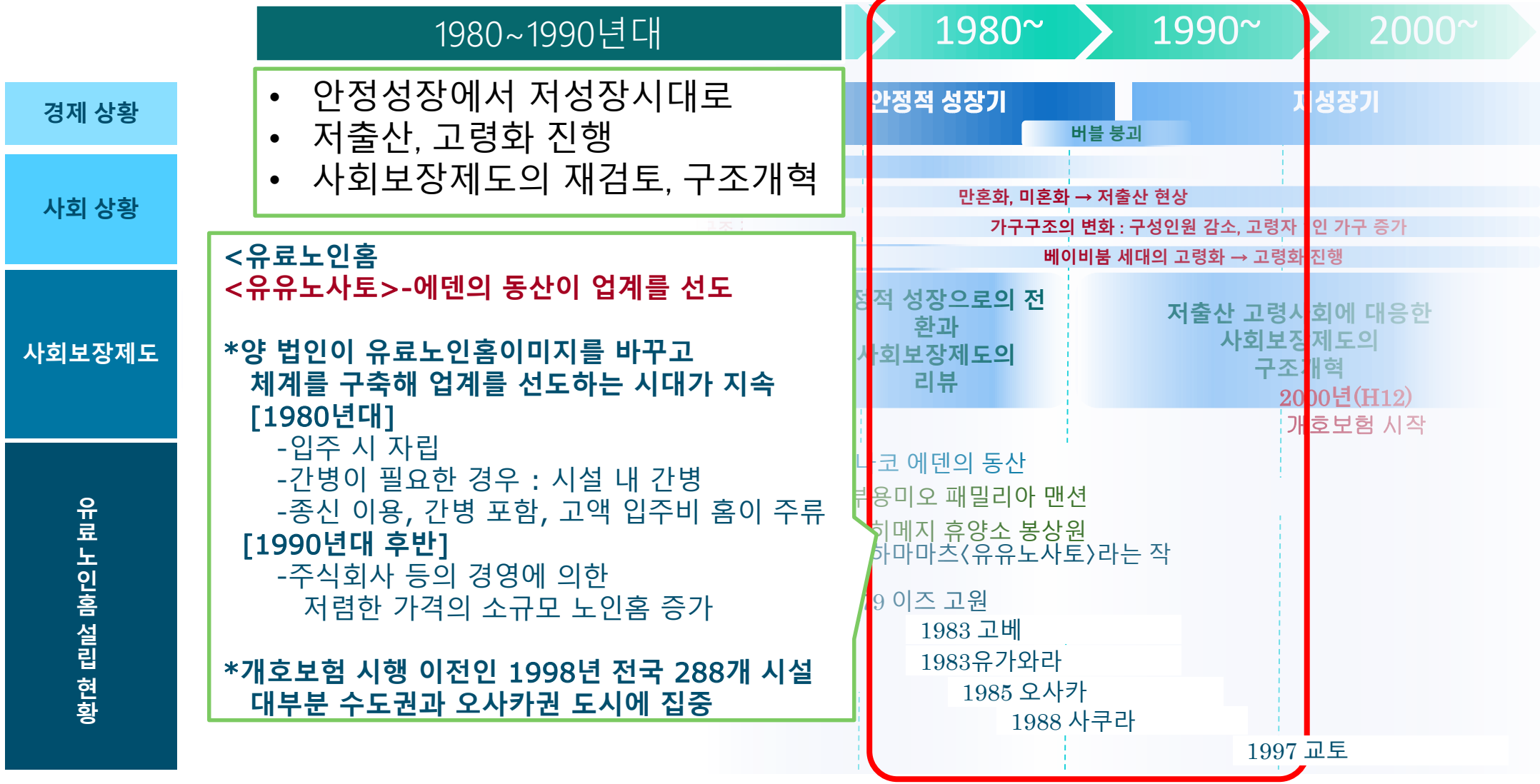
1980~1990년대

- 안정성장에서 저성장시대로
- 저출산, 고령화 진행
-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 구조개혁

<유료노인홈
<유유노사토>-에덴의 동산이 업계를 선도

***양 법인이 유료노인홈이미지를 바꾸고**
체계를 구축해 업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지속
[1980년대]
-입주 시 자립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시설 내 간병
-종신 이용, 간병 포함, 고액 입주비 홈이 주류
[1990년대 후반]
-주식회사 등의 경영에 의한
저렴한 가격의 소규모 노인홈 증가

***개호보험 시행 이전인 1998년 전국 288개 시설**
대부분 수도권과 오사카권 도시에 집중



유료노인홈 역사

▣전후 사회경제 상황, 유료노인홈 설립 역사와 재단의 발자취

경제 상황

사회 상황

사회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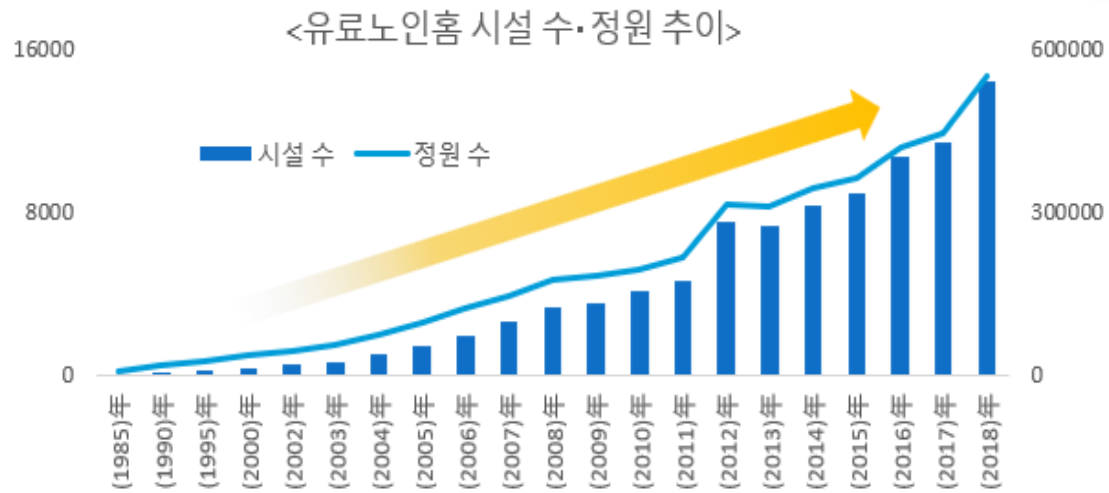
유료노인홈 설립 현황

2000년~

- 저성장기
- 초고 사회 도래
- 사회보장제도 구조개혁
- 개호보험제도 시작

<유료노인홈>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후 개호 사업은 초고령사회에서 유력한 성장 분야로 꼽히며, 유료 노인홈이나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등이 급증**



재단 현황과 과제

재단 현황과 과제

- 재단 현황
  - 전국 7곳에서 고령자커뮤니티 <유유노사토> 운영
  - 지금까지 실현한 것들

입주자의 안심과 안전

- 개인의 존엄성 존중
- 의료, 간병 서비스 제공
- 충실한 주거 공간 및 공용 시설

지역사회에 공헌

-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방재 거점
- 지역 교류 거점

재단 현황과 과제

- 재단 현황
  - 지역사회 공헌
    - **일자리 창출**
      - 각 시설이 인근 지역에서 많은 직원을 고용
    - **지역 경제 활성화**
      -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다수의 액티브 시니어가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
    - **방재 거점**
      - 지자체와 방재 협약을 맺어 방재 거점 역할 수행
    - **지역 교류 거점**
      - 입소자 돌봄만이 아니라 지역의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서포터즈 양성 강좌 개최, 유치원과 교류, 지역 학생의 실습 장소로도 오픈해 지역 교류의 거점 역할 담당

- 재단 현황
  - 지역사회 공헌

<지역교류 거점 주요 성과(2015년도)>

이즈 고원	소년소녀합창단 콘서트
	겐지모노가타리 낭독회
	스틸팬 연주회
	와세다 나가타연구회 공연
	운동회
	시즌 콘서트
	고토와 샤쿠하치 콘서트
교토	문화제 작품 전시
고베	어린이집과 교류회(12회)
	자연 강습회(2회)
	역사 강연회(4회)
	여름 축제
	호시와다이 여름축제
	제10회 성화대 크로스로드
	유유노사토 축제
	지역단체 교류: 재해 대비 관련
	나루코 자치회 떡메치기 대회
	호시와다이 · 나루코 돈도 축제

사쿠라	유유노사토 축제
	만남의 동물원
	쓰레기 제로 운동
	여름 축제
	가을 축제(전시)
	가을 축제(무대)
	꽃놀이 모임
유가와라	예방의학 강연회(3회)
	야마하 콘서트(4회)
	어린이집 교류(2회)
	여름 축제
	MMA 콘서트(2회)
	역사 강연회
하마마쓰	유유노사토 축제
	여름 축제

재단 현황과 과제

• 사회 환경과 장기요양제도 과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향후 수십 년 동안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

•급여비 증가,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적정화 불가피
•사회보험인 개호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자조와 상부상조를 통한 중층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

공적 지원으로 조성되는 요양원 등만으로는 부족 민간 사업자의 역할 분담은 필수

다양한 노후 주거 선택지 중 하나로 유료노인홈은 중요한 역할 담당

재단의 과제

안심과 안전, 지역 사회와 교류 + '활력 넘치는' 유료노인홈 실현

건강할 때부터 임종까지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동료와 함께 기쁨과 보람을 나눌 수 있는 유료노인홈 실현!

향후 재단의 모습

향후 재단의 모습 - 재단 비전

- **재단 비전 2024**

시대를 앞서가는
'노년기의 풍요로운 삶'을 제안하는 재단

– **재단이 제안하는 '노년기의 풍요로운 삶'**

고령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자신다운 라이프 스타일!

- ●건강 관리와 삶의 보람 만들기
- ●동료 및 지역사회와 교류
- ●장기요양, 의료 등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포트

향후 재단의 모습 - 신규 사업 방향

- **향후 입주자 = 베이비붐 세대와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 베이비붐 세대,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에 부응하면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유료노인홈 추구

-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인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까지 고려한 시설 운영

세대	출생연	특징
베이비붐 세대	1946년 ~1950년	-전후 부흥기에 성장하여 청년기에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 -인구가 많아 당시의 문화와 소비를 주도 -핵가족화가 진전되었지만 전통적인 가족관을 보유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1951년 ~1958년	-베이비붐 세대 혜택을 받아 우상향하는 경제성장을 누림 -시라케 세대, 브랜드 제품이나 테니스, 스키를 좋아함 -취미와 취향의 개인화 -컴퓨터 조작에 능숙하고 인터넷도 활용 가능 -맞벌이 부부이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등장

향후 재단의 모습 - 신규 사업 방향

- **베이비붐 세대,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바라는 것**
  - 안심·안전, 건강 장수에 더해 **쾌적함과 즐거움**

인생 100세 시대에 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하고, 놀고, 배우고 쉬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
(도쿄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특임교수 아키야마 히로코씨)

향후 재단의 모습 - 신규 사업 방향

- **신규 사업 방향성**
  - 안심·안전, 건강장수 뿐만 아니라 입주자에게 쾌적함과 즐거움을 제공

    = **다채로운 시니어 라이프를 제공하는 유료노인홈**

일하고	• 사회와 연결고리 지원 • 사회활동 및 사회 참여 지원
놀고	•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포트
쉬고	• 휴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 • 편안한 휴식 공간 마련
배우기	•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 서로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ゆうゆうの里〉

감사합니다!

SOMPO HOLDINGS

A Theme Park for Security, Health & Wellbeing

SOMPO그룹의 고령자 케어 비즈니스

2023년 9월1일

Sompo Holdings, Inc.
Sompo Care Inc.

발표 순서

1 . SOMPO그룹의 고령자 케어 비즈니스 진출

2 . SOMPO케어의 고령자 케어 비즈니스 전개

3 . SOMPO케어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도전

(참고) Ageing Asia Innovation Forum 수상 경력

1 . SOMPO그룹의
고령자 케어 비즈니스 진출

SOMPO홀딩스 개요

Innovation for Wellbeing
SOMPO HOLDINGS

설립 (손해보험 사업)	1887 년
그룹 CEO	사쿠라다 켄오 SAKURADA Kengo
자회사 · 계열사 수	116 사
총자산	14조4,602억엔
연결 경상 수익	4조6,071억엔
종업원 수	73,676명

안심·안전·건강의 테마 파크

함께하고 싶은 SOMPO
없어서는 곤란한 SOMPO
=
고객 · 사회 · 세계의
행복에 기여

지속 가능한 사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안심 · 안전 · 건강의 테마파크

Brand Mark for Security, Health & Wellbeing

グループCEO·代表執行役会長

櫻田　謙悟
SAKURADA Kengo

'안심 · 안전 · 건강의 테마파크'란 안심 · 안전 · 건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 모든 선진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사회 과제를 해결하면서, 고객의 삶과 생활을 지지해 나가는 존재로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SOMPO그룹의 궁극적인 모습임. SOMPO그룹이 하나가 되어 '안심 · 안전 · 건강의 테마 파크'로 바꿔 나가고자 그룹 브랜드 슬로건으로 설정함

SOMPO그룹의 비즈니스 구성

SOMPOグループの ケア ビジネス ヒストリー

- 직전 중기경영계획에서는 교육 내실화, 케어 기업의 합병·성장에 투자, 고령자 케어 오퍼레이터로서 성장기반 구축을 추진
- 현 중기경영계획에서는 신규 개설이나 M&A 등을 통한 규모 확대와 품질 개선을 동반한 생산성 향상, 성장을 이끄는 임직원의 보람에 도전

직전 중기경영계획

성장에 대한 투자(Future Care Lab in Japan)
장기요양에 관한 테크놀로지 연구개발·실증·평가 실시

2019년도
✓「Future Care Lab in Japan」설립
✓ 처우개선 제1단계 실시

2018년도
✓ 기존 회사를 합병해 SOMPOケア 설립

2016년도
✓ 'SOMPOケア ユニバーシティ' 개설

2015년도
케어 비즈니스 진출
・와타미개호 인수
・메시지 매인

교육 내실화 (SOMPOケア ユニバーシティ)
-업계 최초 사내 연수시설 설치
-노인홈을 재현한 연수시설에서 입사 연수 등 실시

현 중기경영계획

2020년도
✓ 도쿄건물 시니어라이프서포트 인수

2021년도
✓ 품질을 동반한 생산성 향상 도전 개시

2022년도
✓ 넥서스케어 인수·합병 후 신규시설 개설
✓ 처우개선 제2단계 실시
✓ 'SOMPOスタイル 어린이식당' 시작
✓ '케어에일' 앱 출시

직원의 업무 보람 조성 (SOMPOスタイル 어린이식당)
-2023년 1월 말까지 약 450개 사업소에서 운영 개시
-이용자에게 활력과 미소, 직원의 보람을 조성
-아이를 둘러싼 사회과제 해결에도 공헌

2 . SOMPO케어의
고령자 케어 비즈니스 전개

SOMPO케어주식회사 개요

SOMPO
ホールディングス

SOMPOケア
介護の未来を変えていく
5th ANNIVERSARY

설립	1997 년 5 월 26 일
대표이사 회장 CEO	엔도　켄 ENDO Ken
대표이사 사장 COO	와시미 타카미츠 WASHIMI Takamitsu
매출	1,504 억엔　국내 2위
시니어 리빙 객실 수	약 28,500 실　국내 1위
임직원 수	24,543 명

장기요양의 미래를 SOMPO가 바꾼다

SOMPO is changing the future of nursing care

회장　CEO
엔도오　켄
Endo Ken

社長　COO
와시미타카미츠
Washimi Takamit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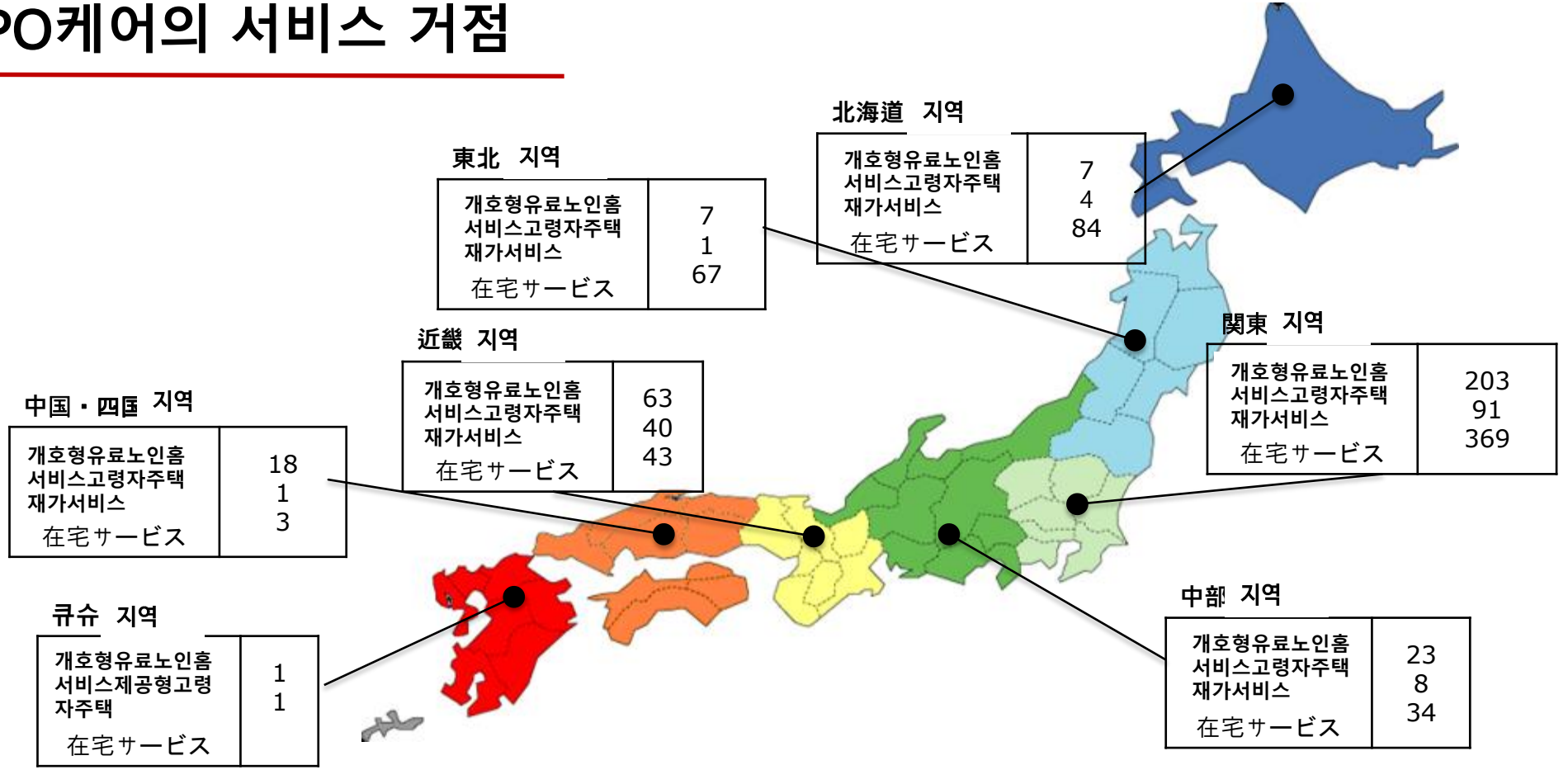
SOMPO케어그룹은 고령자와 가족, 모든 직원에게 '인간 존중'을 경영 기본으로 삼아 안심 · 안전 · 건강에 기여하는 최고 품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에게 일에 대한 보람과 일하기 좋은 일터 환경을 제공하면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풍족한 장수국 일본' 실현에 기여합니다.

2023 년 4 월 1 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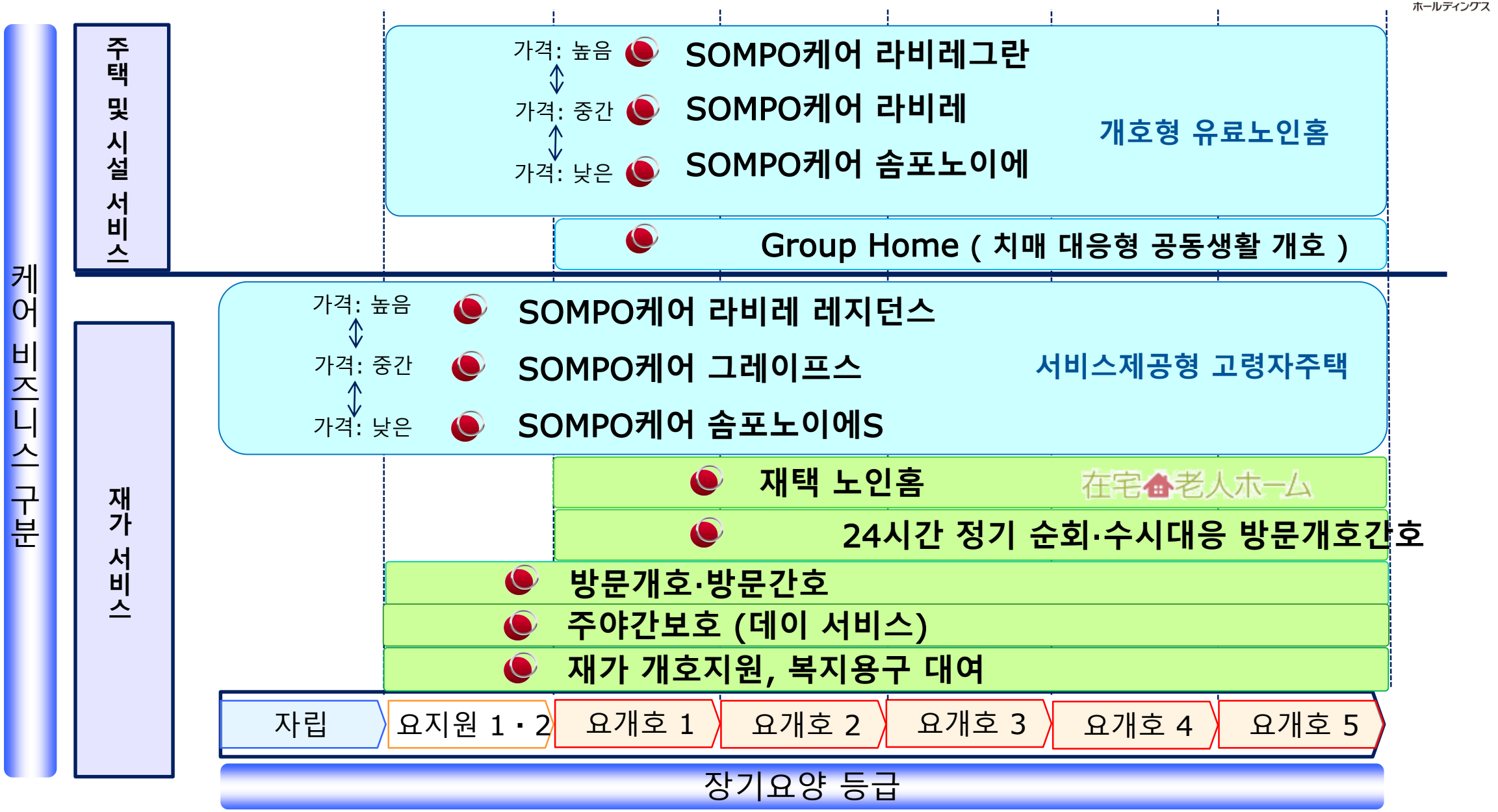
SOMPOケア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개요

- SOMPOケア 매출액은 업계 2위, 시니어 객실 수는 업계 1위
- 전국에 서비스 거점을 두고 개호형 유료노인홈에서 방문서비스, 데이서비스 등 재가사업소까지 풀 라인업으로 전개

SOMPOケアの サービス拠点



SOMPO케어의 비즈니스 전체 모습



SOMPOケア 각 시설의 모습

- 고객 한분 한분의 가치관과 각자 생활에 맞춘 간병, 고객의 자립과 자율 지원을 위한 절차를 소중히 생각
- 이러한 돌봄 철학을 '커스텀 메이드 케어'라고 부르며 서비스를 제공

２４時間看護師常勤しているネクサスコートでは、細やかなリハビリプログラムや多彩なアクティビティー、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大切にしたケアを提供いたします。

SOMPOケア

訪問介護、居宅介護支援、通所介護、短期入所など、多彩な在宅介護サービスにより、安心してご自宅での生活を続けられるようにサポートいたします。

Iki GUIDE
いきガイド

お一人おひとりのご要望やお困りごとを
経験豊富なライフガイドがお伺いし
オーダーメイドサービスをご提供します。

SOMPOケア 운영시설과 이용자 현황

고령자 돌봄 주택에서 재가서비스까지 전국에 풀 라인업 서비스 전개

돌봄 주택 및 시설 서비스		기타 서비스	
돌봄주택 등 개호 시설	447시설	사업소 (방문개호 사업소 등)	505곳
그룹 홈	21시설	통소 개호 (데이 서비스)	58곳

시니어 리빙 객실수	28,500 실
고령자 수	72,000 명
직원 수	24,543 명

일본 국내 1위

*2023 년 4 월 1 일 시점

신규 진출할 때 의사결정 항목

<지역 선정>

- 인구, 고령화율, 성장률
- 노동자 확보 문제
- 지역 의료 인프라
- 경쟁사 시설 유무

<임대 or 건설>

- 자산운용 관점에서 하우스 메이커가 소개
- 당사는 90%정도가 임대물건
- 도시지역은 토지부족으로 공공토지도 활용
- 특정시설은 총량규제 있음

<가격 설정>

·지역주민의 소득 분포
·지역 토지, 주택가격 상황
·제공하는 서비스 브랜드와 내용
·경쟁사의 가격 수준

<입주자 모집>

·그룹 내 연계
·지역 돌봄상담기관 소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개
·돌봄시설 중개회사 소개 등

SOMPOケア 입주율과 수익 동향

○ 입주율 개선 등 요인으로 2016년도 이후에는 매출과 이익 증가

○ 기존 사업 성장 외에도 M&A, 신규 시설 개설 등으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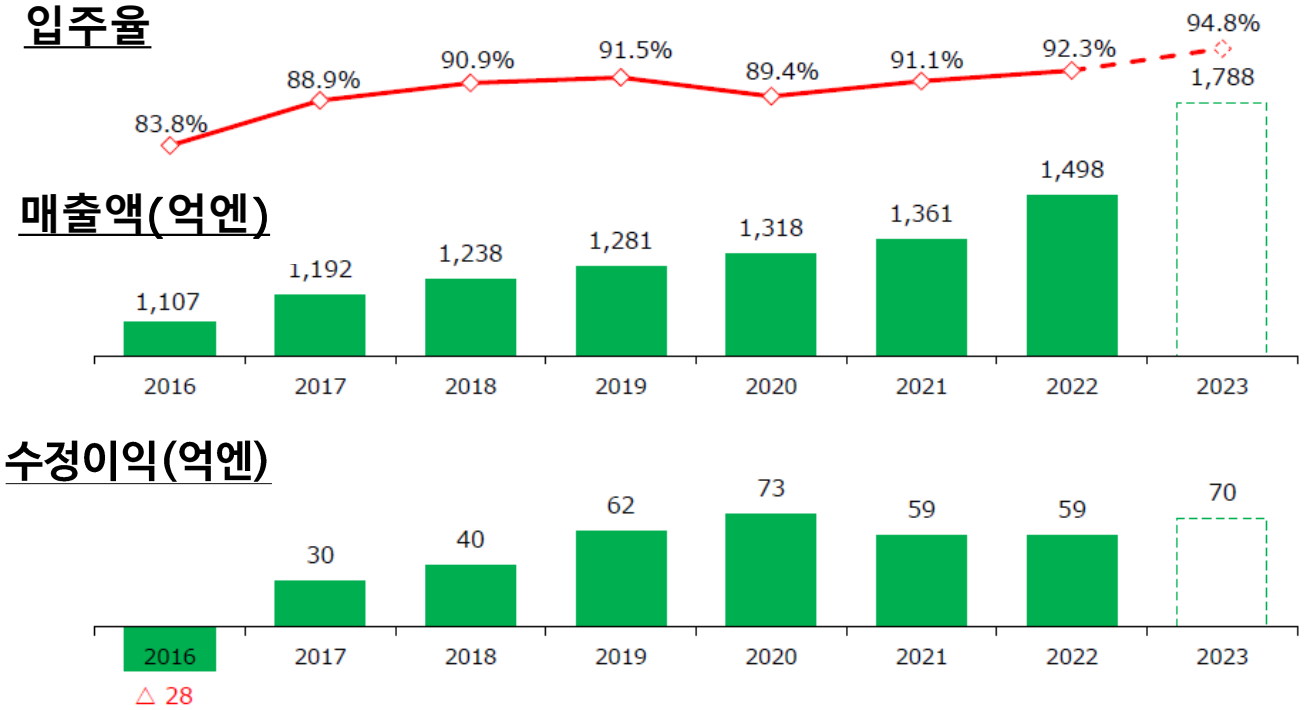
업계 매출 순위

2022년 3월 매출액 (단위 : 억엔)

A사※2	1,537
SOMPOケア	**1,361**
B사	1,273
C사※3	932
D사	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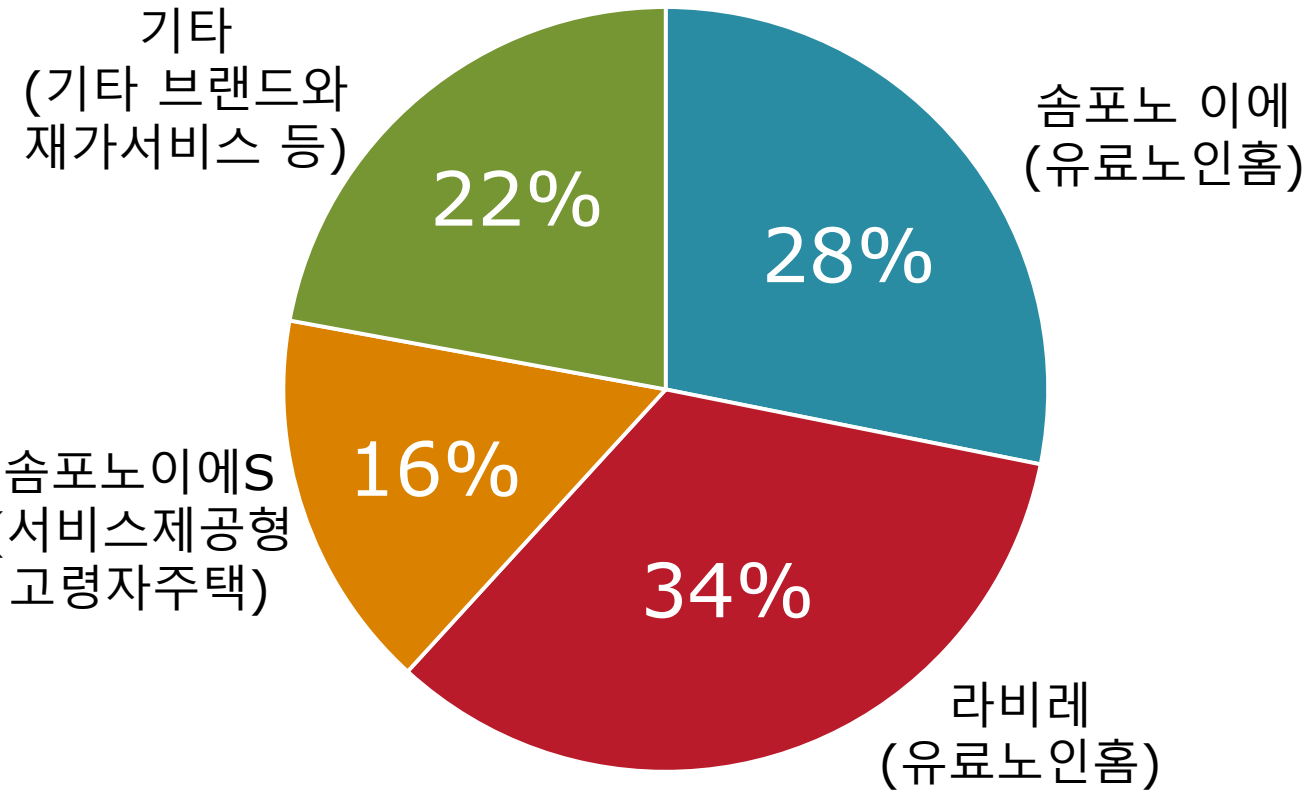
※1　각사 공표 상황을 바탕으로 당사에서 작성

※2　2020년 3월　　※3 2021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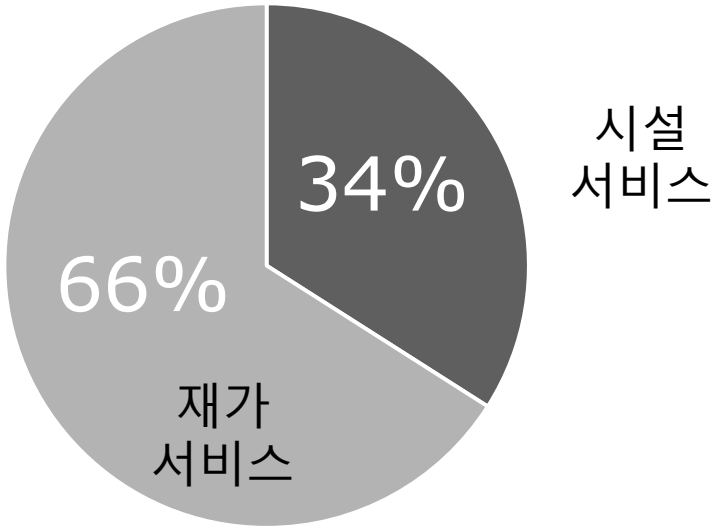


SOMPOケア ビズニスの수익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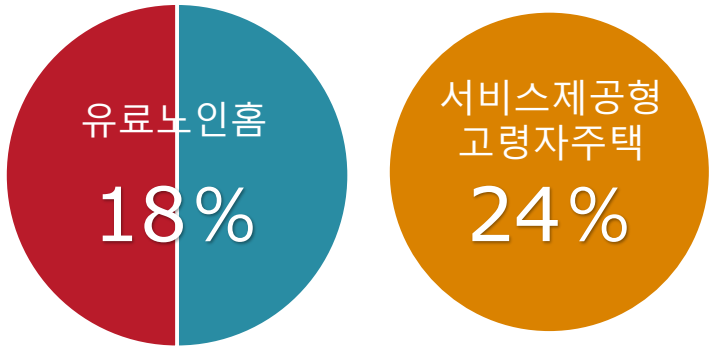
사업별 매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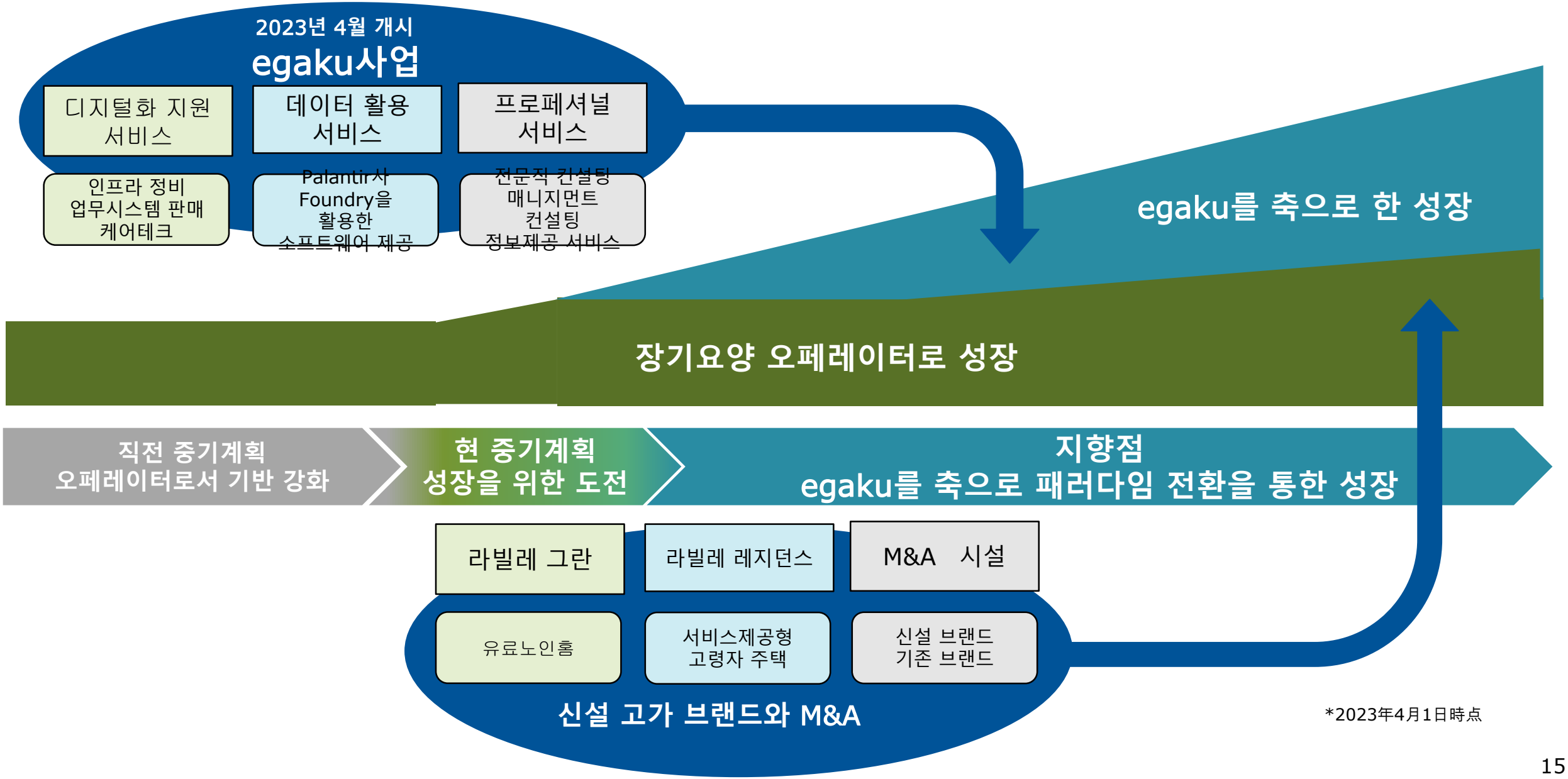
이용자 수



이익률



SOMPO케어 비즈니스의 향후 모습



*2023年4月1日時点

3 . SOMPO케어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도전

⊖ Future Care Lab in Japan

Future Care Lab in Japan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공생을 통해 새로운 돌봄 체계를 창조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간병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Lab. SOMPO케어의 각 현장만이 아니라 장기요양업계 전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돌봄을 받는 자, 제공하는 자 모두에게 매력 있는 기술의 실증과 연구를 실시 중

사례 일부

분리형 어시스트 로봇

케어샤워 목욕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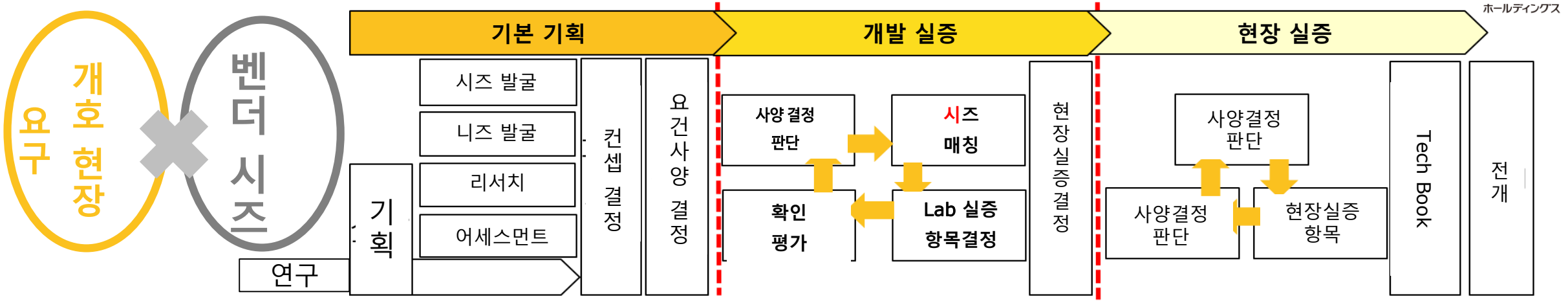
울트라 파인 버블 발생 장치

케어 데이터 연결

가족형 로봇

수면 센서

Lab의 구체적인 현황



기본 기획 및 개발 실증

【활동 실적】

수	시즈 리서치	개발 실증	현장 실증
2019년도	200	67	23
2020년도	165	43	11
2021년도	150	80	30
2022년도	211	78	15

[평가지표]
국립연구개발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연계 연구

장기요양 현장 실증

【실증 시설】

라비레 川崎

라비레 座間谷戸山公園

라비레 駒沢公園

솜포노 이에 高円寺

※ 재가사업소도 4군데 설치

기타	후생노동성: 돌봄로봇 개발·실증·보급 플랫폼 사업의 리빙랩 선정

㊀ SOMPO케어 유니버시티

케어에 관한 종합적인 연수기관인 'SOMPO케어 유니버시티'

SOMPOケア
ユニバーシティ

이론과 실기를 함께 학습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종합적인 연수시설. 연차나 간병스킬에 맞춰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설 이후 64,000 명 이상이 학습

각 노인홈과 일본식 가옥을 재현

3개의 시설 브랜드와 똑같은 개인실과 욕실을 재현, 심지어 계단이 많고 화장실이 좁은 일본식 가옥도 재현. 시설 간병부터 재택 간병까지 실질적인 학습이 가능

사례 연구 발표회

각 시설 현장의 장기요양 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연구 발표회'를 매년 개최. 한사람 한사람의 경험과 대응력을 축적, 공유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돌봄을 제공

⊛ SOMPOケア 푸드Lab

식사, 영양에 관한 종합적인 거점인 'SOMPOケア 푸드 Lab'

'맛있는 식사'를 통한 '활력 회복'를 지원

상품 개발 **맛있게 먹기 위한 새로운 메뉴 개발**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수시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 고객 목소리를 바탕으로 PDCA을 실행하며 진심으로 고객이 기뻐하는 식단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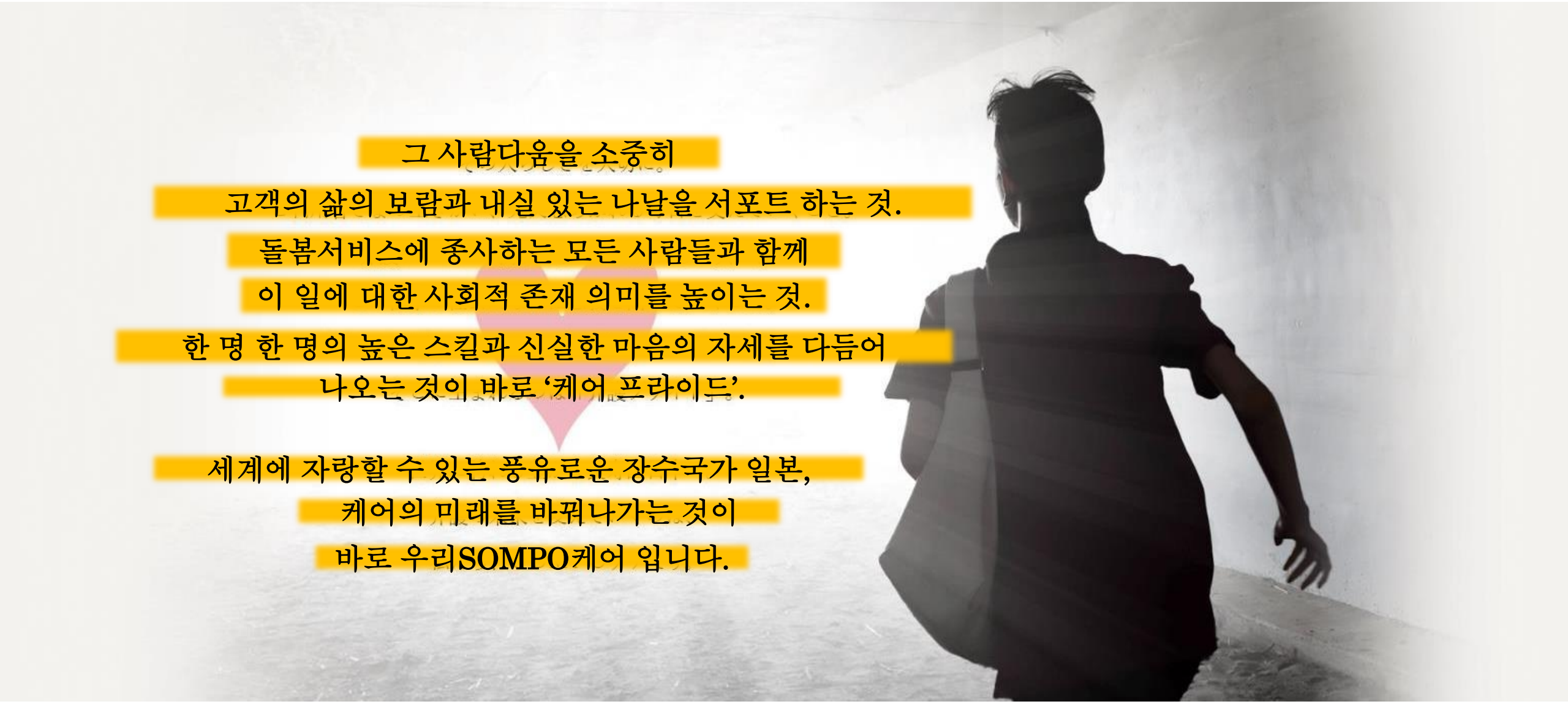
연구 **SOMPO다운 음식를 위해 영양을 키워드로 연구**

학회 기준을 근거로 영양 및 섭식기능에 맞춘 메뉴 개발, QOL 향상을 목표로 한 에비던스 구축을 통해 음식·영양면에서 서포트

인재 교육 **노인홈 주방과 동일한 장비로 연수**

노인홈과 같은 기기를 갖춘 주방을 완비.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수를 실시해 조리부터 배식까지 효율적인 움직임을 배울 수 있음

④ 구성원의 '케어 프라이드'를 추구



그 사람다움을 소중히
고객의 삶의 보람과 내실 있는 나날을 서포트 하는 것.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한 사회적 존재 의미를 높이는 것.
한 명 한 명의 높은 스킬과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다듬어
나오는 것이 바로 '케어 프라이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풍유로운 장수국가 일본,
케어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SOMPO케어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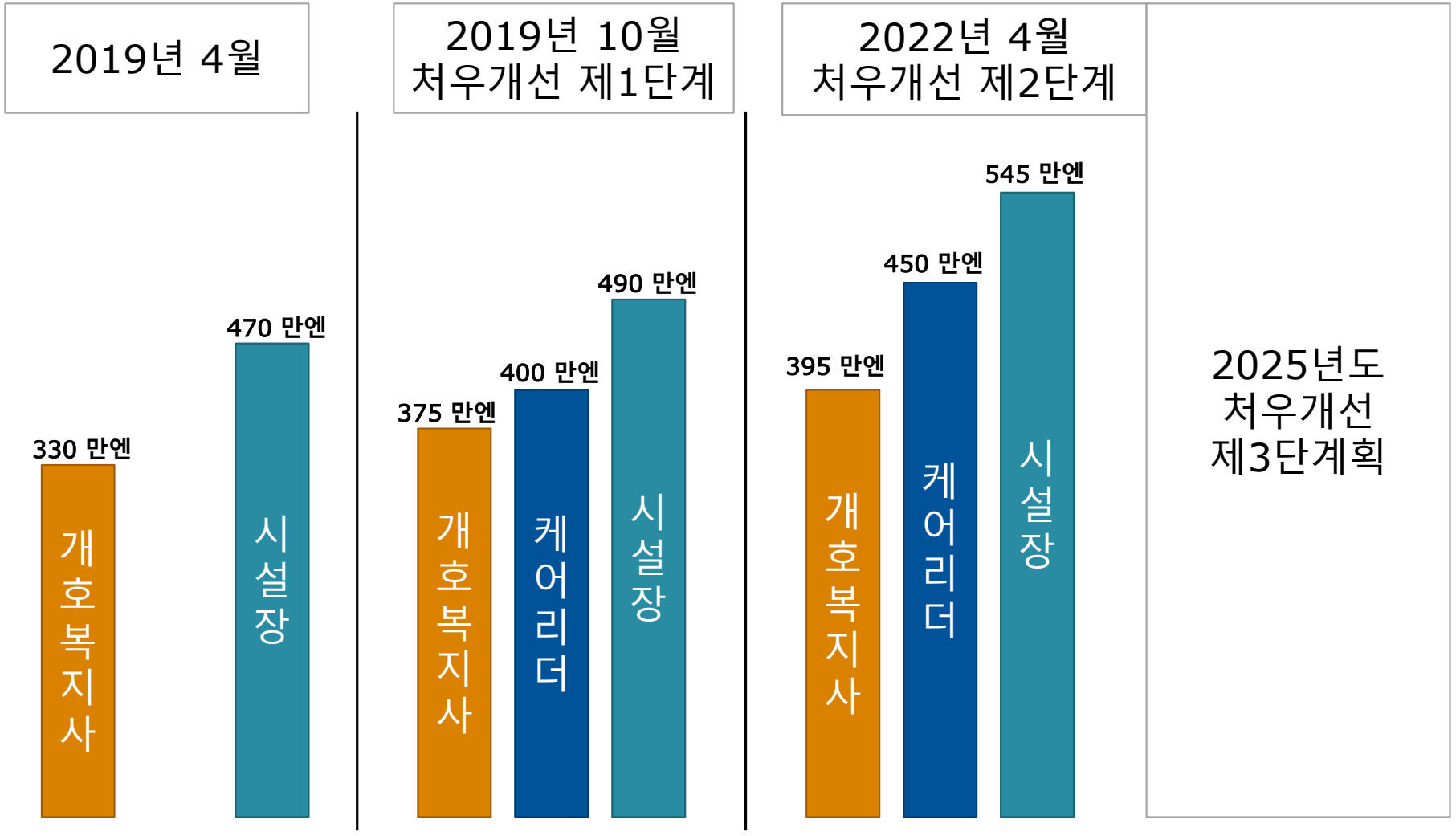
케어 프라이드 마이스터 제도란 (About kaigo pride Meister)

- 케어 프라이드 마이스터 제도는 케어 프라이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기요양 스탭을 선출해서 임명하는 것

- 케어 프라이드의 가시화 및 케어 스탭으로서의 전문성과 성장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	케어 프라이드를 갖고 성장하고 싶은 높은 의욕이 있는 인물
2	1.마음자세 2.고객응대 3.간병의료지식 4.간병기술에 능통한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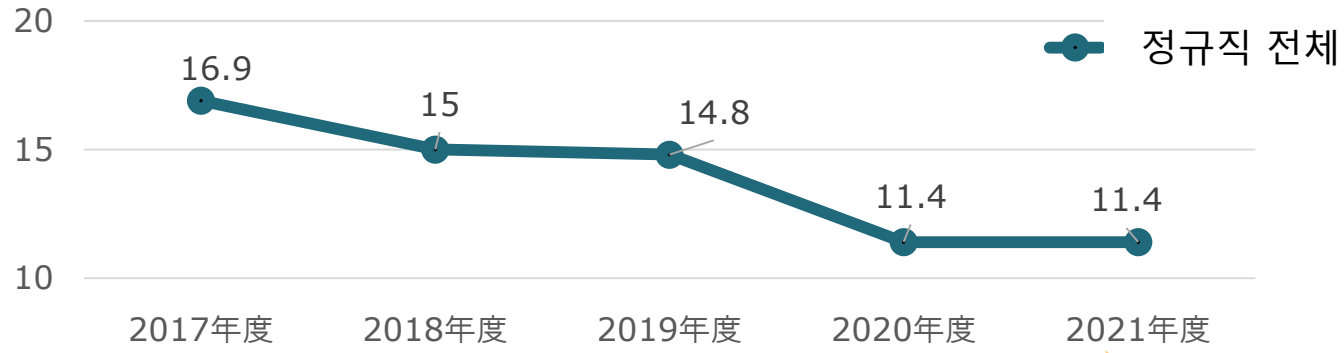
케어 리더(care conductor) 처우를 **간호사와 같은 수준**까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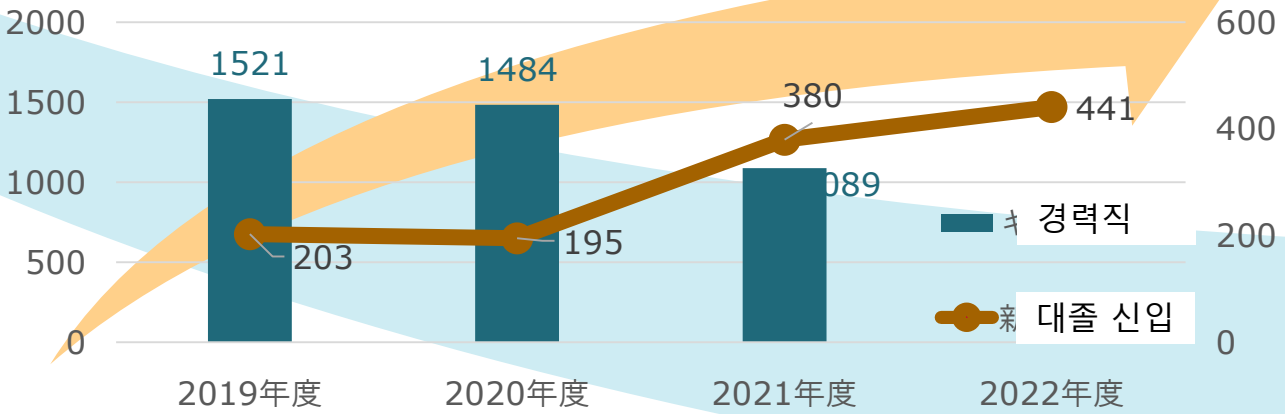
도쿄 지구의 경우의 예

과거 20%대였던 이직률이 11.4%까지 저하

이직률 (%)



대졸신입·경력직채용
(인원수)



시니어 세대
활용

70세 이상 직원 약 1,500명

⑤ 간병 관련 data를 활용한 사업 'egaku'

SOMPO ホールディングス

egaku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반(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해 여러 사회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의 미래를 바꿔가는 것이 목표

1 데이터 활용 서비스 (소프트웨어)

2 디지털화 지원 | ICT 인프라 센서 | 장기요양 업무시스템: 시프트 관리, 어세스먼트, 기록, 그룹웨어, 업무표, 청구

3 전문적인 서비스

<egaku의 구체적인 내용>

egaku

SOMPO ホールディングス

조직내 분산된 데이터 통합

'데이터 커넥터'를 사용해 가공 전 상황의 원data를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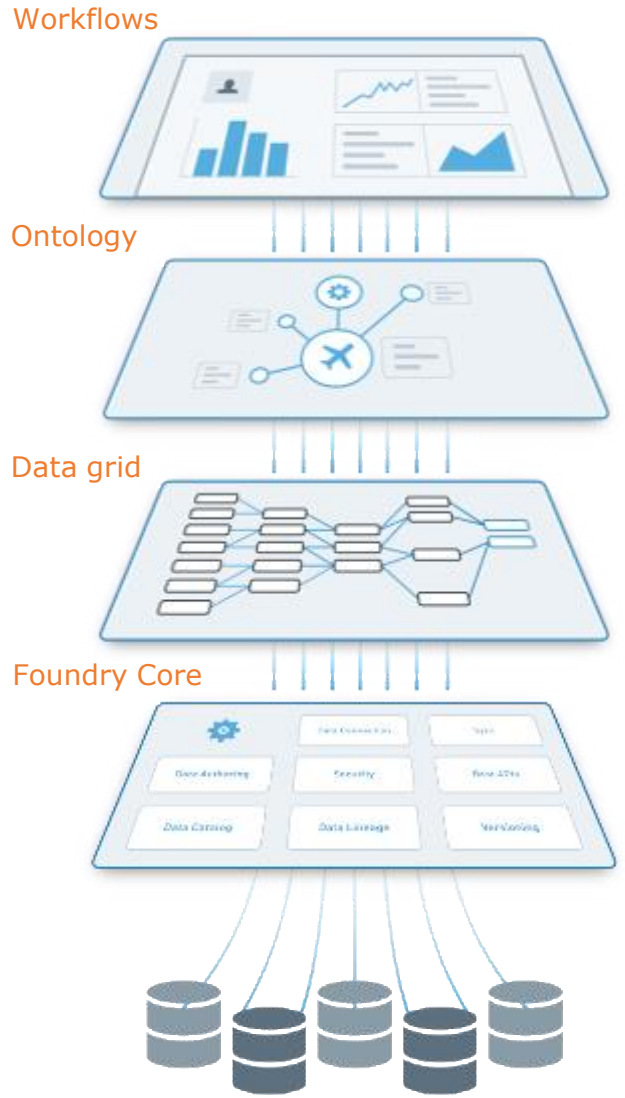
데이터 통합부터 시설운영까지 하나의 환경(플랫폼)으로 실현

-통합 데이터와 비즈니스 과제를 연결하는 작업을 동일한 환경에서 실현

-사용자 의견을 민첩하게 반영, 데이터 추가와 로직 변경이 조작화면에 즉시

현장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와 오퍼레이션을 연결하는 핵심인력 육성



효율화,
고도의 오퍼레이션,
의사결정 실현

데이터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분석 및 시각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

⑥ 보험외 비급여 서비스 개발~Iki GUIDE

SOMPO ホールディングス

개호보험 적용 이외의 서비스를 제안하는 'Iki GUIDE'. 라이프가이드가 삶의 다채로움을 지원

서비스 요금

	내용	내역
기본 요금	3,300엔/30분	3300엔/30분×이용 시간
Plan에 대해 협의	※상담료 : 최초 무료, 2회차 이후 3300엔/30분	

*** 3시간, 9시간, 15시간의 월정액 팩 플랜도 준비**

Iki GUIDE STATION

이키가이드 스테이션

2022년 3월
세타가야구 산겐자야에 OPEN

⑦ 미래의 간병종사자 육성하기

어린이 식당

~SOMPO케어의 시설을 지역 다세대 교류의 거점으로~
' SOMPO스타일 어린이식당' 운영 개시!

사업 목적

·세대간 교류를 통한 **고령자의 활력(기력·신체기능) 향상**
·지역연계를 통해 **아동이 혼자 식사하는 문제 등 사회과제 해결에 공헌**
·케어 업무 지원을 통한 **자녀 취업 체험 기회 제공**
⇒ '미래에 간병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장소로 활용

- 2022년 11월부터 전국 82개 시설에서 운영 개시
- 2023년 5월까지 전국 약 431개 시설계 사업소에서 전개, 6514명의 어린이에게 식사를 무료 제공
- 2023년 9월 말까지 총 10,000식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

키자니아 도쿄『케어서포트센터』

~케어 직업을 아이들의 '동경의 직업'으로~

사업 목적

- 케어 체험을 통해 **신체에 대해 이해하고 몸 상태별로 대하는 법을 학습**
- 아이들에게 **노인을 배려한 행동을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
- 케어 ICT를 사용한 최신 케어 기술을 접함으로써 **케어 업무가 아이들이 동경하는 직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특수한 기구를 장착해 신체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체험을 통해 고령자의 신체 상태와 기분을 이해할 수 있고 수면 상태를 관리하는 ICT 시스템 등 최첨단 돌봄 체험을 할 수 있음

(참고) Ageing Asia Innovation Forum 수상 경력

2018년
6th Awards

「BEST PRODUCT TO SUPPORT AGEING-IN-PLACE – WELLNESS」부문 수상

고령자 식사

2019년
7th Awards

「Global Ageing Influencer」수상

기업 활동 및 상품 개발

2021년
9th Awards

9th ELDERCARE INNOVATION AWARDS 2021

9th ELDERCARE INNOVATION AWARDS 2021

「BEST SMART CARE TECHNOLOGY-Operational Management Solution」부문 수상

케어 오퍼레에션

2022년
10th Awards

「OPERATOR OF THE YEAR – ASSISTED LIVING」부문 수상

자립지원 서비스

2023년
11th Awards

「BEST SMART CARE TECHNOLOGY – OPERATIONAL MANAGEMENT SOLUTION (STAFF)부문 수상

'egaku' 제품

「INNOVATION OF THE YEAR – RESPONSE TO COVID-19 (INFECTION CONTROL)」부문FINALISTS

COVID-19대책

Ageing Asia

SOMPO HOLDINGS

A Theme Park for Security, Health & Wellbeing